



2011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1 Annual Report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1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1 Annual Report

발간에 즈음하여



2012년 11월

원장 박양호

박 양 호

국토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래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 국토환경 보전 및 관리정책, 토지·주택정책, 도시정책 및 계획 수립, 건설산업의 육성, 국토인프라 공급, 공간정보 체계 구축 등 국토의 경쟁력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개발에 전념해 왔으며, 나아가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 한반도 공간정책, 동북아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 조성과 서민생활 안정, 국토자원 보전 등의 책무를 다하고, 국토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품격 있는 글로벌 녹색국토 창출’을 연구사업 목표로 정하고 국토분야 전반에 걸쳐 224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사업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G20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협력 기반 구축’,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스마트 녹색기반 실현’, ‘국민생활 안정과 선진주거환경 조성’의 3개 세부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목표별로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G20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G20 시대의 국토품격 향상 전략 연구’,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II)’,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II)’,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 잠재력과 정책과제(I)’, ‘북한·중국·러시아접경 지역의 산업입지·기반시설 개발잠재력 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G20시대의 국토인프라분야 글로벌개발협력과

앞으로도 우리 국토연구원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토정책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고객지향의 연구상품을 창조하고 이를 정책화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진출 전략, '한·중 간 전략적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및 협력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스마트 녹색기반 실현을 위해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정책 정립방안 연구',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녹색국토 구축을 위한 강(江).산(山).해(海) 통합관리 추진방안 연구',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전략에 관한 연구', '수도권 스마트 성장관리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생활 안정과 선진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 활성화 전략 연구',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대중교통회랑 구축방안', '녹색성장형 건강도시의 경제적 가치추정 및 활성화방안 연구', '국토교통인프라의 최저서비스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발사업의 생활보상제도 정비방안 연구',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I)',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 '공정사회를 향한 지역개발사업 갈등관리 실태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연차보고서에는 2011년에 국토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열망으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들의 골자가 담겨 있습니다. 연차보고서 발간은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정책고객 및 국민과 공유하고 새로운 연구수행을 위한 자성의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2011년에 수행한 주요 연구결과들이 각계각층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토연구원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토정책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고객지향의 연구상품을 창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생활국토 창조를 위한 국토정책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Chapter I.

일반현황

- | | |
|------------------------------|----|
| 1.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 | 8 |
| 2. 조직 및 인원 | 9 |
| 3. 2011년도 연구사업 및 2012년도 연구방향 | 10 |

Chapter II.

분야별 주요 연구

- | | |
|-----------------|----|
| 1. 국토계획연구본부 | 15 |
| 2. 지역연구본부 | 25 |
| 3. 도시연구본부 | 37 |
| 4. 국토환경·수자원연구본부 | 49 |
| 5. 주택토지연구본부 | 57 |
| 6. 국토인프라연구본부 | 73 |
| 7. 국토정보연구본부 | 83 |
| 8. 색인 | 95 |

Chapter III.

국제협력사업

- | | |
|-------------------------|-----|
| 1. 국제학술교류 | 102 |
| 2. 개도국 대상 국토정책 지원 및 컨설팅 | 113 |
| 3. 국제연수프로그램 | 123 |

Chapter IV.

연구지원활동

- | | |
|-----------------------|-----|
| 1. 연구지원활동 | 132 |
| 2. 연구관련 주요 행사 · 교육 개최 | 143 |

Chapter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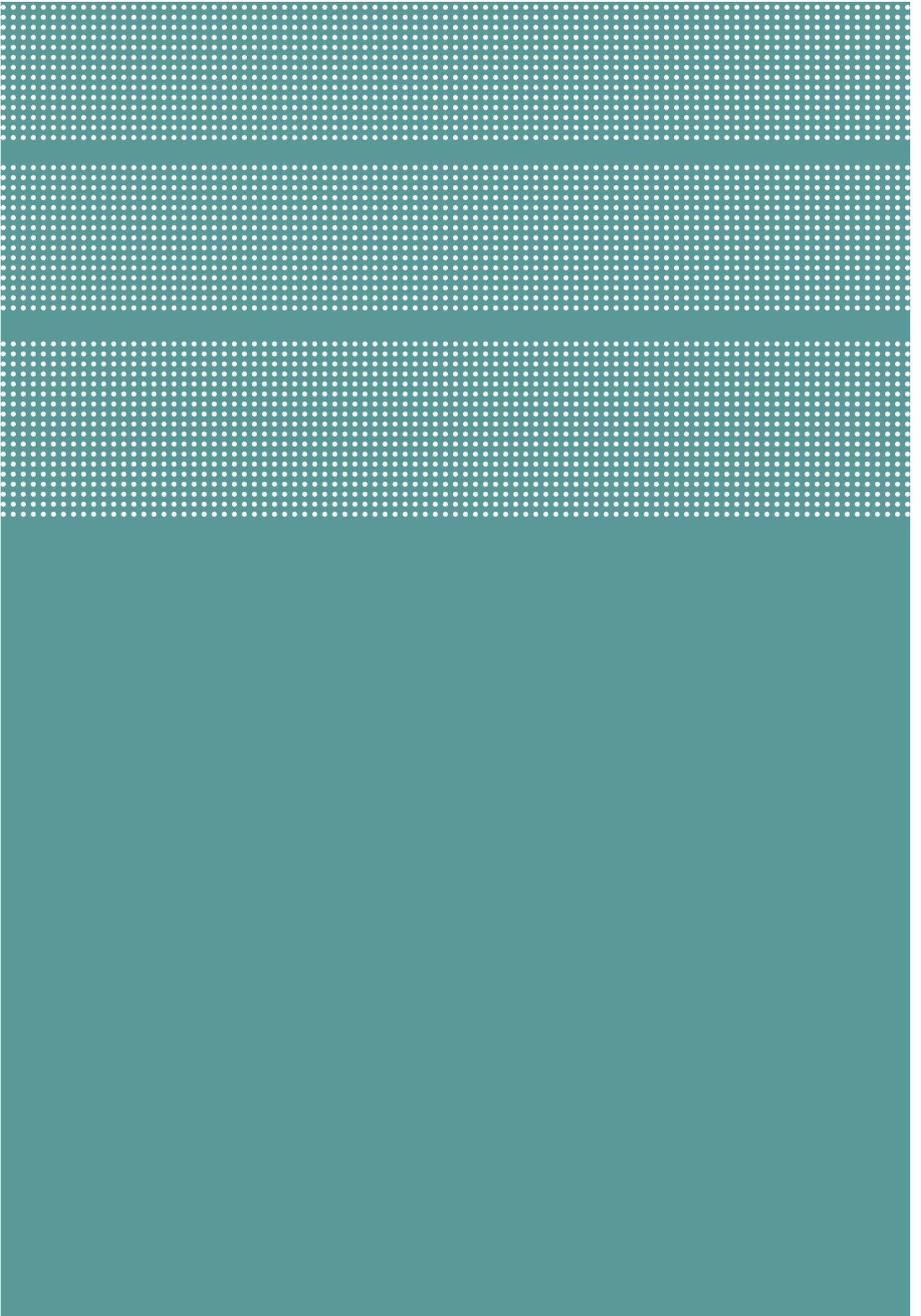
정기간행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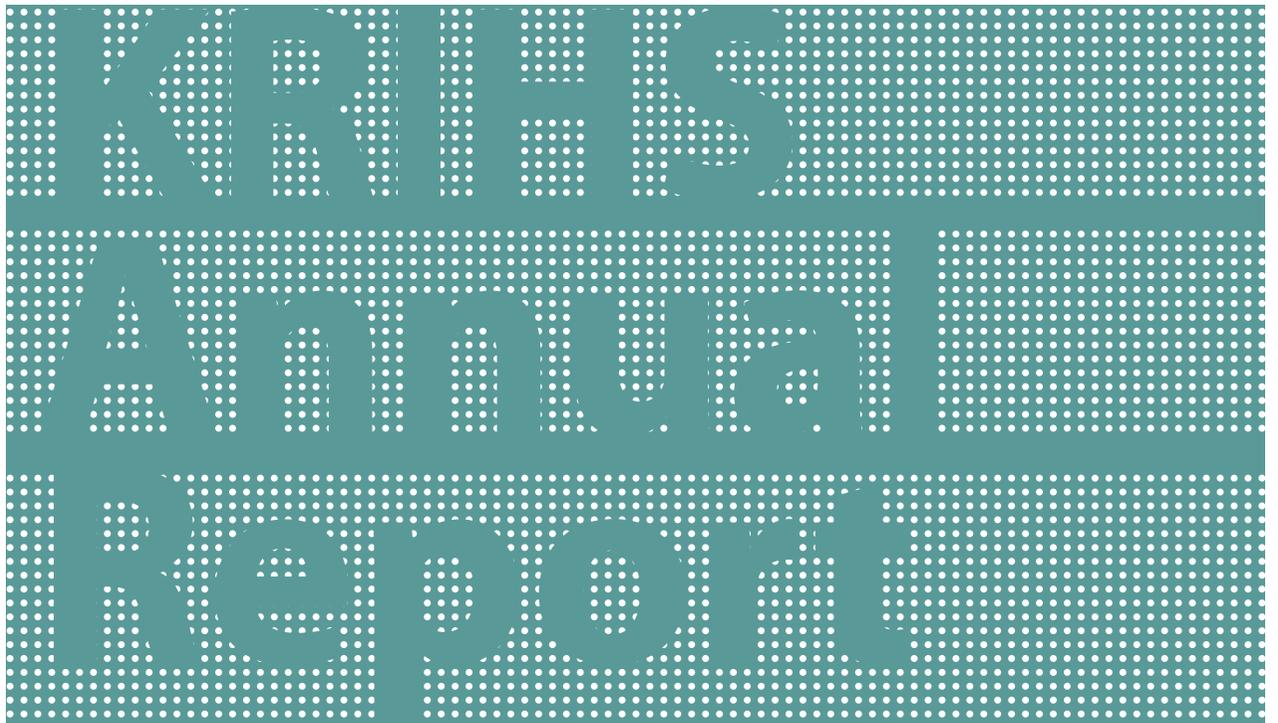
- | | |
|-------------------------|-----|
| 1. 국토(351호~362호) | 158 |
| 2. 국토연구(68권~71권) | 164 |
| 3. 국토정책Brief(306호~355호) | 165 |
| 4. 도로정책Brief(39호~50호) | 167 |
| 5. 건설경제(66권~68권) | 169 |

Chapter VI.

부서 소개

- | | |
|-------------------|-----|
| 1. 원장 · 부원장 | 172 |
| 2. 국토계획연구본부 | 175 |
| 3. 지역연구본부 | 179 |
| 4. 도시연구본부 | 183 |
| 5. 국토환경 · 수자원연구본부 | 189 |
| 6. 주택토지연구본부 | 193 |
| 7. 국토인프라연구본부 | 201 |
| 8. 국토정보연구본부 | 207 |
| 9. 글로벌개발협력센터 | 213 |
| 10. 기획경영본부 | 217 |





C h a p t e r

I

일반현황

1.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	8
2. 조직 및 인원	9
3. 2011년도 연구사업 및 2012년도 연구방향	10

1.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

설립목적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에 설립되었다.

연구원 개원 이래 “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의 시대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토, 사회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지식기반 국토를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요 기능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GIS, 동북아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정책을 선도·뒷받침하며, 정책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결하기 위한 현장중심적 연구를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실증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풍요롭고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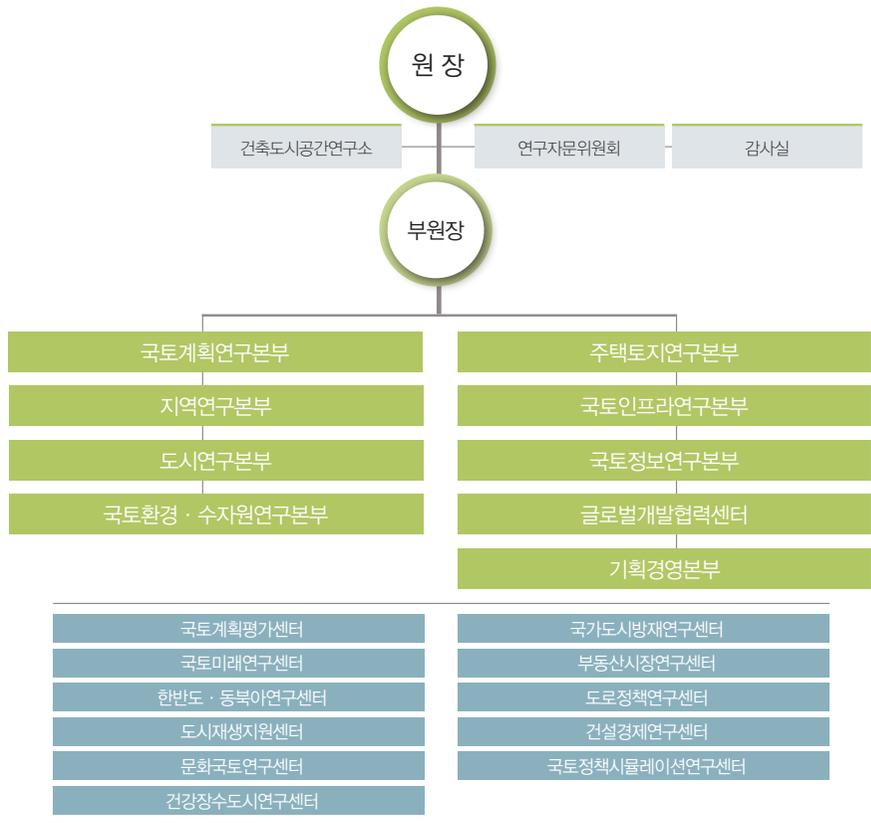
국토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국토종합장기계획 및 지역계획수립 연구
국토 이용·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토지·주택·도시 및 건설산업 등 국토관련 분야 정책 연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종합연구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
건축도시공간 분야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사업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국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국토관련 전문가 교육 및 위탁연수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배포
국토연구 관련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조직 및 임원

조직

국토연구원의 조직은 국토계획연구본부, 지역연구본부, 도시연구본부, 국토환경·수자원연구본부, 주택토지연구본부,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국토정보연구본부, 글로벌개발협력센터와 국토계획평가센터, 국토미래연구센터,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문화국토연구센터, 건강장수도시연구센터,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도로정책연구센터, 건설경제연구센터, 국토정책시뮬레이션연구센터 등의 연구부서와 행정부서인 기획경영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인원

2012년 8월 현재 임원을 제외한 현원은 154명, 정원 218명으로 연구직이 131명, 비연구직이 23명이다. 연구직은 다양한 전문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력별로는 박사 87명, 석사 41명, 학사 3명이다.

계	임원	연구직			관리·전문직	
		박사	석사	학사	관리직	전문직
구성	원장	87명	41명	3명	18명	5명
154명	1명	131명			23명	

보직자 현황

원장	박양호		
부원장	박재길		
본부장			
국토계획연구본부	김동주	주택토지연구본부	김근용
지역연구본부	이동우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조남건
도시연구본부	민범식	국토정보연구본부	최병남
국토환경·수자원연구본부	김종원	기획경영본부	정일호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사공호상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제해성		

3. 2011년도 연구사업 및 2012년도 연구방향

2011년도
연구과제
수행현황

2011년도에는 연구사업목표를 ‘품격 있는 글로벌 녹색국토 창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G20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협력 기반 구축’,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스마트 녹색기반 실현’, ‘국민생활 안정과 선진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과제유형별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외 38건의 기본연구과제,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낙후지역 발전 연구」 외 44건의 수시연구과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외 142건의 수탁연구과제 등 총 22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중 기본연구과제 38건, 수시연구과제 44건, 수탁연구과제 105건을 완료하였고, 수탁과제 중 37건은 2012년으로 이월되었다.

2011년도의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하여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G20 시대의 국토품격 향상 전략 연구」는 선진사회를 지향하면서 국민들의 국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적 위상에 맞는 국토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국토정책의 핵심과제로 국토품격 향상 전략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후속 실천과제 연구수행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는 인구변화, 주택수요변화, 주택시장 여건변화 등 가구주의 생애주기를 감안하여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 방안인 주택정책의 신패러다임을 정립하였다. 셋째,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인프라 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 연구」는 인프라 정책의 형평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서비스 취약계층의 인프라 활용 측면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서민지향형 교통인프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분석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는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인프라 정책을 제시하였다.

2012년도 중점연구과제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와 기관의 운영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실천'으로 선정하였다. 이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연구사업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 정책의 창조 및 실천기반 구축이다. 둘째, 미래국토를 선도하는 녹색·스마트 국토의 실현이다. 셋째, 초경쟁시대 글로벌 연성국토의 개척이다. 이러한 세부 연구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본과제, 수시과제, 수탁과제를 발굴·수행하여 국토분야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으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2012년도 수행과제 중 국정기조와 정책현안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할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국가정책 기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각 연구과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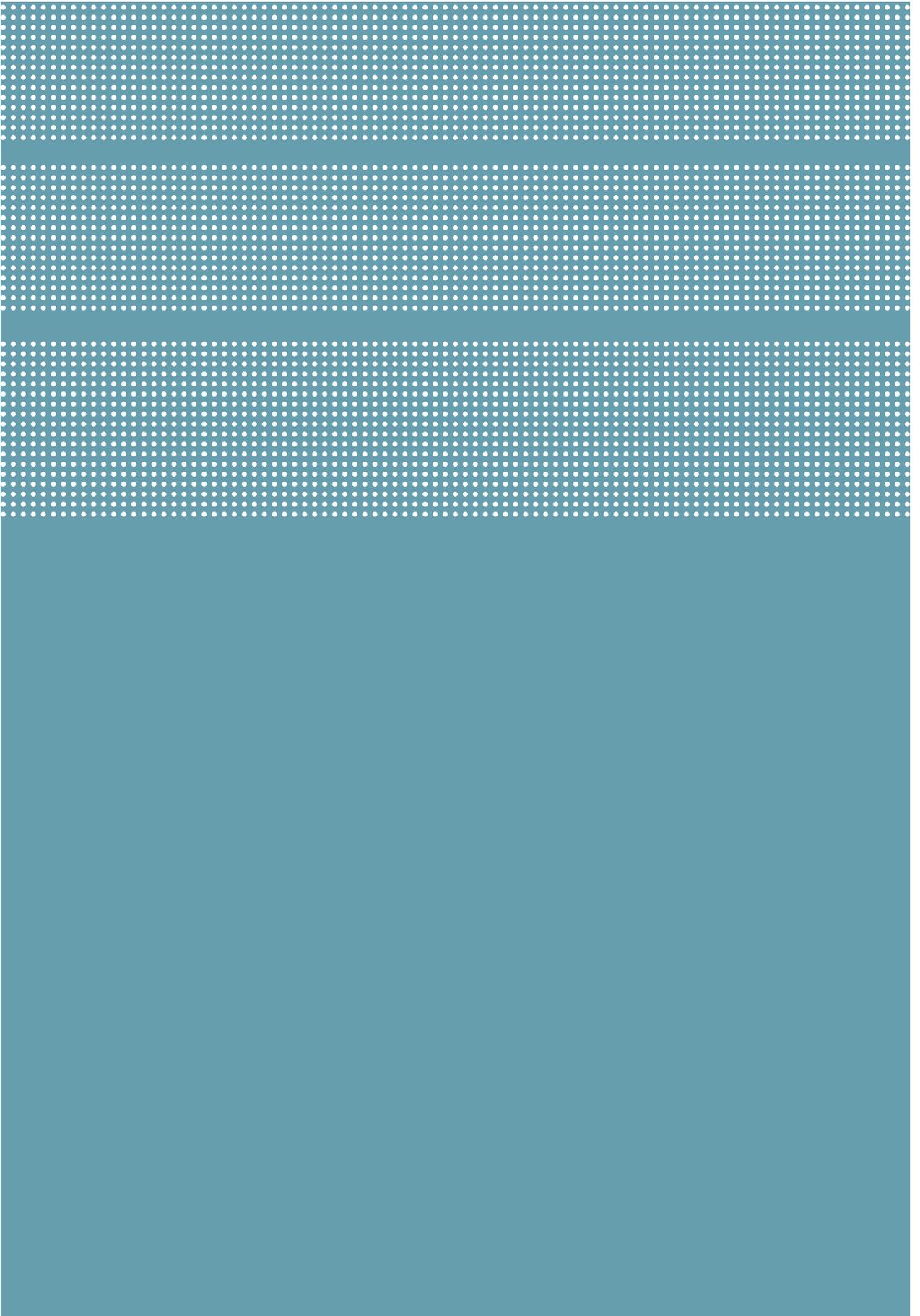
첫째, 「미래 국토발전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는 국토발전의 전망틀 및 국토발전 모형을 정립하는 연구이며, 미래지향적 국토발전모형 및 향후 지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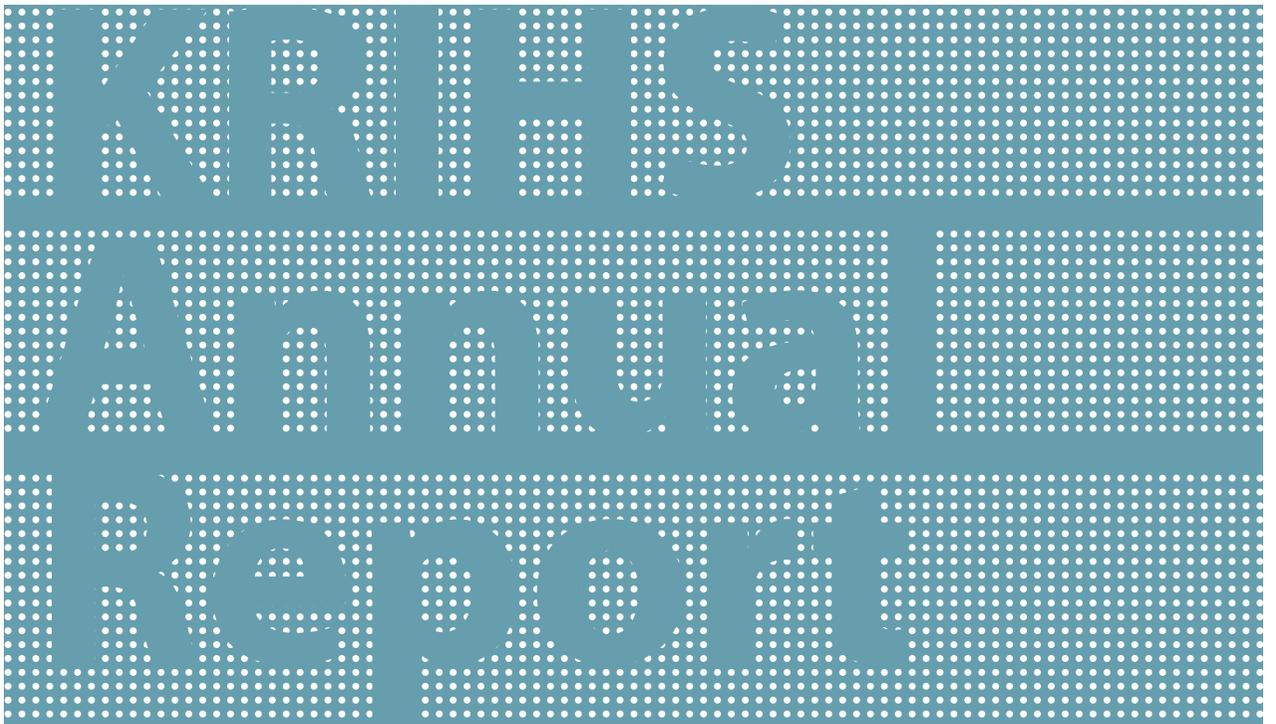
둘째, 「인구저성장시대의 도·농 공생발전 전략 연구」는 인구성장 및 도·농 간 인구이동 패턴변화에 대한 거시적 분석, 도·농 상생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화 전략 연구」는 국토품격 향상이 국가정책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공원화를 통한 국토품격 향상 전략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하게 될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수행하고자 한다.

넷째, 「농촌지역의 주거품격 향상을 위한 농촌주택 정책방안 연구」는 노후화된 농촌 주거실태 분석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농촌의 주거복지 제고와 농촌 특화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섯째,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자전거 길 조성 종합방안 연구」는 국토차원의 자전거 길의 개발잠재력을 검토하고, 4대강 유역별 문화·경관자원 현황을 분석하여 자전거 길 조성을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모형과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Chapter

II

분야별 주요 연구

1. 국토계획연구본부	15
2. 지역연구본부	25
3. 도시연구본부	37
4. 국토환경·수자원연구본부	49
5. 주택토지연구본부	57
6. 국토인프라연구본부	73
7. 국토정보연구본부	83
8. 색인	95

Chapter II

01

국토계획연구본부

National Territorial Planning &
Research Division

- 공정사회를 향한 지역개발사업 갈등관리 실태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16
- 국토 대예측 연구(III) 17
-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II) 18
- 대규모 개발사업 · 계획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19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 20
- 북한 · 중국 · 러시아 접경지역의 산업입지 · 기반시설
개발잠재력 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21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영문보고서 22
-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 23



공정사회를 향한 지역개발사업 갈등관리 실태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Assessment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over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 Finding Significant Factors and Policy Implications

이순자, 박형서, 문정호, 장은교

이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공공의 갈등관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식별하고, 각 요인이 갈등관리 결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며, 갈등관리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개념적 모델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로 형성된다. 독립변수는 ‘행정적 요인’, ‘갈등이슈요인’, ‘갈등행위자요인’ 및 ‘환경적 요인’에 각각 포함된 총 24개 변수(영향요인)로 구성되며, 종속변수는 ‘갈등완전해결’, ‘갈등부분해결’ 및 ‘갈등지속’으로 나뉘는데, 이는 합의안 형성여부, 합의안 수용정도, 합의안 순응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된다.

분석에 필요한 공공 갈등관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들로부터 예비요인들을 추출했고, 각각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1차안을 도출하였다. 그다음, 1차안에 포함된 영향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AHP를 실시하여 최종 영향요인들을 선정하였다. 최종 영향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정한 다음, 각각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코딩 지침에 기초해 지역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사례 90건에 대한 심층내용분석과 코딩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Data Set은 다항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통해 영향요인과 갈등관리 결과 간 인과성 분석에 사용되었다.

다항 로짓 분석 결과, 행정적 요인, 갈등이슈 요인, 갈등행위자 요인, 환경적 요인 중 ‘행정적 요인’이 지역개발사업을 둘러싼 공공의 갈등관리 결과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상이나 계획단계에서 주민참여나 정보공개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는지, 갈등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지는 않았는지 등이 갈등관리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갈등관리 차원에서 갈등해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주민참여 수준’으로 참여수준이 높아질수록 갈등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정보공개 수준’과 ‘정부·사업자 신뢰정도’도 수준과 정도가 높아질수록 갈등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갈등당사자의 이전 유사경험’도 갈등해결률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다만 ‘정치·사회적 사건 및 압력 유무’의 경우 갈등해결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변수인 동시에, 교차분석 결과 오히려 갈등을 지속시키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과도한 유치경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심성 개발공약과 포크베럴식(pork barrel) 사업쟁탈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이들 분석결과들로부터 지역개발사업 관련 갈등해결 수준은 개별사업 자체의 문제라는 통념을 벗어나, 갈등당사자이자 사업주체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학술적으로는 갈등관리 영향요인에 대한 종합적 접근으로 갈등연구에 관한 방법론을 확장하였고, 다수 갈등사례 분석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함으로써 갈등 관련 연구 목적 다양화에 기여하였다.



국토 대예측 연구(III)

Futures of National Territory(III)

이용우, 변세일, 박정호, 임지영, 이지원, 박고운

이 연구는 3차 연도에 걸쳐 수행되는 국토 대예측 연구 중 지역의 미래를 예측한 3차 연도 결과물이다. 3차 연도(2011) 국토 대예측 연구의 목적은 ① 지역별로 미래 예측대상을 설정한 후, ② 주거, 산업입지, 교통, 토지 이용 및 지역구조에 대한 지역별 미래예측을 실시하며, ③ 지역별 미래예측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미래상과 정책과제를 제시함에 있다.

수도권의 미래는 기존 주택 스펙 높이기와 외곽에서 신규 주택의 공급, 소득 및 국적에 따른 거주행태 다양화, 국제 업무·금융 중심기능 강화, 첨단 복합형 지식 기반산업 공간의 증가, 출퇴근 교통정체 완화 및 침두교통시간대 변화, 도시농업, 도시 및 수변공간의 관광 활성화, 접경지역 및 남북 연계축 활성화, 수도권외의 초광역화 등으로 예측되었다. 충청권의 미래는 신규 주택공급 증가, 대전-오송-천안지역 중심의 첨단신산업 입지 증가, 접근성 제고로 수도권과 기능 분담 강화, 국제교류기능 강화, 대전-세종-청주대도시권의 기능 강화 등으로 예측되었다. 호남권의 미래는 신규 주택공급 증가, 새만금-전주권, 광주권의 첨단 신산업 집적, 호남평야의 부활과 식품바이오산업의 발달, 지리-덕유산지역의 다기능, 다문화 모자이크화, 서해안 및 남해안의 해양이용 고도화 등으로 예측되었다. 대경권의 미래는 노후 아파트 개보수와 도심 재생 증가, 구미, 대구, 포항, 경주 중심의 첨단신산업 집적, 동해안 활용 고도화, 경북 북부지역의 활성화, 대경권 서남부와 동북부 간 대비 부각 등으로 예측되었다. 동남권의 미래는 대도시 주거지 재생 및 전원주택 증가, 국제적 다지역 거주와 다문화사회 본격화, 동남권 산업벨트의 첨단신산업으로 고도화, 부산의 글로벌 교류기능 강화, 남해안 해양레포츠 활성화, 산업과 관광 중심의 동남권 연안 거대도시권 강화 등으로 예측되었다. 강원권의 미래는 농촌주택 재생과 전원주택 증가, 자원기반형 산업과 바이오메디컬산업의 발

달, 4계절 레포테인먼트 거점, 동서, 남북 간 교류 확대, 사다리꼴 공간구조 형성 등으로 예측되었다. 제주권의 미래는 휴양 및 외국인 주택수요 증가, MICE 산업의 활성화, 아열대화로 관광, 농업, 수산업의 변화, 해양 관광, 자원 및 에너지 개발 활성화, 해안-산지 연계형 공간구조 형성 등으로 예측되었다.

이 연구의 특징은 복수의 미래를 제시하는 방어적 미래 연구라는 점, 메가트렌드 및 한반도 경제통합에 대응하는 국토 미래정책과제를 도출한 점, 국토를 종합적으로 예측한 점 등에 있다. 이 연구의 한계는 미래 국토 변화의 와일드카드인 한반도 경제통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다룬 점이다. 한반도 경제통합이나 통일에 따르는 국토의 미래모습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의 정책적 기여는 체계적이고 유연한 지역의 미래예측을 통해 지역의 미래비전을 지역주민과 지역정책 관련자에게 제시한 점, 지역별 미래예측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 지역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고 과제를 개발한 점, 국토 미래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국토 미래정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점 등에 있다. 국토 미래예측 및 연구와 관련한 정책 건의는 국토 예측을 위해 필요한 추세자료 및 이슈 분석을 위해 국토모니터링의 지속적 추진 필요, 국토 미래에 대한 정기적 예측제도의 도입 필요, 장기적 국토 미래비전의 정기적 수립 필요 등이다. 향후 국토 여건변화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국토발전모형을 정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미래 국토 발전을 전망하며, 바람직한 국토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실천전략 마련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II)

A Study on Global City-Regions in Korea(II)

김동주, 정일호, 서연미, 주미진, 강민규, 이승욱

초국경적인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국가의 역할 못지않게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통 발달과 생활권의 확대 등으로 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한 도시권(city-region)이 실질적인 경제권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이외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지역이 함께 도시권 형태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들 4개 지방 도시권의 2010년 기준 총인구는 1,394만 9천 인으로 전국 인구의 29.6%, 비수도권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대비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6.8%, 제조업 비중은 32.0%, 서비스업 비중은 25.2%로 비수도권의 경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권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특성화된 발전을 바탕으로 활발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광역·기초 등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을 펴오면서, 광역권(1994), 광역도시권(2000)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는 광역 경제권, 초광역 개발권 등 광역적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체제는 지자체들의 참여와 자율적 협력에 의한 공동 발전이 미흡하였으며, 이는 지자체들의 낮은 관심과 중앙 주도의 행정 및 예산체계, 협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미비 등이 그 원인이다.

지금까지의 지역 간 연계·협력의 한계를 보완하여 향후 도시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자율의 도시권 형성과 발전 도모, 지자체 간 연계·협력모형 구축 및 확산, 도시권의 국토 발전 선도 거점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첫째, 지자체 주도과 자율에 의한 도시권 참여 지자체를 구성해야 한다. 도시권 설정은 지자체의 자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는 도시권 구성을 위한 인구, 경제규모 등 최소한 요건과 지원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권 지자체들이 미래지향적 공동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 신성장기반의 클러스터 육성, 광역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형 성장 및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권 육성, 창조적 지역 재생 등의 전략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 간의 역할과 자원 분담, 성과 공유 등을 규정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협력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도시권 협력사업과 정책의 기획, 심의, 조정, 평가 등을 주관하는 상시적인 협의체 및 추진단 방식의 전담기구를 구성하도록 한다. 다섯째, 도시권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광특회계 내에 도시권 재정 설치, 일반회계 중 도시권 발전자원 확보, 도시권 발전기금 설치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 여섯째, 도시권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도시권 발전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거나, 「도시권발전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도시권 발전계획 수립, 연계·협력사업 추진과 지자체 간 협력, 행·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권 정책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도시권 정책 추진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권 육성 관련 규제 완화 및 행·재정 지원, 협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방안을 기반으로 도시권의 발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도시권이 국토 및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 계획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Strategy of Effectiveness of the Large Scale Development and Planning

서태성, 변세일, 안흥기, 장철순, 차미숙

이 연구는 대규모 개발사업 · 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사업 검증제도 도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과개발의 원인과 대응전략을 구상하였다. 해외 과개발 사례와 검증가능 부제로 인한 국내 부작용 사례 등 국내외 사례 검토 후, 개발사업 검증제도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개발사업 · 계획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논리를 마련하고, 검증대상, 항목, 절차,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방법을 강구함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과개발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고찰하였으며, 현행 검증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개발사업 검증제도의 기본구조, 대상사업, 절차, 항목, 결과 종합화방안 등 검증제도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중복된 수립 · 시행으로 인해 국토의 과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00년 이후 국토개발수요의 극적인 변화, 기후변화에의 대응 절실, 초국경적 협력의 중요성 증대 등 국토개발의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시점에 주요 개발사업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재원조달 한계, 사업 차질 현실화 등 국토의 과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저성장 · 수요 감소시대의 도래로 국토개발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 특별법 양산, 사업성 검증소홀,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조정 기능 부족 등 고성장시대 개발관행이 지속되면서 국토는 과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체제의 통합 · 정비를 통한 계획지구의 남발 방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시스템 구축으로 부실한 신규사업 차단 등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사례로는 일본 국토교통성의 공공사업평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투자사업 평가, 영국 지역발전사업 성과평가 등 유사제도를 고찰하였으며, 일본, 두바이, 스페인 등 과개발 사례를 정리하였다. 국내사례는 정부 재정 투입단계, 지구지정 · 개발계획 승인 단계, 지역개발계획 승인 단계 등 개발사업 진행 단계별로 유사제도를 고찰한 후에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검토하였다.

기존 검증제도는 사업성 관련 사전 검증절차 부재, 시행자 자체 검토를 위한 SOP 부재, 총량수요 가이드라인 부재 등으로 인해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대규모 개발사업 · 계획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 기존 검증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검증제도의 기본 구조, 검증대상사업(안), 검증절차 및 검증조직(안), 검증항목(안), 검증결과 활용방안, 전문검증기관 및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방안 등 개발사업 검증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 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발사업 검증제도는 과개발의 원천적 제어,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적 국토 개발 등 기대효과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 계획의 실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토기본법」에 개발사업 검증제도 반영, 표준검증지침 마련, 분야별 국토수용능력을 보여주는 총량지표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

Retirement of Baby Boom Generation and the Strategy for Revitalization of Rural Areas in Korea

김창현, 변필성

이 연구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에 진입한 시점에서,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전원지향 성향이 은퇴 후의 농촌 이주·정착으로 연결되고, 농촌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의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주민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기존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공동체 붕괴 위험이 점증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중 1955년도에 출생한 인구가 2010년도에 만 55세에 달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었다.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 은퇴자의 이도향촌 성향과 농촌 이주·정착 수요를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 은퇴자의 노후생활 안정화와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이주 수요와 정책 수요를 수용하는 “전원휴양·의료복지·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의 조성”이 중요한 실천 전략이 될 수 있다. “전원휴양·의료복지·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의 조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전원주거공간 조성이나 귀농·귀촌 관련 대책, 그리고 건강, 장수, 의료복지 관련 사업이나 정책들을 활용함으로써 대처가 가능하다. 즉, 추가적인 재원 확보나 예산 편성에 대한 부담 없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적 활용성과 현실 적용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전원휴양·의료복지·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의 조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원주거공간 조성, 귀농·귀촌 관련 대책, 건강, 장수, 의료복지 관련 사업이나 정책들이 농촌의 정책공간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중요하다. 이 역시 기존의 제도적 기반을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하면 축소·단절이나 변형 없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냐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과 추진 혹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 그리고 기존의 관련 조직이나 인력을 활용한 전담추진 기구의 구성 등을 통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s)을 활용한 공간선호 구조 분석,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활용가능성 검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선택실험법을 적용함으로써,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공간에 대한 선호 구조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현행 정책과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대안의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규 재원 조달이나 인력 충원, 그리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 대립 등을 최소화하여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산업입지·기반시설 개발잠재력 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Analysis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Potential in the North Korea · China ·
Russia(NK · C · R) Border Region and Counter Strategies for Future NK · C · R
Cross-Border Cooperation

김천규, 이상준, 문정호, 김대중

이 연구는 중국의 동북지구개발구상 발표, 러시아의 극동지구개발 추진, 북한·중국의 신압록강대교 건설, 북한·러시아의 나진-하산철도 개보수 등 동북아의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러 접경지역에 대한 초국경협력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중·러 접경지역에 대한 3국의 본격적인 개발·개방계획을 파악한 후, 이들 지역에 대한 산업입지, 교통인프라 등 기초여건에 대한 개발잠재력을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한 실증분석결과와의 비교분석·평가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초국경협력과제를 도출하고, 동북아와 북한의 향후 정세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목적이다.

북·중·러 접경지역의 공간범위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접경하는 북한의 5개 시·도, 중국동북지구의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4개 시·자치주, 러시아극동지구의 연해주 11개 시·군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3국의 개방 관련 계획, 즉 북한의 황금평·나선경제무역지대개발계획, 중국동북지구의 국가장기계획과 단기집행계획인 성별 12·5계획, 러시아의 「극동발전전략 2013」, 「극동발전전략 2025」를 비교·검토하고 있다.

개발 잠재력 분석부문에서는 분석데이터에 대해 이 용자료 및 구축방법들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밝힌 후, 9개 분석항목(표고, 경사도, 하천과의 거리, 주요도로와의 거리, 철도와의 거리, 항만과의 거리, 시가회구역과의 거리, 기존공업단지와의 거리, 국경선과의 거리)별로 GIS 구축결과를 제시하였다. 항목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개발가능후보지를 도출하고, 도출된 개발가능후보지를 5개의 지역군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역군에 대해 개발가능후보지의 현황과 입지·기반시설 여건에 대해 종합분석한 후 관련개발계획의 개발방향도 함께 정리·제시하였다.

북·중·러 접경지역의 초국경협력부문에서는 초국

경협력에 대한 동향과 그에 대한 외국사례를 살펴보고, 동북아와 북·중·러 접경지역의 정세를 전망한 후에, 북·중·러 접경지역의 초국경협력과제를 부문별, 지역별, 단계별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 압록강유역과 두만강유역의 개발과 관리는 북·중·러 3국과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초국경협력을 통한 생태·환경·사회복지의 개선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공동의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들이 바로 신의주나 나선지역에 접근하기보다는 중국 동북지구의 거점지역에서 충분히 기반을 다진 후 접경 거점도시들의 개발에 참여하는 단계적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단기적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한·중·일정상회담 등 중앙정부차원의 고위급 협력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초국경협력의 확산과 심화차원에서 북·중·러 접경지역의 공동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해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영문보고서

The Revised Four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2011-2020)

박형서, 윤영모, 박경현

이 연구는 2011년 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각종 국제회의 및 공동연구 등에서 우리나라의 국토정책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영문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 제시한 비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이다. 4대 목표로는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품격 있는 매력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를 설정하였다. 장래 국토공간의 형성 방향으로는 초광역 개발권 육성을 통한 개방형 국토 발전 축 형성 및 글로벌 교류·협력기반 강화, 5+2 광역경제권 형성과 광역경제권별 거점도시권 육성 및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자립적 발전 유도 등을 제시하였다. 전략별 추진계획에서는 6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국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별 특화 발전 및 협력 강화’로, 3차원 지역발전전략을 통한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권(City-Region) 육성, 농·산·어촌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거점 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산업 육성, 국토의 문화적 품격 제고 및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연계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인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 공간 조성’에서는 강·산·해를 연계한 국토 품격의 새로운 창출, 인간과 강이 함께하는 친수 국토 공간 조성,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 공간 조성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추진전략인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 환경 조성’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비한 도시 경쟁력 제고, 한국형 녹색 문화도시 창조,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및

주거 수준의 선진화, 국토 가치 제고를 위한 토지 이용 합리화 및 선진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은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녹색교통체계 구축, 국민 생활편의 증대를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글로벌 물류 체계의 구축, 선진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으로,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활동 촉진,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생태계 기반 통합적 해양자원·공간 관리, 다차원 해양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 번째 전략인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구축, 유라시아-태평양 협력 기반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계획의 비전 및 목표, 6대 추진전략을 실제로 집행·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개발 시스템의 개편,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 및 분권화,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 강화를 통한 국토 관리의 통합성 제고, 재원 분담 원칙의 명확화 등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국토 정책방향 및 국토종합계획을 해외에 홍보하고, 개발도상국가와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

Development Issues of the Growth Centers in North Korea for Preparing the Korean Unification(I)

이상준, 김천규, 박세훈, 신혜원

북한의 국토 및 도시 실태와 개발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남북 협력과제 도출을 위해서도 북한 도시의 실태와 개발 잠재력 파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는 북한의 주요 거점도시들 가운데 서해안권의 핵심 거점인 남포와 신의주를 대상으로 미래 북한의 도시 개발잠재력을 분석하고 향후 개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체제 전환국의 사례와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을 통해 북한 남포와 신의주의 미래 도시개발과제를 전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남포와 신의주의 개발 가능성 분석을 위해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를 활용하였다.

체제 전환에 따른 북한 도시의 변화는 다핵화, 고밀화, 다양화 등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도시의 공간구조적 측면에서는 다핵화가, 도시의 공간이용 측면에서는 고밀화와 다양화가 나타날 것이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체제가 변화함에 따라 현재보다 외연적으로 확대되고 내부적으로는 분절화된 도시공간구조가 예상된다. 도시의 공간 이용 측면에서는 현재보다 국지적으로 압축적인 토지이용이 나타나고 현재보다 다양한 토지이용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남포와 신의주의 주거 밀도는 각각 289인/ha, 271인/ha으로 우리 수도권의 신도시 일산의 주거 밀도 530인/ha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 도시 주거지의 개발 시 현재보다 고밀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남포는 항구도시로서의 고유한 발전 잠재력을 기반으로 평양과 함께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 구조 전환의 중심 지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포의 도시공간 구조는 현재 항구 구역을 중심으로 한 단핵형 공간 구조에서 상업 및 업무기능 확대와 주거지 재개발,

외곽 지역의 신개발을 통해 다핵형 도시공간 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신의주는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무역·물류도시, 수출경공업도시, 관광도시로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공간 구조 측면에서는 기존의 북신의주 중심의 단핵형 공간 구조에서 북신의주와 남신의주 등 2개의 중심과 여러 개의 부도심이 형성되는 다핵 공간 구조로 변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남포와 신의주 도시 개발을 포함한 북한의 도시 개발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에 대비해야 한다. 향후 북한 도시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클 것인지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 제공되는 기초정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남북한 간 도시 개발 전문가들의 인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한 상호 간의 이해가 증진된다면, 협력의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II

02

지역연구본부

Regional Research Division

- 건강장수도시 조성의 현황과 과제 26
-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통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연구 27
- 국가산업단지 내 미개발용지 활용 방향 연구 28
- 녹색성장형 건강도시의 경제적 가치 추정 및 활성화방안 연구 29
-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30
-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31
- 수도권 스마트 성장관리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32
-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낙후지역 발전 연구 33
- 트라이앵글 거점도시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34
- KTX를 활용한 국토 재창조 방안 35



건강장수도시 조성의 현황과 과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Key Issues for Creating the Healthy & Longevity City

김태환, 김은정, 김혜승, 양진홍, 김성수, 정원욱

최근 인구 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강조되고 있으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제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추세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의 건강장수도시화를 위한 기초 연구로, 기초 조사와 문헌 연구 등을 통해 건강장수도시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된 내용으로 건강장수도시의 개념 및 조성 필요성, 우리나라 도시의 건강장수 현황, 건강장수도시 조성 관련 국내외 사례 및 건강장수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 등을 제시한다.

건강장수도시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장수와 도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강장수의 관점에서 도시 환경의 개선 필요성은 문제 제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강장수를 위한 국토공간의 발전 전략 차원에서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한 도시 환경의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건강장수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적 대응 부문은 주로 보건·의료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다. 단순히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차원을 넘어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토·도시 계획적 수단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 환경의 개선, 고령화 추세에 대한 대응 등에 부합하는 건강장수도시 만들기 사업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장수를 도시 경영이나 도시 관리의 중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다른 도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제도, 도시재생 및 도시

개발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강장수도시의 조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통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The Regeneration of Old Industrial Complexes through Public-Private Participation

장철순, 서태성, 류승한, 강호제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1960년대 공급되기 시작하여 2011년 6월 말 현재 총 928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지정 면적은 1,344.6km²에 이른다. 이들 산업단지 내에는 총 5만 8,761개 업체가 총 157만 6,968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생산액은 약 844조 3,510억 원, 수출액은 3,431억 달러에 달한다. 한편 이들 산업단지가 생산, 수출,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제조업의 60% 이상으로 매우 높아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의 저성장시대가 도래하고, 산업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감소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기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재생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향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중요해질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생사업 대상단지 선정에 활용할 진단지표를 마련하고, 진단지표를 적용하여 재생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산업단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의 참여를 통한 재생사업의 추진방안으로 지가와 사업성 등에 따라 공공 주도사업, 민간 주도사업, 공공·민간 협동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지가가 높으나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본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지나 사업(사업성이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공공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지가가 낮으나 대규모 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사업성은 떨어지거나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재생사업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 집적지로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기반시설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지자체, 민간 등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 산업단지를 20년 이상 경과한 51개 산업단지로 확대하고, 재생사업 대상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의 노후도 지수를 개발하여 단지별 노후도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산업단지 내 미개발용지 활용 방향 연구

A Study on Undeveloped Land in National Industrial Parks

서연미, 박정호

이 연구는 국가산업단지 내 미개발용지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미개발용지 관리 기준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미개발용지'는 산업단지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토지 중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 녹지 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또는 녹지)로 정의한다. 미개발용지를 보유한 온산국가산업단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반월특수지역(안산신도시),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미개발 용지 실태를 조사하였다.

국가산업단지 내 미개발용지는 산업시설 용지 내부에 위치하거나 산업단지 경계에 주로 분포한다. 산업단지 경계의 미개발용지는 단지 경계 밖의 차단 녹지와 연결되어 산업단지를 인근의 배후도시와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미개발용지는 주로 외형상 구릉이나 야산 형태로 방치되어 있다. 미개발용지를 보유한 국가산업단지들이 주거 지역까지 포함하는 신도시로 개발되는 등 개발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볼 때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개발이 순위를 평탄부를 우선 수용하여 개발하면서 기존의 구릉지와 야산이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게 된 것이 원인이다.

국가산업단지 내 미개발용지는 사유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 4개 국가산업단지의 미개발용지는 사유지의 비율이 60~70%에 달한다. 반면 반월특수지역은 사유지를 포함한 공유지가 75% 정도를 차지한다. 국가산업단지 내 미개발용지의 20% 이상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다. 특히 반월특수지역은 모든 미개발용지가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토지다. 기타 온산국가산업단지는 공원과 녹지로 결정된 면적이 21.2%,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광장, 공원, 녹지로 결정된 면적이 51.6%,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광장, 공원, 녹지로 결정된 면적

이 89.3%, 여수국가산업단지는 녹지로 결정된 면적이 25.7%에 달한다.

국가산업단지 내 미개발용지와 관련된 민원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용도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 지역으로 변경하여 타 용도로 활용하려는 요구이다. 둘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미개발용지의 경우 이를 해제하여 타 용도로 개발하려는 요구가 제기된다. 셋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미개발용지의 조기 집행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넷째, 산업단지 지정 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사례다.

향후 미개발용지 활용을 위해서는 계획 수립을 통한 활용 방안 설정, 재산권 침해 최소화, 활용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업단지 내 채투자 등의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 미개발용지는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집행을 통해 공원·녹지로 활용하거나 용도 변경을 통해 산업시설 용지 또는 주거 및 지원시설 용지 등으로 활용될 것이다. 미개발용지 활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녹지율 등을 고려하여 용도 변경 허용 기준을 설정하며, 개발이익의 공적 환수 방안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형 건강도시의 경제적 가치 추정 및 활성화방안 연구

A Study on Economic Benefit Estimation and Planning Direction of Healthy Cities

김은정, 김영표, 이미영, 강혜경

이 연구는 바람직한 건강도시의 지표와 지수를 발굴하여 우리나라 건강도시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효용을 추정함으로써 건강도시의 구현 노력을 국토발전 전략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고, 보건과 환경, 사회경제 수준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를 설정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도시 지표 간 가중치 산정으로 지수의 파라미터 값을 확정하여 건강도시지수를 도출하였다. 수도권 66개 시·군·구별 건강도시지수의 산정결과, 강남구(1.227), 서초구(1.080), 과천시(0.826)가 최상위 수준을 보였다. 건강도시지수의 시도별 비교결과, 서울이 0.262로 경기(-0.152)와 인천(-0.176)에 비해 월등히 높고, 도시규모별 비교에서는 대도시(0.186), 중소도시(-0.225), 농촌(-0.620) 순으로 나타나 권역별로 격차가 존재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도시사업과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도시특성에 적합한 특화된 정책개발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건강도시 지표와 지수를 활용하여 지역별 수준을 진단하고, 부족한 지표를 보완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바람직한 건강도시 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선정된 건강도시 지표를 포함하여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건강도시화 정책의 사회적비용 절감효과를 추정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SD) 모형을 구상하였다. 시뮬레이션 기간은 2009년~2030년이고, 공간범위는 수도권으로 하되, 단위는 시·군·구로 구분하였다. 2009~2030년 동안 대상지역의 행태분석 결과와 유형별 정책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건강도시화 정책의 파급효과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전거도로 연장, 버스노선 수, 범죄율, 주관적 건

강수준 인지율, 비만율의 조합에 따른 9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대안별 사회적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추세대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 결과, 신체비활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009~2030년 동안 31조 8,685억 원 수준이다. 수도권 주민의 걷기 실천율은 감소하고, 신체비활동률은 증가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도시화 정책대안의 사회적비용 절감효과를 추정한 결과, 대안별로 적게는 362억 원 수준(대안 1: 2020년까지 연간 자전거도로 연장 1% 증가시킨다고 가정)에서 많게는 1조 9,621억 원(대안 9: 2020년까지 연간 자전거도로 연장과 버스노선 수 5% 증가, 범죄율 2% 감소, 주관적 건강수준인지율 0.5% 증가, 비만율 5% 감소시킨다고 가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전거도로 건설이나 버스노선 수 증가와 같은 정책대안은 연료절감, 대기오염 감소 등의 파급효과에 추가로 건강도시화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어차피 국가가 국민복지와 건강을 위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면, 이제는 국민건강증진의 해법으로 건강도시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 연구는 건강도시가 갖는 경제·사회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됨으로 인해 정책당국이 건강도시에 대한 정책을 도입할 때 근거가 되고, 국민실들의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보건학·의학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개인의 건강 문제가 도시 및 지역계획의 주요 이슈들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건강도시화 정책의 사회적비용 절감효과를 실제적으로 추정하는 방법론과 근거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Green Growth of the Capital Region

김태환, 윤영모, 변필성, 김광익, 이동우

이 연구는 경제·사회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녹색성장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유형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을 사례로 하여 녹색성장 추진 실태와 주요 정책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하여 수도권의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수도권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녹색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수도권 녹색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기존 저탄소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환경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폐기물 처리 산업 등이 저탄소 경제의 전환에 따른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산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의 의미를 가진다. 녹색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더불어 보다 직접적으로 녹색기술 유관기업의 집적과 새로운 녹색산업 기업의 창업 촉진, 연계망 형성 등을 위한 입지 기반의 조성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다핵연계형 대도시권 공간 구조 형성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심지 간 기능 분담과 중심지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서울의 부심과 대도시권의 중심도시를 연계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편하고,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기능 분담과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닌 다수의 중심지로 구성된 도시 구조 형성으로 변모하여야 한다. 확대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 전철망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도의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전략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역세권 중심의 업무 거점의 형성 전략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 인프라의 활용과 연계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셋째, 녹색 지역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먼저 에너지 효율 제고 시범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순환 및 절약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저탄소 저에너지 도시 개발이나 단지 조성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수도권 녹색화를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의 경제적 목표로서 고용 촉진이나 주택, 산업 입지의 공급 측면에 그린 인프라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과 건강한 마을 만들기 등의 사회적인 목표에도 관련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현행 수도권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수도권 정책의 기초를 수도권의 저탄소화를 앞당기고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저탄소화를 통해 세계적인 녹색성장 선도 도시권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발전 목표를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에너지 다소비 및 온실가스 다배출 구조를 개선하여 수도권의 저탄소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전략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법령에 의한 권역별 경직적 공업 입지 제한 및 공장총량제에 의한 수도권 공장 증가 등의 관리를 녹색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규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새로 공급되는 대형 건축물에 탄소 저감형 건축 또는 그린빌딩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행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대형 건축물에 대한 규제와 연동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녹색성장 관점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여 탄소 배출 효과를 줄이고 청정 도시개발(clean urban development)이 촉진되도록 개선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녹색성장인프라로서 종합적인 그린인프라 구축전략의 방향과 수단을 수도권광역토지이용의 관점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Strategies to Enhance Social Cohesion for Regional Development
: Developing Workable Indicators

차미숙, 임은선, 김혜승, 윤윤정, 이현주, 강신욱, 전지현, 박수진 외

이 연구는 지역 단위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의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지수화를 통한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공간 범위는 통계 자료 구득 가능성 및 정책적 활용을 고려하여 광역 및 기초 지자체로 설정하고, 충남도 내 16개 시·군 및 서천군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하여 시범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의 구축을 위한 국내 관련 지표 내용 분석, 핵심 지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주관적 데이터 수집을 위한 지역주민 의식 조사, 그리고 공간가중회귀분석,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KOPSS)를 활용한 공간통계분석 등 정성적·정량적인 방법을 병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통합의 실천적 개념을 토대로 하여 지표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표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첫째는 대표성과 종합성, 배타성 원칙이다. 이는 지역의 사회통합 수준을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균형성과 지속성 원칙으로,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 정책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개념 정립 및 지표 체계 구축 목표에 의하여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를 4개 영역에 7개의 세부 측정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 지표를 제안하였다. 지역사회통합지표의 4개 영역은 지역사회 안정, 지역사회 형평,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제도 역량이다. 지역사회안정 영역은 가족 안정과 지역사회 안정으로 세분하고, 지역사회 형평 영역은 형평성(격차)과 포용성(배제)으로 세분하고, 지역사회 참여 영역은 신뢰·협력과 참여로 세분하였다.

한편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와 데이터 기반을 토대로 하여 영역별로 지표 후보군(59개)을 선정하였다. 지표 후보군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역별

로 적합성이 높은 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핵심 지표들은 지표 선정 원칙, 자료 구득 여부, 생산가능성을 감안하여 전문가와 연구진 협의를 거쳐 일부 지표의 추가·수정을 통해 25개를 핵심 지표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시범적 적용을 통해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사회통합지수를 영역별로 진단하여 문제 지역(hot spot)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충남도 내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별 지표의 횡단면 및 시계열 비교를 하였다. 또한 영역별 지수를 토대로 지자체의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하여 문제 영역을 진단함으로써 영역별 정책 대응이나 처방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안정지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추가하거나 강화하도록 하는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통합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통합지표 중 주관적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서천군을 대상으로 주민 의식조사를 시범 실시했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주관적 지표 자료와 지역 특성 지표들을 연계한 공간분석을 통해 지역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기간: 2011. 1. 1~2011. 12. 31

서지사항: 총괄보고서 278면, 국토연 2011-35,

협동연구보고서 280면, 국토연 2011-3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07-01



수도권 스마트 성장관리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Industry Location Study for the SMART Growth of the Capital Region

강호제, 류승한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책은 최근 1~2년간 성장 억제에서 성장 관리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급속하게 각종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성장관리를 위한 원칙으로 언급되는 스마트 성장에 관한 규범적 논의는 고사하고 수도권 난개발을 일으키는 산업입지 활동에 대한 실증적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정책이 과거의 강력한 입지 규제에 바탕을 둔 성장 억제에서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성장관리 전략으로 수정됨에 따라 수도권의 '스마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수도권 산업입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스마트 성장 원칙을 통해 '계획 없이 개발 없다'는 수도권 성장관리 원칙을 재조명하였고 수도권 난개발 실증 분석을 위해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의 개별 입지 자료를 활용해 GIS를 이용한 시공간 집중 분석을 시행하였다.

시공간 집중 분석 결과 수도권 개별 입지 난개발 확산은 성장관리 지역과 과밀 억제 권역에서 각기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현존하는 입지 규제로 인해 개별 입지의 확산보다는 '나홀로 아파트공장'의 개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성장관리 지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북부, 1990년대 초반 경기 서북부, 1990년대 후반 이후 경기 서남부로 이어지는 개별 입지의 나선형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성장관리 지역에서의 개별 입지 나선형 확산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음에도 정부당국이 사전적인 계획 입지 공급 등 계획적인 난개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별 입지를 흡수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산업단지 개발이 개별 입지와 난개발 확산 이전에 사전적으로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정책적 대안으로 규제 완화 이전에 난개발 예상 지역에 사전적인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공장 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계획적 성장관리 원칙을 제시하였다.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낙후지역 발전 연구

Development of Depressed Areas via the Growth of
Local Community-based Social Enterprises

변필성, 윤영모

이 연구에서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 육성의 필요성, 그리고 낙후지역에서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사회적 기업과 지역 발전 간의 연계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고, 사회적 기업의 지역 발전 기여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낙후지역 현황 및 변화 분석, 현행 낙후지역 발전 정책 고찰, 그리고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의 개념 정의를 종합하여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낙후지역에서 나타날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을 예시하고, 해당 기업·사업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가 제시한 낙후지역에서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조직이 낙후지역에서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낙후 지역의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투자를 통해 영리 사업을 전개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활용함으로써 주민, 취약계층 및 그에 준하는 계층의 일자리·소득원 창출, 또는 사회서비스 공급 등 지역 발전과 취약계층 배려를 동시에 주요 목표로 추구한다'는 내용을 요건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해당 요건의 충족 기준을 관계 법령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기준 설정의 일부로 낙후지역의 정의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낙후지역 기초지자체가 정부 설정 예산 신청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내용을 편성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광역·지역발전회계의 포괄 보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포괄 보조사업에 '지역발전 추진과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기업·사업조직 육성'이라는 사업 영역을 신설할 수 있다.

셋째,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 육성의 저변을 확충한다. 먼저 역량 있는 인력의 확보 측면에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귀촌·귀향 도시 은퇴자, 또는 낙후지역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외부 거주 인력(예: 퇴직 전문인력)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수요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에 기부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계약 및 거래를 통해 사업 기회 및 판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사업 조직을 협력업체로 활용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와 유사하게 연계 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게다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국의 CDFI와 CITR을 참고하여 낙후지역 사업 조직에 대한 자금 공급 채널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 육성의 저변 확충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예: 지역자활센터)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트라이앵글 거점도시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Networking the
3 Core Cities in Gangwon Province

임동일, 조정곤, 변필성

이 연구는 중소도시 또는 그 이하의 지역으로만 구성된 강원도 발전을 위한 공간 구조 모델로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트라이앵글 거점도시 연계체계의 구축전략을 구상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 공간 구조에 관한 기초 이론의 검토와 강원도의 현실 및 향후 여건 변화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강원도에 적용 가능한 공간 구조 모델로 거점도시 연계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전략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단기적 전략으로 춘천, 원주, 강릉의 강원도 3대 거점도시 각각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의 국지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3대 거점도시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세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의 기초를 마련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시권 단위의 국지적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장기적 전략으로 추진한다. 먼저 춘천, 원주, 강릉 간의 산업 연계를 통한 경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산업의 배치 및 특화 전략에 기반을 두고 산업 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그리고 강원도와 강원도를 둘러싼 국내의 경제권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거점도시 연계체계의 개방형 네트워크로의 질적 발전을 도모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의 여타 광역경제권과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비롯한 외국의 경제권이 강원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강원도의 독자적인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의 다른 경제권과 연계되는 개방형 네트워크로 강원도의 트라이앵글 거점도시 연계 체계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술한 강원도의 3대 거점도시 간의 경제적 네트워크 활성화, 개방형 네트워크로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간선교통망 및 초광역 교통인프라 등 SOC 확충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 및 의의를 갖는다. 우선 트라이앵글 거점도시 연계체계의 구축에 따른 강원도의 현실적 문제를 파악하고 계획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다음으로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강원도 관련 계획의 한계를 지적하고 계획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게다가 강원도와 같이 대도시가 부재하고 거점도시가 중소도시이며, 도시 간의 연계성도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네트워크의 구축에 근거한 지역발전의 공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계획 및 정책에 일조할 것이다.



KTX를 활용한 국토 재창조 방안

Recreation Strategy of National Territory Using KTX Network

변세일, 이범현, 민범식, 조남건, 이진, 김재영, 황형준, 김철중

이 연구는 2010년 KTX 경부선 2단계 개통에 따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례를 조사하여 대전, 동대구, 부산, 오송, 경주, 김천, 울산 등 지방 정차도시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KTX 정차도시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나아가 정차도시와 주변 도시, 정차도시 간 기능분담과 효율적 연계를 통한 수도권 일극 집중을 넘어선 다핵연계형 신국토공간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KTX 네트워크 및 KTX 주요 역의 현황과 전망, KTX 개통으로 인한 도시 및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둘째, 일본의 신칸센, 프랑스의 TGV, 독일의 ICE와 같은 해외 고속철도역세권 개발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 사례 연구, KTX 이용객에 대한 설문조사, 탐색적 공간자료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KTX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토의 재창조전략을 제안하였다.

KTX의 개통으로 KTX 정차도시의 전국적 접근성이 제고되면 도시의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활동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역세권의 매력도가 1차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는 점차 정차도시 전체 및 주변도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KTX의 개통은 지역특화자원의 연계를 통해 역세권, 정차도시 전체, 주변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외국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례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KTX 역세권 개발 시 KTX 개통 효과와 지역특화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역세권은 정차도시의 인구와 산업 규모, 기존 도시기능, 도심의 부족 기능, 광역적 차원의 개발 니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강화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KTX 정차도시의 발전과 국토공간구조의 재창조를 위해서는 지역특화자원의 연계, 지역특화산업에 기초한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굴, 적절한 규모의 역세권 개발 및 기존 도시와의 기능분담, 정책적 지원 및 관련 기관 간의 역할분담 등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1차적으로는 문헌조사, 현지조사, 설문조사, 계량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국내 KTX 역세권의 특성화 발전방향과 다핵연계형 국토공간구조 창출 전략을 제시하여 향후 KTX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차적으로는 그간 자세히 소개되지 못하였던 외국의 고속철도 개통이 가져온 효과와 주요 역세권 개발사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소개함으로써 유사연구 수행 시 풍부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는 점도 기대효과라 할 수 있다.

Chapter II

03

도시연구본부

Urban Research Division

- 공간유형 계량화 기법을 활용한 미국 도시계획 사례 연구
: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결을 중심으로 38
- 도시 스마트성장 평가방식을 활용한 친수공간 계획체계의
합리적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 39
-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40
-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방식의
개선방안 연구 41
- 서민지향적 융합형 도시재생방안 42
-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43
- 창조계층 입지패턴 분석 연구 44
- 한국형 국토공간 디자인 연구 45
- G20 시대의 국토품격 향상 전략 연구 46
- Making TDR Work: The Case of the Seattle Metropolitan Area 47



공간유형 계량화 기법을 활용한 미국 도시계획 사례 연구 :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결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Long Range Transportation Planning and
Land Use Planning Applying the Urban Place Types in U. S. A.

김도형, 최성연, 박재길

이 연구는 미국의 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사례를 통해서 실제 도시계획 과정에서 공간유형의 개념과 공간유형 계량화 기법의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간유형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간유형을 분류하는 방법론과 공간유형의 실증적 분석법에 대한 이론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개념적인 공간유형을 계량화하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현재 미국의 도시계획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유형 계량화 기법을 활용한 장기 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실제 도시계획 과정에서 공간유형 개념의 유용성을 밝히고자 한다.

공간유형 계량화 기법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우선 단순한 공간유형 계량화 방식으로, 특정 공간유형의 지형적 범위를 정의하고 토지이용 지도와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그 공간 내의 토지이용 면적과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다 근본적인 도시 디자인의 기법을 응용하여 공간유형의 분해와 재조합의 기법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한 공간유형 계량화 소프트웨어는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I-PLACE3S는 도시 및 지역의 비저닝 시나리오 계획을 위한 소프트웨어 툴로, 다양한 토지 이용 시나리오의 교통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GIS 응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계량적·시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SCAG가 개발한 Sustainability Tool(ST)은 기존의 비저닝 소프트웨어 툴에 온실효과 가스의 방출 및 교통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는 모듈을 추가한 GIS 기반 소프트웨어다. 셋째, Rapid Fire는 MicroSoft사의 Excel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구축된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CorPlan은 GIS를 기반으로 전형적인 공간유형을 창조하여, 배치된 공간유형의 인구 및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도시계획 현장에서 공간유형의 계량화 기법을 활용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캘리포니아주의 산디마스시에서는 미래 토지이용 전략 수립을 위해 SCAG의 ST를 활용하여 토지이용 시나리오를 모색하고 시나리오별 교통·환경에 대한 영향을 활용하여 대안의 장단점을 보여줌으로써 시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한편 North Florida Transportation Planning Organization(NFTPO)은 2035년 장기 교통계획을 개발하면서 토지이용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공간유형 계량화 방법을 활용한 토지이용 시나리오 기법의 장점으로는 대안의 다양성, 계획 과정에서의 대안 수정 용이성, 주민 참여 촉진, 주민 의견 반영의 용이성, 정보 공유의 촉진, 미래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시각화, 그리고 관련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도시 스마트성장 평가방식을 활용한 친수공간 계획체계의 합리적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

Developing a Waterfront Quality Scorecard for Waterfront Community Projects in Korea

이범현, 김근태

이 연구는 친수공간 관련 제도, 정책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평가를 위해 스마트 성장 정책 평가 기법 중 점수제(Scorecard) 방식을 활용하여 친수공간 평가 점수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제시된 점수제 방식의 친수공간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현재의 친수공간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예시적으로 분석하여 그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친수공간 평가 체계의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로 국내 하천 및 친수공간 관련 제도 및 지자체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 기본 계획의 내용과 계획에 따른 평가 규정의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2010년에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친수공간 정책으로는 지자체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친수공간 정책으로 서울시 친수공간 관련 정책을 조사, 검토하였다.

스마트성장 정책 평가 시스템 및 친수공간 평가 시스템은 미국에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성장 프로젝트 점수표를 활용한 정책 평가는 관련 정책 또는 계획 이슈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그 보기를 제시한 뒤 보기에 따른 점수를 표시하고, 이를 합해 총점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빠르고 간편한 방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 정책 및 제도 분석, 국외 평가 시스템 사례를 바탕으로 친수공간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항목을 설정하였다. 기본 항목은 크게 친수공간 가로 계획을 통한 접근성 및 연결성 강화, 압축·복합용도 개발에 따른 토지 이용 및 건축 계획의 다양성, 자연환경 및 옥외공간의 보존, 친환경 기반시설을 통한 친수공간의 안전성, 친수공간 내 산업 및 경제 구조의 다양성으로 구분하였다. 제시된 친수공간 정책 평가체계는 서울시 친수공간 관련 계획의 내용을 대상으로 예시적으로 분석하

여 그 결과를 도출해보았다.

스마트성장 점수표를 활용한 보다 유효하고 효과적인 친수공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친수공간 정책 및 제도적 맥락에 기인한 문항 리스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수공간 평가 체계의 결과를 정책 및 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가 체계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Cultural Cluster Strategy as a Tool for Urban Revitalization

박세훈, 김은란, 박경현, 정소양

최근 문화경제의 부상에 따라 많은 도시가 문화 중심형 도시 전략(Culture-led urban development)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예술가들을 통하여 지역이 활성화된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책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도시재생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예술가의 창작 공동체인 문화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그것의 활성화 메커니즘을 밝히고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문화클러스터란 “서로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문화예술의 생산 및 관련 기능의 지리적 집합체”다. 먼저 이론적 고찰과 문화클러스터의 유형별 현황 분석을 통해 문화클러스터의 핵심적 자산이 ‘예술가들의 사회 네트워크’이며, 그 네트워크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례 지역인 부산의 또따또가, 광주의 대인시장을 대상으로 예술가들의 사회 네트워크 형성 정도, 그 성격과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한편 해외의 선진 사례인 런던의 이스트엔드(East End)와 일본의 가나자와 및 요코하마 문화클러스터를 조사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으로 조성된 문화클러스터라 할지라도 예술가의 사회 네트워크가 빠른 시기에 구축되고 그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사례는 모두 예술가들의 사회 네트워크가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예술가들의 공동체 형성이 곧 지역사회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두 사례를 통해 살펴본 듯이 대인시장의 경우 예술가의 공동체성이 또따또가에 비하여 강했지만, 지역사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가 네트워크가 그 자체로 지역

사회 파급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그 밖에 다양한 공간적·제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함을 의미한다.

셋째, 예술가들의 참여와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활동에 가치를 두는 예술가를 중심으로 유치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작품의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문화클러스터 파급 효과 확산을 위해서는 공간 전략이 중요하다. 어떠한 장소에 입지시키고 내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문화클러스터의 성과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참여형 거점 공간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예술가의 창작공동체인 문화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그것의 활성화 메커니즘을 밝히고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국내 문화지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었지만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서 예술가 네트워크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조명받게 된 것은 이 연구의 주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방식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Development Control Considering the Changes of Urban Policy Paradigm

김상조, 김성수, 김동근, 오선영

우리나라는 1934년 일제강점하에서 용도지역제를 받아들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토지이용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이 제도는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피폐한 국토를 되살리고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는 잘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최근 인구감소, 세계화, 기후변화 등 여건 변화와 더불어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도 맞물려 잘 작동될 수 있을가에 대한 우려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즈음에 우리나라 용도지역제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와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인지를 밝히고 향후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조명해보았다.

세계적으로 토지이용규제방식에는 재량방식(계획 허가제)과 규제방식(용도 지역제), 자유방임방식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 방식들은 계획 체계, 규정 체계, 심의·허가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구성체계의 역학관계에 따라 방식의 특징이 결정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재량방식은 계획 체계나 규정 체계보다 심의·허가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고, 규제방식은 규정 체계가 우월하게 발달한 경우(규정에 의한 규제 방식)와 계획 체계가 우월하게 발달한 경우(계획에 의한 규제 방식)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실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특이하게도 이 세 가지의 체계가 골고루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실상은 세 가지 체계 중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인구 감소, 세계화·지방화, 소득 증대, 기후 변화 등에 따라 규정 체계의 역할은 더 축소되고, 계획 체계가 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은 계획 체계에 의한 용도지역제, 즉 규제방식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규정 체계가 약화되는 현실에서

심의·허가 체계를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특별설계구역과 같은 계획 수법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심의·허가체계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서민지향적 융합형 도시재생방안

Study on Comprehensive Urban Regeneration Strategy for Low and Middle Income Groups

이양건, 민범식, 강미나, 박정은

이 연구에서는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기 편한 인간 존중의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계층별 인력 활용 방식, 재원 조달 방안, 서민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사업내역을 연결시켜 통합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민들이 '뉴 코리아 드림'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경우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융·복합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가장 먼저 서민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민'의 개념을 '일자리, 금융, 보육, 교육, 안전, 건강, 주거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기회를 향유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공공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생활인'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정책 부문을 금융, 주택, 교통, 안전, 일자리, 교육, 건강 등 7대 부문으로 한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서민지향 융합형 요소를 반영하여 세 가지 정책 매트릭스를 정립하였다. 첫 번째는 계층별 맞춤형 보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매트릭스다. 두 번째는 정책 부문 간 융합 가능성 분석을 통해 정책 간 융복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매트릭스다. 마지막은 정책 대상과 정책 부문의 융복합을 위해 서민 밀집 지구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자원의 공간적 집중화를 시도하기 위해 작성된 매트릭스다. 이러한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어떠한 정책 분야, 정책 대상 간 융합이 가장 바람직하며 효과적인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서민에 대한 개념 정립, 서민을 위한 정책 분야별 추진 현황 검토, 그리고 매트릭스 정립을 통한 서민지향 융

합형 정책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추진전략과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민 지원과 관련된 정부 정책 운영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집행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과 제도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도시재생 과정에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서민 계층이 앞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방안 검토, 둘째, 해당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셋째, 첨단 IT 기술을 적극 활용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중요 과제의 설정, 둘째, 종합지원기구의 운영, 셋째, 종합계획 작성과 사업 우선순위 선정, 넷째, 지속가능 추진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제도화 방안으로는 협력체계 구축, 통합적 재정 운용, 종합적인 발전 계획 수립 및 운영, 활용 인력 및 전문가 양성 방안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Urban Regeneration Strategy for the Application of Regional Assets

이왕건, 박태선, 박정은, 류태희, 이유리

이 연구의 목적은 전면 철거형 재개발사업의 대안적 방식의 하나로 해당 사업 지역이 가진 다양한 고유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재생형 접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자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약 요건을 극복해야 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구체적인 실태 조사, 조사 대상 범위의 설정, 우선순위 선정 방식 등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역자산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자산 목록(inventory)의 작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우선순위의 선정 및 분류, 지역자산 분포도 작성 등이 추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지역마다 자산을 보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내발적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시도해보는 방법이 특히 중소도시나 쇠퇴 지역에서 현행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자산을 발굴하고 형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함으로써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적 맥락과 장소성, 지역 공동체를 존중하는 가운데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환경의 어메니티 구현 등과 같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유발하고, 장소 마케팅 전략과 결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자산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지역자산’, ‘도시재생자산’이라는 용어를 포함

시켰으며, 도시재생 자산을 발굴하고 우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설정과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자산을 장소 중심으로 연계하여 통합·조정·시행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향후 동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이에 의거하여 ‘도시재생기본방침’,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수립 지침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다양화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창조계층 입지패턴 분석 연구

Location Patterns of the Creative Class

김은란, 정소양

이 연구에서는 창조계층(인적자본)을 지역 경쟁력 확보의 중요 수단으로 보고, 이들의 유형별 공간적 분포와 입지패턴을 살펴봄으로써 지역 입지특성에 적합한 창조계층 육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의 창조계층에 대한 정의 및 분류와 접목시켜 창조계층을 “도시 및 지역 내부에서 지역의 문화적·경제적 활력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기능(즉 지식 및 정보, 창의성을 전달, 제작, 창조, 관리)을 수행하는 인재”로 재정의하였다.

이 연구는 2010년 지역별 고용 조사를 분석의 주 자료로 활용하였다. 먼저 149개 직종(소분류) 중에서 창조계층에 해당하는 38개 직종을 뽑아내고, 이를 다시 예술창조 유형, 핵심창조 유형, 그리고 일반창조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거주지와 사업체 소재지 기준으로 나누어 유형별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서울시, 대전시, 그리고 경기도에 이들의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었다. 유형별로 보면 예술창조계층의 경우 작가, 연극, 영화, 영상 전문가, 디자이너 등의 직종은 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80%가 넘게 집중되어 있었고, 큐레이터, 사서, 화가, 사진가 등은 수도권 집중률이 50~6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핵심 창조계층의 경우 수도권 집중률이 94%에 달하는 기업 고위 임원 직종을 제외하면 연구, 교육 관리자,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등은 수도권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50~70%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 규모를 고려한 시군별 창조계층의 공간 분포와 입지패턴을 살펴보았다. 인구규모별로 크게 대도시(50만 이상), 중대도시(30만~50만), 중도시(10만~30만), 중소도시(5만~10만), 소도시(5만 이하)의 5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주로 창조계층의 거주지와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어 인적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집중 현상은 예술창조 유형의 경우 더 강하게 나

타하는데, 이는 창조계층이 종사하는 산업만이 아닌 주변 관련 산업과의 종합적인 연계와 클러스터효과가 예술 관련 분야에서 더욱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창조계층의 집적과 도시 임금 수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거주지 혹은 근무지의 전체 창조계층 비중 및 일반 창조계층의 비중이 높은 도시가 평균 임금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핵심 부문과 예술 부문의 집적이 거주지 및 근무지의 평균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창조계층의 공간적 입지패턴을 163개 시군자료와 직업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시계열 자료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통계자료가 구축된다면 창조계층의 집적이 지역경제 및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어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전략 산업 육성 등에 대해 더욱 깊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국토공간 디자인 연구

A Study on Spatial Design Direction for Korean Territory

박재길, 김선희, 이용우, 양진홍, 차주영, 김은란, 박근현

이 연구는 국토·지역·공간의 국토공간 디자인에 담을 가치와 이를 포함하는 비전 계획의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과거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국토 변화와 압축 성장기에 만들어진 공간 구조의 과제를 살펴보고 국토공간 디자인의 의의를 논의하였다. 국토공간 구조가 미래의 녹색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 되려면 사회가 공감하여 추진하는 국토공간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는 분야별 접근으로는 성취하기 힘들며 통합적 접근 방식의 비전과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람 중심의 실제적 국토 개념을 새롭게 보완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영토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국토 개념을 보완하여 향토 개념으로 인식을 넓히고 장소를 중심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고밀도 국토공간의 아이덴티티와 우리나라의 전통적 국토관, 그리고 문화경관 측면의 국토를 국토공간 디자인에 포함하여 논의할 주요 가치로 전제하고 실태 논의와 이론적 논거를 밝혔다. 먼저 고밀도 공간의 아이덴티티에서는 압축 경제 성장기에 만들어진 한국의 고밀도 공간은 서구가 지향하는 압축도시의 장점인 에너지 소비 감소 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교통 혼잡 심화, 활동 간의 마찰, 재개발 시 고비용 발생 등도 있을 수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전통적 국토관에 대해서는 산과 물을 국토 형성의 기본 구조로 두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경관 측면의 국토에서는 압축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국토 경관이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것을 새롭게 반성하고, 이제 지역마다의 전통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전통을 재창조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국토공간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비전을 매개로 사회를 통합하는 강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비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전략 계획과 실행 계획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비전을 뒷받침하는 전

략 계획은 또한 과거의 청사진적 계획 스타일이 아니라 행동 중심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고밀도 공간의 특성을 활성화하는 일과 관련하여 국토 디자인의 여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국토 디자인 방향에 대해서는 문화 다양성 확보, 지역 특성 강화 및 경쟁력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디자인 대상을 각각 역사문화영역, 생활문화영역, 예술문화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토 디자인을 추진하면서 사람 중심과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키워드로 한국 유산과 지역 유산을 지정하고 관리하여 정책의 주요 과제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G20 시대의 국토품격 향상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Quality Enhancement of Korean National Territory for the G20 Era

박재길, 양진홍, 김은란, 차주영, 박근현, 김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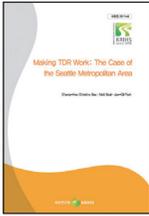
이 연구는 국토품격의 개념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품격과 장소 체험의 실태를 조사·분석한 뒤,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근대화 이후 우리나라의 국토 여건 변화와 국가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 과정은 성장 중심의 가치와 근대적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기능적 관점에서 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공간을 확충하는 것이었으나 최근 일상생활과 건강 및 여가 활동의 장으로 자연과 국토의 문화·역사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 사례 검토 결과, 오늘날 네덜란드의 국토 및 도시 공간의 질은 장소 만들기를 위한 협업 디자인과 실천적 행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토지이용관리제도, 프레임워크로 운영하는 전략계획을 통해 확보되고 있다.

국토품격은 생활국토로서의 국토가 바른 틀 속에 있는 것이며, 향토 또는 생활국토에 내재한 최고의 특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토품격 향상'은 장소로서 국토에 내재하는 최고의 특질을 높여나가는 일이며 동시에 사람들이 장소의 특질을 스스로와 조화로운 관계로 지각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확충해가는 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토품격 형성 요소를 자연 요소, 인공물 요소, 생활 요소, 역사·문화 요소의 네 가지로 설정하고, 장소를 체험하는 실태 분석을 위한 장소 체험의 유형은 크게 행태적 체험, 공감적 체험, 실존적 체험의 세 가지로 나누어 국토품격 및 체험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20개 사례 지역을 선정하고 주민과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토품격 및 체험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국토 개발 과정을 공간 계획 제도와 건설 과정으로 나누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품격 향상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토정책의 비전(안)으로 '품격 있는 생활국토의 구

현'을 제시하였다. 향토 개념의 국토 비전을 지향하는 정책의 범주는 '향토 고유성의 계승·발전', '사회 교육 및 참여 활성화', '생활국토형성 체제 구축'으로 설정하고, 세 가지 정책 범주를 전제로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 목표와 세부 실행 과제를 선정하였다.



Making TDR Work: The Case of the Seattle Metropolitan Area

미국 TDR 제도와 운용 실태: 시애틀 대도시권 사례를 중심으로

크리스틴 배, 매트 빌, 박재길

이 보고서는 먼저 미국 TDR 제도의 역사, 기본 골격, 이론, 수요, 시장,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의하고, 미국 시애틀 대도시권의 TDR 활용에 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농경지와 임야지역에서의 TDR 활용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서 시애틀 킹스카운티에 있는 슈가로프 산(Sugarloaf Mountain)과 톨게이트 농장(Tollgate Farm) 및 올림픽 조각공원(Olympic Sculpture Park)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푸젯만 지역에서 TDR을 활용한 접근방식이 성공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TDR 정책의 목적은 개발을 막는 것보다 그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개발 주체가 지자체 대신 토지 보존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개발권 이전에 대한 아이디어는 1961년 뉴욕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다른 시 지자체에서도 1970년대에 걸쳐 낮은 비용에 따른 성장 압력으로 소중한 지역자산이 보존되기 어려운 점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TDR은 토지 소유주와 개발 주체 간의 자발적 교환을 유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옥외 공간, 역사 랜드 마크, 자원 토지를 보존하기 위한 가장 이상에 가까운 수단을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TDR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보다 협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때 TDR 은행은 이러한 협력적 관계, 특히 TDR 시장을 새로이 조성하고 촉진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송출 지역 내 토지 소유주들은 TDR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분명한 것은 이들 토지 소유주들은 옥외 공간, 농지 및 임야대지 또는 랜드 마크 부지를 보호하는 것이 공공에게도 이득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TDR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계획적 노력과 더불어, 개발자들은 TDR 시장 내 수요자적 측면에서의 주요 주체임으로 이들이 견지하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킹카운티는 또한 TDR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주택 가격 및 도시성장지역, 도시계획가들이 이러한 이슈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Chapter II
04

**국토환경 ·
수자원연구본부**

Environment & Water Resource
Research Division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 활용방안 50
-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방안 연구: 국토의 가뭄 취약성 및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51
- 녹색국토 구축을 위한 강(江) · 산(山) · 해(海) 통합관리 추진방안 연구 52
- 녹색성장 · 광역 · 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I) 53
- 이상기후에 대비한 하천의 체계적 관리방안 54
-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II) 55
-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56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 활용방안

The Way to Apply Saemaul Undong into ODA Projects

소진광, 김선희

이 연구의 목적은 새마을운동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공적개발원조 패러다임의 변화, 21세기 지역사회발전 패러다임과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의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성공 요인과 실패요인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 40여 년이 지난 새마을운동이 21세기 다른 나라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가 지향하는 인류 공동의 목표와 공적개발원조 패러다임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지역사회 발전 패러다임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해외 새마을운동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새마을운동의 비교 우위는 주민 스스로 가난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를 재건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는 사람 존중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즉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 추진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남의 약점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비난받아야 하는 것처럼 자국의 직·간접 이익과 연계하려는 공적개발원조는 경계되어야 한다.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그리했듯이 자조적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유효한 상향적 지역사회 발전 실천 방식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구적 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는 홍보여서는 곤란하다.

셋째, 새마을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는 단편적이고 일방적

수혜에 초점을 둔 단위 사업 위주로 접근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 시·공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새마을운동은 건전한 정신을 통해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력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동의 자산을 형성함으로써 확보된다. 결국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추진은 건전한 마음과 역량을 통해 가능하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강조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방안 연구: 국토의 가뭄 취약성 및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Research for Water Management Policy Preparing with Climate Change
: Focus on Drought Vulnerability and Policy Plan of Territory

심우배, 김걸, 한우석, 구형수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은 용수 수요 증대 및 증발산량 증가로 연강수량 변동을 초래하고, 극단적인 호우, 소우 발생,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염수 유입 등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강수량 및 유출량의 계절적 패턴 변화가 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물 부족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 면적에 비해 기온, 강수량 등 기후 노출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크다. 그리고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4대강에 취수원이 없는 지역 등에서는 가뭄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즉 지역별로 기후변화 영향과 가뭄 대응 능력이 다르므로 가뭄 취약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가뭄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국토의 효율적인 가뭄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의 가뭄 취약성 평가 방법을 정립하고,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대한 가뭄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국내 가뭄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외국 사례의 시사점,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취약성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대비 효율적인 가뭄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의 가뭄 취약성 평가 체계를 정립하였다. IPCC의 평가 체계를 따르면서 평가 방법의 구조적 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지표를 국토의 물리적 특성과 가뭄 간의 영향,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AHP기법을 활용한 가중치 부여, 취약성 평가, 평가 결과의 검증을 통해 일련의 평가 방법을 체계화하였으며, 선행 연구 결과와의 부합성과 일부 차이점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도모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출한 네 가지 정책 방안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가뭄 취약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가뭄 대응 계획 수립 시 가뭄 취약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맞춤형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도시 계획 및 개발 등 공간 계획을 활용한 도시 차원의 통합적 가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간계획의 계획 영역별 계획 요소를 제시하여 관련 도시계획 지침 등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자원 이용량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립하여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유역종합수자원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과 지자체 단위의 정책 간 간극을 메우고, 하천 상·하류 협력을 통해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녹색국토 구축을 위한 강(江)·산(山)·해(海) 통합관리 추진방안 연구

Study on the Integrated Nature Management System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최영국, 박정은, 정소양, 김재철, 김명수, 정석희

‘강·산·해 통합관리’는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기 위해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고려하는 것에 바탕을 둔다. 이 연구는 이러한 토대하에 국토이용과 개발에서 생태계를 고려하고 관리 주체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강·산·해 통합관리의 개념을 제시하고 당위성을 정립하는 것이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강·산·해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념적 차원에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강과 산과 바다가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로서 국토 전체다. 그러나 추진방안의 대상으로서의 실천적 차원의 공간적 범위는 주로 하천, 산림 및 연안과 그것과 생태적으로 연계된 공간에 한정한다.

강·산·해 통합관리의 원활한 실행과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관리대상지의 영역과 문제의 공유(sharing)다. 특정시각에서 관리대상지역의 문제점을 아무리 정확하고 완전하게 파악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관점과 대상 공간만을 조망한다면 불완전하고 위험한 분석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cooperation)’이다. 자연이용에 관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목적과 수단이 하나의 문제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불완전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는 가치 상충과 이해 정도의 ‘조정(coordination)’이다. 관리 당사자들이 스스로 상호보완적이라는 관점에서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정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추진방향을 토대로 강·산·해 통합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유역에 기반한 통합관리 추진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관리 추진틀을 기본으로 하여 통합관리를 위한 6가지의 추진과제가 도출될

수 있다. 첫째, 통합관리를 위한 기초정보 구축 및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통합관리 기반으로 생태축을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계획수립 과정에서 통합관리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평가 제도를 통한 통합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다섯째, 통합관리를 위한 협력적 관리체계 여건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금까지 논의된 추진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강·산·해 통합관리 추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통합관리의 영역을 넓혔으며, 명목상 그리고 개념적으로 머물렀던 개발과 보전의 조화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경관생태학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보다 쉽고 보다 풍부한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국토이용 및 개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I)

Advanced Water Resource Management of Green Growth·Area Wide-Integration Period(I)

김종원, 김창현, 최지용, 권형준, 유승훈, 최동진, 김영민

이 연구는 영세한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공급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상·하수도 부문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으로 상·하수도 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는 '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하수도 부문의 광역 및 통합화가 잘 진척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상·하수도가 안고 있는 요금 현실화, 지역 격차, 재정 적자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개별 지자체의 비용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료포락분석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 간에도 효율성의 크기에서 많은 차이를 보임을 알았다. 다음으로 상·하수도 부문의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월대수비용함수를 활용한 규모의 경제성을 사례 대상 지역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상·하수도 부문의 광역 및 통합화 당위성을 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모든 인구 규모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구 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가 더 커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상·하수도 담당 공무원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통합 및 광역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 및 통합화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지만,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합리적인 통합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상·하수도 부문의 문제가 무엇인가에서 출발하여 통계 분석, 계량 분석, 설문조사 등등 각각의 의문을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분석한 다양한 통계 분석의 결과들은 향후 상·하수도 부문의 광역 및 통합화의 추진에서 다양한 이론적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둘째, 그동안 몇몇 전문가에 의해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상·하수도 분야의 비용 효율성, 규모의 경제성 분석을 이 연구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례 대상지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셋째, 외국의 민영화 또는 광역·통합화의 추진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화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하수도 분야를 중앙정부가 감시·감독하면서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효율적인 산업으로 개편되도록 하는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이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향후 상·하수도 부문의 광역 및 통합화 추진 시에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상·하수도 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환경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통합화의 유형을 사례 대상지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형태의 통합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통합화 추진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섯째, 학술적인 측면에서 규모 경제성과 비용 효율성 관점에서 용수의 개발·공급과 하수의 처리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객관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유관 연구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 상수도 부문에서 규모별 경제성의 크기를 인구 규모별로 연구한 것은 처음으로, 상수도 부문의 규모의 경제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11. 1. 1~2011. 12. 31

서지사항: 245면, 국토연 2011-31



이상기후에 대비한 하천의 체계적 관리방안

The Systematic Plan of River Preparing for Climate Change

김중원, 김창현, 심우배, 한우석

점점 변화해가는 기후에 대응하여 하천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연구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하천의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하천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특히 지금의 하천 관리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수량, 수질,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상하류 간의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하천관리 문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해외의 하천관리를 위한 조직, 제도 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를 기초로 하천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핵심과제, 과제별 추진방안을 다루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천 관리 체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하천, 수자원, 그리고 하천연안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하천연안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통합적 실천에 대한 개념과 실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틀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역별 하천협의회, 상·하류 간의 협력 체계 구축, 하천연안의 마스터플랜 수립, 하천연안 개발에 필요한 관련 법과 발전계획의 집행을 제시하였다.

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하천의 다목적 정비 사업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해 주체 간의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원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 지역의 정비 사업을 통하여 향후 창출되는 세수의 증가를 담보로 한 세입담보금융, 각종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추진 과제를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고 추진해나간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인 하천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상·하류 간의 갈등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II)

The Action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of Korea(II)

김선희, 이원섭, 김현식, 권영섭, 김은정, 백경진

이 연구는 우리 국토가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토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2010년부터 2개년 연구사업으로 추진되었다. 1차연도(2010년) 연구는 강, 산, 섬, 길, 마을 등 국토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국토발전전략을 제시하였고, 2차연도(2011년) 연구는 연성국토, 국토구조, 토지이용·도시·주택, 산업, 녹색국토, 문화국토, 국토 거버넌스의 7개 부분의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도출을 위해 지리전략(Geostrategy) 이론, 국토자본(Territorial Capital) 이론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통적 국토인식론, 국토경연론 등의 과거 전통적 이론을 검토하여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의 원형을 찾고자 하였으며, 근대화 60여 년 동안 발전되어온 국토계획 등의 국토발전 전략 등을 정리하여 20세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평가와 실천전략 수립을 위한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해외 국가들의 국토강점과 특징을 활용한 국토발전 동향을 분석하였고 지리·물리적, 자연·환경적, 인문·사회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국토강점 50개를 발굴하였다.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50개의 국토강점들의 현재 활용도 및 미래 잠재가치를 평가하고, 교차분석을 통해 국토강점 활용 측면에서 유형화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새로운 전략과 연계하였다.

새로운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은 기존의 국토발전 전략에서 축적된 강점을 유지·강화하면서 국토의 강점을 접목하여 도출하고자 국토 강점 유형화, 활용도 및 잠재가치, 국토 강점 요소와 국토자본 요소의 연관성 비교를 통해 7가지로 도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글로벌 연성국토 개척 전략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10대 연성대국(Soft Power)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다층적 연성국토 개척, 경제영토와 문화영토의 융합,

국토 강점의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의 통합, 주제별 전략과 공간 전략의 병행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② 네트워킹형 국토구조 형성 전략은 지방 대도시권, 주요 지방도시권, 소도시권으로 분류하여 각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도시·농촌의 내재적 연관성을 재구축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③ 고품격 토지이용·도시·주택 전략은 도시용지의 입지성과 농지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토지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 재구축을 모색하였고, ④ 산업입지 전략은 산업단지 신규구성 및 재생의 단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특화하는 동시에 네트워킹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⑤ 강산해를 활용한 녹색국토 전략은 건강·장수·여가·문화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국토의 특징이 되는 강, 산, 섬을 활용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⑥ 창조적 문화국토 전략은 문화르네상스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토강점 활용뿐 아니라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창출, 국민적 공감대 및 거버넌스 형성을 제시하였다. ⑦ 국토 거버넌스 구축 전략은 사회적 자본의 가치 증대에 따라 수평적 국토자본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의 새마을 2.0구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전략은 국토의 고유한 장점과 특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형 전략이 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심층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Directions and Future Tasks of Urban and National Territorial Policies in Preparation for the Age of Centenarians

최영국, 김은정, 김혜승, 김준기, 박정은

고령자가 보편화되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위 웰빙 고령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無病長壽)’에 있으며 이것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즉 건강의 개념이 ‘질병 없음’의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의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국토 및 도시 정책을 100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정립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은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도시 및 지역정주, 주거 및 교통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국토 및 도시부문 가운데 도시 및 지역정주, 주거, 교통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장수하는 것이 100세 시대의 궁극적 목적이 되겠지만 연구의 주요 대상은 미래 사회 구성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고령 세대에 맞추고 있다.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100세 시대 관련 국내외 정책을 검토하고 개념을 정립하며 100세 시대에 대비한 정책 추진 여건 및 제약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100세 시대 관련 정책 추진 실태를 3개 지자체를 사례 지역으로 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가장 먼저 100세 시대의 국토 및 도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 방향을 정립하였다. 100세 시

대의 국토 및 도시정책 목표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국토 조성”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 목표로 건강(돌봄), 안전(배려), 참여(일자리, 시간 활용 기회 제공), 쾌적한 환경 조성(여가 기회)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추진 방안은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주거 분야, 교통 분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에서는 ① 도시 건강·치유의 숲 조성, ② 수변지역을 활용한 건강 촉진형 활동 공간 조성, ③ 도시 텃밭 만들기, ④ 건강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⑤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주거 분야에서는 ① 고령자 배려를 위한 전용주택 공급 확대, ② 고령자 안전을 위한 주택 개조 지원, ③ 재가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④ 편의시설 등 활동 친화적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⑤ 주거비 지원 및 주택을 활용한 소득 보장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① 대중교통 무장애화, ② 보행환경 등 생활교통 정비, ③ 교통 관련 사회활동 참여 지원, ④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Chapter II

05

주택토지연구본부

Housing & Land Research Division

-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58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발사업의 생활보상제도 정비방안 연구 59
- 국책사업 사회갈등 해소에 대한 독일사례 검토 60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61
- 보금자리지구 원형지 선수공급방식 및 공공·민간 공동사업방식에 관한 연구 62
-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63
-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
: 정책효과분석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64
-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 65
- 자연친화적 산지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66
-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서민주거안정방안 연구 67
- 주택관련 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68
-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69
- 한국의 건설산업 관계법제 연구 70
- 한국 주택금융제도의 역사적 개관 71
- G20시대의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과 시장진출전략 72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Impact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to Macro-economy and the Policy Measures

김민철, 배유진, 안흥기, 이성수

이 연구는 SOC투자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SOC투자는 시기, 규모, 기간 등에 있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와 외국의 SOC 투자정책을 비교하여 SOC 투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SOC투자 효과를 DSGE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SOC투자는 정부소비지출에 비해 경기부양의 크기는 작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SOC투자는 민간의 투자를 구축(crowding-out)하는 효과가 작아 단기적인 경기활성화보다는 중장기적인 활성화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VAR모형의 분석결과 한국경제에서 예상치 못한 SOC투자 충격이 구축효과를 유발시켜 민간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경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한국 경제에서는 고용증대를 통해 SOC투자가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민간투자, GDP 및 민간소비의 동태적 반응경로가 고용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SOC 투자 증대의 효과는 고용 파급효과가 크고 지속성이 길수록 클 것으로 사료된다.

3장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SOC투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상반기 조기집행이 시행된 2000년도 이후 오히려 상반기 중 불황인 개월 수가 증가하여 SOC투자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은 적시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규모 공사의 경우 예산에 비해 실제 계약되는 낙찰률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의 발주물량을 높일 경우 SOC 사업에 실제 집행되는 투자규모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SOC투자 효과는 완공 후에 생산성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발생하므로 다양한 사업에 분산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우선순

위에 따라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경기활성화라는 SOC투자 효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산식 예산 편성의 비중을 줄이고 계속비 사업과 같은 집중식 예산편성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창출을 통한 투자효과가 가장 확실하므로 고용유발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불황기일수록 낙찰률이 높은 소규모 공사의 발주를 우선적으로 증가시키고 안정적인 연기금의 재원을 SOC투자에 활용할 필요도 있다. 또한 SOC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발사업의 생활보상제도 정비방안 연구

Improvement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s of Residence and Livelihood in the Public Expropriation

김승중, 지대식, 최혁재, 최수, 이승복

생활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기반을 상실한 자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유지·회복시키기 위해 행하는 보상으로 이주민의 생존권과도 관계가 깊다. 이 연구는 이주민에게 올바르고 공평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보상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재정립하고, 생활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생활보상이론 및 판례분석, 생활보상의 실태조사,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생활보상의 실태조사는 국토해양부의 협조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외국제도에 대한 분석은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협동연구를 진행하였다.

2장에서는 생활보상의 개념·근거·대상을 검토하였다. 현행 생활보상은 재산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그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이차상·범령상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학계 및 법원,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생활보상의 개념·근거·대상을 살펴보고, 현행 생활보상의 범위와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3장에서는 현행 제도상 생활보상의 범위를 토대로 생활보상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이주대책 및 주거이전비 등 주거관련 생활보상을 정리하고, 이어서 생활대책용지,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생계관련 생활보상과 정신적 보상의 일종인 재편입주거용 건물의 가산보상에 대하여 알아본다.

4장에서는 생활보상의 실태분석을 통해 생활보상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생활보상 현황을 파악하고, 37개의 개발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실태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생활보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발생의 원인을 진단한다.

5장에서는 공공필요에 따른 주요국의 주거 및 생활 가치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주요내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생활보상제도의 정비방안 마련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6장에서는 생활보상 실태분석 결과와 외국의 생활보상제도의 시사점을 토대로 생활보상제도의 정비방향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주요 정비방향과 대책으로는 ① 부대적 손실보상 강화를 위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의 개선, ② 이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주체의 변경 및 개발사업 간 연계, ③ 실질적 생활보상을 모색하기 위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저소득 이주민에 대한 보상확대 등이다.

7장에서는 이 연구가 갖는 정책적 의의와 기대효과를 설명하였다. 또한 6장에서 제시한 정책건의를 정리하고 생활보상제도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생활보상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여 생활보상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공정보상체계의 마련 및 이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책사업 사회갈등 해소에 대한 독일사례 검토

Review of German Cases of Easing Social Conflicts over National Projects

권용석, 최영국

이 연구는 독일을 대상으로 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 사례연구로, 최근 독일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현대 사회 갈등문제의 발생 원인과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갈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네 가지 측면(① 시민의 정책 참여 측면, ② 갈등관리 제도적 측면, ③ 공공의 역할적 측면, ④ 갈등 해결 방법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시민의 정책 참여 측면에서는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가 조직화되고 전문화되도록 제안하였다. 두 번째 갈등관리 제도적 측면에서는 갈등의 사후관리보다는 사전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갈등주체 간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 과정은 양측 간의 합의사항에 대한 사전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공공 역할적 측면에서는 갈등관련 법제도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줄이되, 갈등 원인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통해 갈등 문제가 최대한 관련 범조항의 충돌, 행정업무 과중 등의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선 지역 간의 협력부서를 개설하여 공공이 주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갈등 해결 방법적 측면에서는 갈등의 원인과 양상에 따라 네 가지 갈등해소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독일식 중재절차는 사회갈등 원인의 객관화를 통한 사회갈등 악화방지 및 공문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 공항역세권 대화포럼은 균형적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항공소음대책위원회는 환경문제, 특히 소음으로 인한 갈등문제 해소에 대한 대안이었으며, 마지막 신뢰위원회는 정부정책에 대한 깊은 불신에 기인한 국책사업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구성되었다.

이 연구는 선진국 국책사업 사회갈등에 대한 사례연구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실무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우선한 국내 사회갈등 정책 방향의 재고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더불어 독일의 동계올림픽 사회갈등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이 연구의 내용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사회갈등 없는 성공적인 세계 대회로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Housing Policy Directions for the Retired Baby-Boom Generation in Korea

천현숙, 이수정, 이현지

한국 사회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생산현장에서 노동력 감소, 자산시장에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 압력의 증가, 사회복지비용의 증대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베이비붐세대 은퇴의 자산시장에 대한 영향보다는 주택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이비붐세대라는 인구학적 특성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보고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분석 결과에서도 저소득 차가집단의 주거소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저소득계층도 아니고 고령자도 아닌 저소득층 베이비붐세대는 정책적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베이비붐세대를 자산과 소득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저소득층 베이비붐세대에 대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베이비붐세대들은 은퇴 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을 활용하여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차가가구에 대해서는 생애주기 변화를 감안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1차 베이비붐세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높았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주택수요는 일반가구와 다른 점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첫째, 주택의 부분임대가 가능하도록 개보수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소득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부분임

대형 주택 평면이 도입되어야 하고 개보수 비용이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로 고령자의 자가보유를 지원하면서 주택자산을 활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역모기지 가입 조건 완화, 저소득 고령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양도세 완화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셋째, 가구규모 변화에 대응하고 이동성이 떨어지는 고령자계층의 주거소비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50세 이상)들이 소유한 교외지역 주택을 젊은 층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종신토록 일정한 수준의 임대료수입을 보장하며, 이러한 안정된 임대료 수입을 바탕으로 도심의 소형 이주 임대주택을 중개해주는 마이홈임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주택 개보수를 포함하여 재고주택의 개보수를 대상으로 하는 개보수 산업의 육성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보금자리지구 원형지 선수공급방식 및 공공·민간 공동사업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vance Supply of Raw Land and Collective Business in Housing site for Bogeumjari Housing

최수, 배유진, 김승중, 손학기

이 연구는 공공사업시행자의 재무여건 악화와 택지조성의 획일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기업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로 나누어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는 보금자리지구의 민간택지를 원형지로 선수공급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원형지 선수공급방식에서는 타 법률상 선수공급과 비교분석한 후 보금자리지구에 적합한 공급방법과 절차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원형지의 공급방식, 공급가격과 대상지,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선수금 납부방안, 선수공급 진행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금자리주택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가칭)'을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앞에서 제안한 원형지 선수공급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원형지 공급을 늘릴수록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원형지 공급지역 관리감독, 공공시설 무상귀속, 원형지 개발자의 토지거래 신고, 제3자 매각 등에 대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방식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유형, 공동사업시행방식의 개요,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법, 사업추진 절차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공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주로서 지구조성사업을 전담하고 민간건설사는 설계, 분양, 건설 등 주택건설 부문 전체를 일괄도급 받아서 참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공공·민간 공동사업방식의 경우 공공과 민간 모두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42개 업체 중 26개 업체(62%)가 공동사업시행방식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위한 단기적인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기성금의 대물정산을 위한 보완, 사업절차 간소화, 적정 사업대상지구

의 선정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건설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정책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원형지 선수공급방식에 관한 연구는 공공의 초기사업비를 낮출 수 있어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공·민간 공동사업방식과 관련한 연구는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민간의 창의성 도입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질적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System

최수, 박천규, 배유진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리츠를 포함한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부동산간접투자제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개방과 자본시장과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리츠, 부동산 펀드 등 주요 제도들의 역할 정립 및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부동산펀드는 투자대상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리츠도 부동산 외에 증권 및 예금 형태로 금융투자가 가능하여 역할이 불분명하다. 둘째, 리츠와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가 중복·상충되어 있다. 셋째, 리츠가 부동산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식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나, 설립요건이 까다로운 리츠는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첫째,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리츠는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규제수준 및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펀드의 속성상 단기자금(3년 이내)을 중심으로 안정성이 높은 대출형으로만 운영하도록 투자범위를 한정하고, 임대 및 개발형은 리츠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기본적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수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리츠는 다른 금융상품과 대체관계에 있고 금융적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규제사항은 「자본시장법」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

째,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 공모의무기간,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제한 등을 다른 간접투자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 및 정책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동산간접투자 관련법제 개선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건전한 관리 및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적정규제 수준 제시를 통해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건전한 관리 및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I) : 정책효과분석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imulation Model for Real Estate Policy and Establishment of Rep-DSS(I)

이수옥, 김재환, 유현지, 전성제, 황관석, 이현지, 신예지, 박천규, 김영표, 지대식

이 연구는 부동산 정책입안자가 부동산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도입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 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 작업으로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에 착수하였다.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은 시스템 다이내믹스(SD) 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하였으며, 각 모형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가구모형과 거시경제모형을 보조모형으로 구성하여 정책효과분석 및 가상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시스템적 접근방법으로 개발된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인과지도와 유량-저량 흐름도(Stock-Flow Diagram)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이의 하위모형으로 총수요 부문, 주택가격 부문 등 모두 8개 부문의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각 부문별 모델을 이용해 행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수, 주택가격, 전세가격, 주택거래, 총수요, 자가수요, 미분양주택 등은 동태적 성장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타당성 검증결과로는 민감도 분석 그래프가 발산하지 않고 일정하게 나타나 타당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개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식검증(Equation Check)과 단위검증(Unit Check)의 결과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으로 이용 가능함도 확인하였다. 또한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조절이 가능한 세제변수(보유세, 취득등록세, 양도세), 금융변수(DTI, LTV, 이자율) 등에 대한 정책효과분석 결과 기본적인 가정에 대한 확인과 동시에 부동산 지표들의 일련의 변화 및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중

요한 과정을 시뮬레이션 모형이 제공해줄 수 확인할 수 있었다.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은 이 연구가 최종 목표로 구축하고자 하는 부동산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Rep-DSS)의 정책효과분석 파트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기능한다. 따라서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부동산 시장과 정책을 설명하는 변수들 간의 관계가 설명되고, 부동산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정책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한 정책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 모형이 정책조합의 값을 적용하여 부동산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구조로 개발하였다.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2011년 1차연도 연구로 개발된 모형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지고, 부동산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이 완료된다면 보다 다양한 정책조합, 최적의 정책조합 선택 기회를 정책입안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

A Study on Housing Policy Paradigm Shift for Social and Economic Structural Changes

이수욱, 박천규, 최윤경, 이현지, 전성제, 선우덕, 이범수, 김완중 외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빠른 인구변화와 사회·경제적 변동을 경험하였다. 안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인구와 가구 구조가 변했고, 지식 기반사회는 더욱 성숙해졌다. 경제성장은 안정화 단계로 진입했고, 도시화 추세도 진정되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 기후 변화 등과 같은 외적 변화도 경험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외적 변화에 의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사회·경제 환경이 계속 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주택 분야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우리는 지금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다양한 학제적 접근과 문헌고찰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인구·가구 구조, 주택시장 내부 환경, 거시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주택소유 의식 및 선호주택 유형의 변화, 주택규모와 유형의 다양화, 건강·의료·녹색 등 주택의 기능과 성능의 개선 등이 미래 주택시장과 주거의 뉴트렌드를 선도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기반한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과 주택수요 추정을 근간으로 2020년 주택정책 비전을, 주택으로 인한 걱정이 사라지고 국민 누구나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열망과 주거철학을 담아 '집 걱정 없는 사회, 안정된 주거'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수요에 맞춘 주택공급방안,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주거안정지원 정책 방안,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방안, 재고주택 관리방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보존 및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 국민의 고품격 주거생활 지원 강화 방안, 그리고

주택정책 추진 주체 간 역할 재정립 등을 향후 추진해야 할 7대 주택정책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제시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 자가소유 촉진, 고령자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세부 정책추진 방안들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정책적으로 현 주택시장의 변화 상태나 수준을 인식하는 기준이 되는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구부문의 화두라 할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빠른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어 고령자 주거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중장기 주택수요를 기반으로 주택공급 계획 재점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자가소유 촉진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여섯째, 주택을 거주자와 커뮤니티,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 주택시장과 관련한 변화가 인구요인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내·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임을 확신시켜준다. 향후 이 연구가 주택시장과 주택정책 관련 연구 수행에 의미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연구기간: 2011. 1. 1~2011. 12. 31

서지사항: 총괄보고서 195면, 국토연 2011-47

세부과제보고서 325면, 국토연 2011-4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09-01



자연친화적 산지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Strategic Planning Guidelines for Forest-land Management

손학기, 강미나, 최혁재, 최수, 배유진, 이동근, 권용석

이 연구의 목적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예시적으로 산지관리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 산지관리는 계획적 관리수단의 미비로 사후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 개발수요 발생 시 난개발 방지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은 산지관리계획을 도입함으로써 산지의 계획적 관리 및 산림생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산지관리계획 수립이 최초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와 계획수립의 기반이 아직 미흡한 상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산지관리 기본계획은 산지관리의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산지관리계획의 비전은 산지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인 국토계획, 환경계획, 산림계획의 비전을 산림관리의 기본원칙에서 해석하여 설정할 수 있다. 산지관리 기본계획의 목표는 산지관리 제도 또는 행위를 통해서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체화된 비전의 내용이 된다. 산지관리 지역계획은 산지관리 기본계획의 각 과제를 실제 산지공간에 구현하기 위해 지역 산지관리의 목표와 실행과제 도출로 구성된다. 특별히 지역계획이 실제 산지관리계획이 되어야 하므로 계획의 공간단위는 산림유역으로 하였다. 산지관리 지역계획의 목표는 산림유역별로 대표 산림공익기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산지관리강도를 결합하여 설정한다. 지역계획의 실행과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산지관리 행위에 해당한다.

효율적인 산지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산지관리법」 개정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 지목이나 임상유무에 의한 산지에 대한 법적 정의에 “재해방지와 생태계 연결성 측면에서 산지로 복원이 필요한 토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산지관리 기본

계획을 ‘국가 산지관리 전략계획’으로, 그리고 산지관리 지역계획을 ‘지역 산지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수립내용을 차별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산림계획 관련 법 조항 조정과 함께, 산림계획의 수정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산림계획의 수정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산림관리의 주요 대상이 임목이라는 내용(contents)일 때 산지관리는 임목이 위치하는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그릇(container)라는 관점에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산지관리계획체계 및 수립방법은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관련 연구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처음으로 수립되는 산지관리 기본계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2011. 1. 1~2011. 12. 31

서지사항: 140면, 국토연 2011-4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총서 11-02-08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서민주거안정방안 연구

Structural Change and Policy of Korean Rental Housing Market

박천규, 이수욱, 전성제, 권수연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전월세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임차가구의 주거실태 및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월세시장 관련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전월세시장과 관련된 최근 이론 및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 최근 나타나는 전월세시장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월세시장의 구조변화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임차가구의 주거실태 및 행태분석, 해외사례 검토 등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전월세시장의 상황과 변화에 부합하는 전월세시장 관련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순수월세시장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징적인 임대차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시장을 단순히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전액 보증금으로 하는 전세와 전액 월세로 하는 순수 월세시장을 중심으로, 이 둘이 혼합된 형태인 보증부월세 세 가지로 구분되는 시장으로 볼 수 있다. 전세의 경우 총소득은 자본이득만으로 구성되고, 완전 월세와 보증부월세의 총소득은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규모가 증가할수록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 임대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전월세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고 판단된다. 계량분석에서도 2009년에 전월세시장과 관련된 지표들에서 구조변화의 신호가 식별되었다. 실제로도 매매가격은 안정되고 있으나 전세가격은 크게 상승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매매가격 상승기대의 감소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로 발생하는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세수요에서 매매수요로의 전환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둘째, 전세에서

월세(보증부월세 포함)로의 전환은 당분간 지속되며 월세의 비중은 높아질 것이나 임대차시장에서 전세의 위상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월세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한 정책방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다. 공공임대주택 수요에 비해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며,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확보는 전월세시장 안정 기반 구축과 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자가 소유 촉진이다. 현재와 같이 주택가격 기대가 낮고, 가격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서민의 자가 소유는 어려운 실정이다.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과 생애최초구입지원 강화를 통해 서민층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임차인 보호 및 자금 지원이다. 임차인보호와 계약자유 원칙의 조화를 유지하고, 임대료 변화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분쟁 감소를 위해 임대료 인상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전세자금지원을 월세지원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전세난과 역전세난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임대사업의 활성화다. 여전히 임대차시장에서 민간영역의 역할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전월세시장 정보체계의 구축이다. 신뢰 있고 공신력 있는 전월세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월세시장의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주택관련 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Major Housing Indicators in Developed Countries

하수정, 이수옥

이 연구는 주요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주택 관련 통계 및 지표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것들이 주택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통계와 비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은 통계국(Census Bureau)과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에서 주택관련 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인 전국부동산중개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NAR), 연방주택금융공사(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FHFA), S&P/Case-Shiller, 미국 주택건설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NAHB/Wells Fargo) 등에서 주택 가격 관련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영국은 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CLG)와 국가 통계청(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ONS)에서 영국의 주택, 주택금융 및 계획 관련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할리팩스(Halifax), 네이션와이드(Nationwide), 영국왕립감정평가사협회(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RICS), 토지등기소(Land Registry) 등에서 주택시장 현황 및 주택 가격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총무성의 '주택토지통계조사'와 국토교통성의 '주생활종합조사', '주택시장동향조사' 등이 대표적인 주택 관련 통계 조사다. 주택산업신문사가 발간하는 「주택경제데이터집」은 PIR(Price to Income Ratio), 자기자본비율, 주거비 지출 비율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경칸테이, 동일본부동산유통기구, 일본부동산연구소, IPD JAPAN, 부동산경제연구소 등 민간부문에서 주택시장 관련 현황 및 주택 가격 지수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주택 관련 통계 및 지표 자료

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OECD에서 발간하는 「OECD 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질 주택 가격의 연간 증가율, 주택 가격 대 임대료 비율, 주택 가격 대 소득 비율, 주택 가격과 GDP 성장에서의 주택 투자 기여율과 일부 국가의 주택공급에 따른 가격 반응도를 분석 및 평가하고 있다. 월드뱅크는 세계개발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에서 환경 부문의 도시 주택 상황(Urban Housing Conditions) 지표 부문에서 153개국의 주택 관련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엔인간정주위원회(UN-HABITAT)의 도시 지표(Urban Indicators)에서는 적절한 주택에 관한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주거 부문 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유로스타트(EUROSTAT)에서는 소득 및 주거 관련 유럽연합 통계(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와 「유럽연합의 사회적 상황(Social Situation in the European Union)」을 발간하고 이를 통해 주거 형태, 거주 상태, 주택의 질, 주택의 소유 가능성 등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해 주택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선진국의 주택관련 통계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하였으며, 주택 통계 및 지표들이 어떻게 주택정책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택관련 현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이 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I)

Policy Implications through Micro-Analysis of Real Estate Market(I)

박천규, 권수연, 손학기, 이수옥, 전성제, 천현숙

이 연구는 지역별 부동산시장을 세분화하여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1차 연구에서는 지역별 부동산하위시장 분석 방법론 정립에 주안을 두고 사례지역 분석을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읍면동 단위의 데이터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을 다진다. 둘째,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분석을 위한 분석 방법론을 이론 및 기존 연구,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정립한다. 분석 방법론은 변수 선정 및 구축, 시장 특성 분석 및 하위시장 식별, 정책방향 도출과정 등을 포함한다. 셋째, 공간분석 기법과 여러 통계량을 이용하여 미시적으로 사례지역의 지역별 부동산시장 특성을 분석한다. 넷째, 지역별 부동산시장을 다수의 하위시장으로 세분화 및 유형화하고, 하위시장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부동산하위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시장분석 절차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변수 및 데이터 구축 파트다. 두 번째는 시장분석 파트다. 이 부분은 부동산시장의 특성분석과 하위시장 식별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 부분은 프로파일 작성 파트다. 여기서 하위부동산시장별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유형화한 후 이에 맞는 정책방향을 도출한다.

부동산하위시장 분석결과 서울시와 광주시는 각각 6개의 하위시장, 전라남도는 4개의 시장이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위시장을 총 12개 유형으로 정리하고, 이에 맞춰 시장유형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시장 유형화에 크게 기여한 요인들을 지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 도심 및 주거지가 노후화되고 있으나 주택지로 개발 가능한 인근의 토지가 부

족한 관계로 기존 도심 및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이른바 도심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심재생사업의 진행여부가 부동산하위시장의 유형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 광주광역시, 지방대도시의 경우 신중주거지역이나 기존주거지역이나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 경우 가용개발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존 도시를 재생하기보다 신규 택지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거지역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라남도, 지방도지역의 경우 고용중심지, 농어촌 특성이 많은 지역이나에 따라 시장을 유형화할 수 있다. 도지역의 경우 고용중심지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인구 및 가구가 밀집된 주거지역이 형성된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 및 가구 수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고령인구가 많고 노후주택이 많다.

이 연구는 부동산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고, 현재 나타나는 시장 차별화 현상을 보다 미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정책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 대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동산정책의 시의성, 적소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건설산업 관계법제 연구

Introduction to Korean Laws on Construction Industry

김성일, 배유진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교육받으러 온 외국의 공무원 및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현황과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건설 법규의 개정방향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인 건설산업 관련 법규는 다양한 업역으로 표현되는 건설업 특유의 생산체제와 발주 및 계약관련 제도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외국인 및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관련 법규의 체계와 각 법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최종적으로 각종 건설산업 법정계획의 내용 및 방향 등을 제시하면서 향후 법제개편 및 정책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생산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국토해양부 소관의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 설계 등 건설 엔지니어링업 관련 법령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이 있으나, 각 담당부처가 법률과 시행령보다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규정한 훈령 및 지침이 있다.

입찰·계약관련 주요법령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한 관련 법규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예정가격작성기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이 있으며,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계약예규 및 회계예규·고시 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조달청을 통한 중앙집중 조달제도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 및 시설물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한 행위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시공관리 및 감리부문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대한 기술관리 차원의 기본적인 사항,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제반사항이 이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제정하였고, 공공건설사업의 안정성 및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그 밖에 민간건설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건축지도원, 건축물대장, 등기축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외국인 및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건설산업의 현황 및 법·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주요 법령의 내용과 법정계획에 제시된 건설법제 개선방안을 정리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국제협력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주택금융제도의 역사적 개관

A Historic Overview on Korea Housing Finance Policy

강미나, 하수정, 이현지, 조진철

이 연구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주택금융정책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요청과 더불어 아태지역주택도시시장관회의(Asia Pacific Ministerial Conference on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PMCHUD)의 솔로선언문(The Solo Declaration)에서 채택된 주택정보시스템 공동작업의 일환으로 아태지역 회원국들에 한국의 주택금융제도와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경제 및 주택시장의 발전단계에 따른 주택금융의 제도적인 변천과 주택금융시장의 추세, 현황, 특징을 살펴보고 성과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태지역 회원국의 주택금융정책 기반 마련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195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한다. 시대의 구분은 전후 복구 및 기반 조성의 시기인 1950~1961년, 고속성장의 기반조성 및 고속성장기인 1962~1980년대, 주택공급 확대시기인 1981~1997년, 국제적인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주거복지확대기에 접어들고 있는 1998년에서 현재까지로 구분하였다.

내용적으로는 앞에서 구분한 시대구분에 따라 경제·사회적인 배경, 주택시장의 상황을 소개하고 이때 도입된 주택정책과 제도를 살펴본다. 또한 그 시대에 도입되고 시행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금융제도를 살펴보고 전반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를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대마다 다른 사회경제적인 배경하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기존의 제도가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 운영되어 왔다. 한 나라에서도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제도가 다른데 하물며 자원과 지리, 역사적 경험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제도가 아무리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시대적인 상황하에서 가능한 것이었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금융제도를 전수하고자 한다면 전수국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나라에 적합한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구체적으로 외국의 현 상황에서 시의성 있는 제도 제안을 할 수 있다면 더 훌륭한 지식공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의 경우 통계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고, 영문화 작업에 한계가 있어서 회원국의 주택시장과 사회경제적 상황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친밀하고 구체적인 상호 이해를 통하여 효과적인 주택금융제도의 제안까지 연결될 수 있는 후속연구 혹은 후속과제가 되고, 또한 일방이 아니라 상호 발전적인 연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G20시대의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과 시장진출전략

Global Development Collaboration and Market Strategies in National Infrastructure Sector in G20 Era

김성일, 김민철, 윤하중, 조진철

이 연구의 목적은 G20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개도국 인프라 개발협력을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와 시장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이러한 전략의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먼저 G20시대의 글로벌 개발협력의 동향을 정의하였다. 또한 글로벌 개발협력 및 협력대상으로서의 '국토인프라'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하였다. 다음으로, 국토인프라 분야의 개발협력 현황과 시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의 형태는 대규모화되어가면서 시공자로 하여금 금융조달 능력까지 요구하는 환경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로, OECD국가의 경제발전단계별 고정자본형성의 특성분석과 개도국의 고정자본형성(건설 및 설비투자)의 패턴 분석을 통해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여건을 전망하였다. 여건 전망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 단계에 따라서 국토인프라 수요나 공급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통해서 도출하고 국가별 국토인프라 구축여건 전망과 경제성장여건, 공적개발원조 추세 및 기여도, 경제주체별 고정자본형성 기여도 등을 도출하였다. 넷째,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개괄을 통해 사업추진단계별 경쟁역량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경쟁역량의 중요도, 역량수준 간의 갭 분석(IPA)을 통해 경쟁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정부기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컨소시엄 등의 유기적 연계역할을 해주는 등 정부주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개발협력 연계 진출 역량도출과 이를 감안한 전략환경분석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인프라 펀드의 확충과 활용성 증대 방안, 글로벌 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수주 마케팅 능력의 제고, 사업수행 체제의 선진화, 국토인프라 분야의 국제협력과 시장진출을 위한 조직 체제 정비에 있어서

국토해양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조직의 강화, 국토인프라 분야별 공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조직체제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Chapter II

06

국토인프라연구본부

Infrastructure Research Division

-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인프라 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방안
: 교통정책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74
- 교통수단에 따른 통행 중 활동행태 분석: 한국과 일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75
- 국토교통인프라의 최저서비스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 도로인프라 접근성을 중심으로 76
-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대중교통회랑 구축방안 77
- 녹색물류산업의 해외동향 및 시사점 78
- 미국 MPO 운영 현황과 시사점 79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통정책 수립: 고령층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80
- 한·중간 전략적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및 협력방안 연구 81
- U-국토 환경에 대비한 교통수요예측기법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82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인프라 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방안 : 교통정책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The Strategies of Equity Improvement toward Fair Society
: Focusing on the Equity in Transportation Policy

정일호, 이백진, 김혜란

이 연구는 교통정책과 관련된 형평성의 원리와 구성요소들을 검토하고, 교통정책을 대상으로 형평성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계량화된 분석 구조를 정립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통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교통인프라의 공급 및 운영은 산업생산 및 경제활동 지원 등 효율성 가치를 중시하여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점차 교통 약자의 사회적 배제, 소득별·지리적 교통서비스의 격차 등 부작용이 나타나 효율성 위주의 가치체계의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형평성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대안적 가치체계이기 때문이다.

형평성은 다양한 관점과 요소들이 결합된 복잡한 개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비교 관점에서 태동한 개념으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할 것인지, 무엇을 대상으로 비교할 것인지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더구나 사회적·정책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형평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미흡하여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구상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통 형평성의 가치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형평성 측면에서 교통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하여 국가 교통 네트워크 체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전문가조사를 통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 형평성 체계에 관한 총괄적·구조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형평성의 정의, 형평성의 다양한 관점, 형평성의 분석 요소 등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더불어 형평성 가치 적용의 틀과 범위에 관련하여 형평성 내부적 요인의 상관관계, 형평성과 효율성의 상관관계, 형평성 가치 제고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관점의 형평성 요소들의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행에 따른 공간적 형평성 격차가 사회적 형평성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앞서 검토한 다양한 형평성 가치 및 요소, 형평성 요소 간 상관관계, 형평성과 효율성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소득계층 간 형평성, 지역 간 형평성, 수단 간 형평성, 최저 서비스 제공, 효율성을 포함하는 형평성 가치구조를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정책의 형평성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수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사전·사후 형평성 영향평가제도 도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 강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인 육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통수단에 따른 통행 중 활동행태 분석 : 한국과 일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Comparison of Activity Participation while Traveling
between Korea and Japan

김준기, 이백진, 최소림

이 연구에서는 교통수단에 따른 통행 중 활동행태를 분석하여 정보통신 기기의 활용이 교통수단 선택 및 통행자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통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향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일본과의 국제 비교를 통해 교통수단 이용 시 양국 간 차이점을 분석하여 문화적·사회적 차이점이 통행 중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서울과 도쿄의 이동 중 활동행태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이동 중 휴대폰 통화이며, 서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 중에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나, 도쿄에서는 이동 중 통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변화는 이미 교통 분야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대중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스마트폰, 갤럭시 탭과 같은 개인휴대용 통신기기의 급격한 발전은 이동 시간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아직은 미미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향후 휴대폰과 같이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거의 모든 인구로 확대될 경우 대중교통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제까지 통행수단 선택(Modal Split) 단계에서는 통행 소요시간과 대기시간, 환승저항, 수단 접근성 등의 전통적인 결정요소만 고려되었다. 그러나 통신기술의 발전과 확대 보급에 따라 이동시간은 더 이상 낭비가 아니라는 등의 인식변화가 수단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통신기기 통신망의 끊임 없는 서비스와 풍부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의미 없는 공간이었던 이동수단 내 공간이 새로운 기능이 창출되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예상대로 높아진다면 이동 중

활동의 여부는 개인의 선택문제로 전환되게 되며, 개인이 의도한다면 충분히 이동시간의 비효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시간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모바일 환경은 추가적인 활동(multitasking)을 가능케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지원한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으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다면 이에 맞춰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즉,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과 규제개혁에 주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서비스 개선, 여론 수렴 및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모바일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내 모바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보안 규제를 강화하여 사회 인프라 고도화 및 국정운영 효율성 제고에 모바일 기술을 안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 내 이동시간을 이용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의 주안점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새로운 시각에서 스마트폰의 확산에 의한 의식 변화 방향을 파악하고 시설 확충 및 개선과 더불어 S/W적 서비스 환경 개선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인프라의 최저서비스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 도로인프라 접근성을 중심으로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Minimum Standard on
Transport Services Focused on the Accessibility of the Road Infrastructure

고용석, 김호정, 김흥석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동권의 확보, 즉 보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동할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입법상황을 보더라도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이 ‘교통권’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교통기본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등 교통복지 측면의 기본권적 시각에서 이동권을 인식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서비스인 ‘최저교통서비스’를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방법론의 개발이 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최저교통서비스기준의 개념, 평가항목 및 방법 등 제반체계를 정립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서비스 중 도로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각 항목별로 서비스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도로인프라를 이용한 교통서비스를 대상으로, 핵심 서비스인 이동성을 신속성과 편리성이 결합된 개념으로 정의하여 이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로교통서비스의 ‘최소한’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적 배제 없이, 경제적 배제 없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로 서비스’로 그 최저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 분석 대상을 명확히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정립한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최저교통서비스기준의 체계 설정, 각 체계의 주요 항목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정의하였다. 국토교통인프라의 최저교통서비스 목표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정책 목표 연계형, 최저교통비 연계형, 기초생활권 연계형 등의 세 가지 요소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각 평가기준별 최저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서비스수혜면적, 평균통행시간, 결절점 개수, 기초생활시설 접근

시간 등 각 기준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설정하였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GIS기법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평가방법론 등을 제시하였다.

각 서비스 기준별로 전국 단위의 실태평가를 실시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고속도로 및 국도 등 그동안의 지속적인 도로인프라 확충으로 반일생활권 실현, 고속도로 IC까지 30분 이내 도달 가능이라는 정책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 일부 지역적인 이유로 서비스 수준이 타 지역에 못 미치는 지역이 발생한다거나 혼잡을 고려한 평가에서는 최저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지역이 보다 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 이러한 측면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최저교통비로 도달 가능한 이동범위 내에 고속도로 및 국도를 이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재원 조달체계의 마련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기초생활시설의 서비스접근도달시간으로 평가한 분석에서는 각 지역별로 시설별 최저서비스수준이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언급하였다. 지금까지의 각 기준별로 평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도로서비스의 최저서비스기준 부합여부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도로빈곤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도로빈곤지도’를 작성하였다.

향후 다양한 부문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교통부문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본적 가치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논의의 구조 및 정책 환경 조성을 기대해본다.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대중교통회랑 구축방안

Planning of the Transit-Oriented Corridor towards Green City Development

서민호, 정진규, 이백진

이 연구는 녹색도시 구현 기법 중 하나인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계획개념을 도시공간구조와 대중교통체계, 지구(District) 계획 등이 포괄된 도시·교통 패키지형 개발기법인 대중교통회랑(Transit-Oriented Corridor: TOC)으로 개선하는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회랑이 교통·환경 측면에서 어떠한 녹색도시 조성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도시개발과 교통 통합 정책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사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과 교통 등 정책 패키지형 개발이 필요하고, 도심부 활성화와 역사·문화자원 보존, 마을 만들기 등 지역적 개발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 및 보행 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면서도 주변 가로 활성화나 역사·문화자원 보존에 효과적인 트램(Tram) 등 노면형 신대중교통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회랑형 대중교통 중심 개발의 대표적 계획개념으로 대중교통회랑을 개념화하였다. 대중교통회랑은 '승용차 의존적 도시공간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노면형 대중교통(BRT, LRT, 트램 등) 노선 주변 반경 400~600m 지역의 토지이용을 중·고밀도로 복합화하고 보행·자전거 친화적인 대중교통 중심 생활권을 회랑형으로 조성하는 도시·교통 통합개발'로 정의되며, 점적 개발방식인 기존 TOD의 도시간선대중교통축 중심으로 확대·개선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중교통회랑 구축에 따른 교통·환경적 측면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안양시를 대상으로 대중교통회랑 계획모델 적용에 따른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계획수준별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분담률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계획요소는 산업혼합도

와 단위면적당 블록 수였다. 또한 시나리오에 따라 안양시 대중교통회랑 영향권역에 속해 있는 15개 행정동의 대중교통분담률은 7.4~12.1%까지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안양시 전체적으로 3.5~5.9%의 대중교통분담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접근보행의 증가로 회랑 내 가로에 형성된 일반·근린 상업시설의 소득 증대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상기 분석 결과를 교통에너지 소비 영향관계 모형에 대입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연간 16만 1,006~29만 2,840kℓ의 교통에너지 소비 저감을 유발시켜 안양시의 연간 CO₂ 배출량을 40.2~73.1만 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같은 효과는 연간 2,577~4,688억 원의 경제적 편익창출과 맞먹는 규모이다.

이 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리형 지구단위계획과 대중교통회랑에 특화된 용도지구 설정, 대중교통회랑 및 주변 가로를 중심으로 경관·미관·고도지구 등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영국의 지역공간전략(RSS) 등을 참고하여 교통계획과 토지이용 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부합된 지자체 주도적 계획방안 마련과 중앙정부의 평가·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연구기간: 2011. 1. 1~2011. 12. 31

서지사항: 190면, 국도연 2011-6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11-02-09



녹색물류산업의 해외동향 및 시사점

The Implications Based on Review to Foreign Green Logistics Industry

이미영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의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는 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1,570만 탄소톤)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 전략과 사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류 온실가스는 화주와 물류기업의 물류 활동에서 상당부분 발생하므로 이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협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적극적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녹색물류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이 연구는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물류산업의 선진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기업의 녹색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내의 녹색물류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국내 녹색물류산업 추진동향 및 한계를 검토했으며, 선진외국의 글로벌 물류기업인 독일의 DB Schenker, DP DHL, 일본의 히타치 물류(Hitachi Transport)의 추진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네 가지 시사점을 종합해보면, ① 선진외국에서는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환경적 측면의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목표를 공존시킬 수 있도록 녹색물류기업의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② 글로벌 기업은 녹색물류 경영자원을 소유 또는 임대, 통제, 지도 감독,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③ 녹색물류산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녹색물류 계측, 정보, 효과분석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다. ④ 공동 집배송센터 및 대형 차량 운영과 같이 거점기반의 공동물류서비스 운영이 강화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녹색물류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별로 녹색물류 측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녹색물류경영자원을 소유 또는 임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들 시스템은 정부와

연계하여 관리, 감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설 운영 측면에서는 물류 거점기반의 공동물류서비스를 확대하는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최초로 녹색물류산업을 대상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녹색물류산업의 육성정책 수립 및 활용부문은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미국 MPO 운영 현황과 시사점

The Implications of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in America

이찬영, 정일호

이 연구는 도시권의 원활한 교통시설 공급은 물론 투자자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 인프라 투자체계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미국의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제도의 운영 현황과 시사점 도출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방국가인 미국에서는 교통 계획 및 건설 사업 수행 시 연방정부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예산을 각 주로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주로 주(州)정부가 연방 지원금을 받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교통 인프라 사업들이 3C(Continuing, Cooperative, and Comprehensive) 계획 과정을 통해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1970년 초부터 MPO가 운영되고 있으며, 미 연방법에서는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규상에는 MPO의 설치에 대한 의무 조항 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요구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아, MPO는 각 주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MPO 계획과정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며, 가격 경쟁력, 안전성, 보안성, 접근성, 이동성, 환경성, 에너지 보존, 삶의 질, 경제발전 패턴과의 일관성, 수단 간 연결성, 유지관리의 효율성, 기존 시스템의 보존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통관리지역(TMA)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교통 계획은 통행수요 감소와 운영관리전략 등을 포함한 혼합관리를 포함하게 되는데, 교통관리지역(TMA)으로 선정된 지역을 관리하는 MPO의 계획과정은 연방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과 연방대중교통국(FTA)에서도 함께 인증검토를 수행한다. 이러한 인증은 최소한 4년에 한 번씩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인증 검토 과

정은 계획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MPO들은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수행업무 외에도, 토지 이용계획, 사업수행, 대중교통 운영 및 대기환경배출가스 분석을 포함한 환경계획 등 주(州)정부 혹은 지자체로부터 받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미국 MPO제도 운영의 전반적 현황 검토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으로는, 우선 향후 한국의 계획수립 체계, 인프라 관련 재원운영의 구체적인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MPO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우리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교통조합이 미국 MPO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유사 조직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예산 지원, 지역갈등 해소 측면에서 살펴보고 미래 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한국형 MPO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통정책 수립 : 고령층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Transportation Policies for an Aging Society
: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Mobility of the Elderly Groups

김준기, 오성호, 박종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른 고령화 진행속도를 보이고 있어 고령화 대책이 시급하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층의 통행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고령자 교통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령화 현황 및 국내외 정책방향 조찰을 통해 우리나라 고령화의 현황과 장래 전망을 살펴보고 고령층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을 대상으로 동단위로 고령층의 주거입지의 시계열적 추세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에 따라 교외에서 도시로 이주(suburban flight)하기보다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이 들어가는 현상(aging in place)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령층의 주거입지는 향후에도 현재 인구의 공간적 배분과 동일한 추세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현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고령자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고령층의 연령대(예: 초기 고령자 65~74세, 중기 고령자 75세 이상),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 가족 구성, 건조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령자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령자 교통정책 수립 시 연령에 따른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주거입지 및 통행환경 요인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지역(도시·교외)별 특성, 고령자의 통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에 따라 승용차 및 대중교통수단별로 대응방안, 추진전략, 교통정책 대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정책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단기·중기 교통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정책적으로 고령층의 통행권 향상으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소외계층이 되는 것을 방지함으

로써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 도모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술적으로는 기존의 연구가 고령층의 주거입지 패턴을 횡단면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고령화 특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고령층의 주관적인 지표(통행환경)를 포함하여 고령층의 비동질적 개별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시행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간 전략적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및 협력방안 연구

The Enhancement of the Strategic Integrated Logistics System for Cooperation Between Sino-Korean

임영태, 류재영, 이동우, 서민호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물류 연구와 중국과의 물류협력에 전략적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경제의 급부상에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상당한 부분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중간 전략적 물류시스템으로서 복합운송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물류협력을 위한 타깃항만 선정, 그리고 대중국 물류협력 사례분석을 통해 한·중간 복합운송체계별 효율화 방안과 전략적 물류협력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먼저 복합운송체계별 화물의 발생지역 간 추세와 경쟁구도를 시각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 BCG 매트릭스를 활용하였고, 국제복합운송 물류거점을 선정하기 위한 경쟁력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중간 국제복합운송 거점으로서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조사(Depth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였다. 첫째, 한·중간 전략적 물류협력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복합운송 체계별 발전을 위한 한·중간 물류협력 어젠다(Agenda)를 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둘째, 법·제도 간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에 기여할 수 있었다. '사이버 CIQ 시스템'과 같은 통관제도 간소화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트럭 규격과 표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환경기준 표준 설정 등의 제도개선 방안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중간 물류네트워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한·중간 해공/해륙복합운송체계 및 대륙철도(열차페리) 연계운송체계별로 우선연계지역을 매칭시킴으로써 물류네트워크 측면의 복합운

송 경로의 다양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동북아지역의 물류거점확보를 위한 한·중간 전략적 복합물류시스템의 '물류협력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적인 대응전략 수립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U-국토 환경에 대비한 교통수요예측기법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Estimation of Traffic Demand Forecasting with the Consideration of ICT Development

이상건, 김호정, 조춘만

이 연구는 U-국토 환경구축에 대비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이 교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기존의 교통수요예측기법이 가지는 한계점을 분석하여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예측모형을 개발·적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U-국토 환경, 유비쿼터스 및 기존 U-국토 관련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U-국토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어 국토공간 활용의 패러다임 변화양상에 대해 정리하였다. 향후 국토공간 변화의 전망에 관해서는 생활공간, 도시 및 국토공간 차원에서 살펴보았고, U-국토환경의 도래에 따른 U-교통 부문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U-국토와 U-교통 간의 위상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이 교통부문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유비쿼터스 기술이 교통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U-콘텐츠, U-서비스, U-City 공간, U-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U-Factor를 도출하였다.

U-Factor를 반영하여 U-교통수요예측모형(UTDFM)의 기본구상을 제시하였다. 기존 이동행태와 U-교통 이동행태의 차이점을 밝히고 기존의 수요예측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도입하여 Feedback Mechanism을 적용하고 U-Factor 상관관계 분석에 의한 Rolling Estimation으로 예측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CT 발달로 인한 전국의 준 간 교통량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교통연구원(KOTI)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적별 통행량에 적용하여 통행량을 도출하였다. 각 변수 간의 영향관계는 ICT에 대한 준 별 수준에 대하여 준 간 목적별 통행량에 대한 관계를 설정하고 통행량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에 대한 영향 즉, 녹색지수의 변화와 혼잡도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한 도로를 비롯한 교통인프라 제공 및 ICT 수준에 의하여 교

통량을 저감시키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였다. ICT에 대한 준 간 목적별 교통량 영향도를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적용하기 위하여 스톡변수를 정의하고 스톡 변수를 변화시키는 플로우변수를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검증을 위해 최근 10년간 U-Factor의 변화추세, 즉 인터넷 이용률과 ITS 투자액을 대상으로 이들과 통행수요 변화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U-교통수요예측모형(UTDFM)을 KRIHS-TAL 2단계 모형에 적용하였다. U-국토환경 및 도로 인프라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로 교통량, 혼잡도, 연료소비량, CO₂ 배출량을 시계열적으로 도출하여 도로 시설 및 ICT의 영향(인터넷 이용률, ITS 투자액)이 향후 통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Post 2012를 대비한 온실가스 절감 목표달성을 위한 적정 ITS 투자액을 추정하였다.

Chapter II

07

국토정보연구본부

Geospatial Information Research
Division

- 개도국의 공간정보기술(GIS) 수요특성과 대응전략 84
- 공공시설 입지갈등 예방을 위한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방법론 연구 85
-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II) 86
- 도시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예측 연구 87
-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88
-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정책 정립방안 연구 89
- 시공간패턴분석을 통한 토지이용변화 예측 및 활용방안 연구 90
-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91
- 지역갈등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 개발사업 유치 지역갈등의
비용 추정을 중심으로 92
-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III):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서비스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93
-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및 도시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94



개도국의 공간정보기술(GIS) 수요특성과 대응전략

Strategies for GIS Demand in Developing Countries

최병남, 조우석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는 공간정보를 구축하지 않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공간정보기술 수요는 있는데, 수요를 실제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기술 수요 특성과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한다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추진과제는 첫째, ‘개발도상국 SDI 구축지원을 위한 ODA 활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절대 기술 우위에 있는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을 피하는 전략이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에 적용할 정책-법제도-계획의 틀, 수직적·수평적 구조, 내용 등을 정립할 수 있는 템플릿을 작성하는 ‘SDI 구축지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가GIS 구축으로 취득한 경험, 기술, 지식 등을 이론적 체계를 갖춘 정책-제도-방법론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에 적용할 ‘공간정보기술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넷째,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시장에 진출할 ‘글로벌 공간정보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특화된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으로 ‘국토공간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공간정보기술 융합 토털 솔루션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국토공간 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시설물을 관리하는 활용 체계로 ‘공간정보 기반의 전자정부’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의 추진과제는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에 적용할 종합 모델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관련 분야 생태계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민관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이끌어갈 해외진출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는 불확실한 것이 많다. 따라서 국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피지기(知彼知己)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구축환경은 열악하고, 그만큼 위험도 크다. 또한 국가GIS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내세울 강점은 별로 없다. 철저한 지피지기 후에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시설 입지갈등 예방을 위한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방법론 연구

GIS-based Consensus Building Methods for Minimizing Conflict in Location of Public Facilities

임은선, 차미숙, 박태순

이 연구는 공공시설의 입지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복잡한 입지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방법론의 활용성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공공시설 입지갈등의 실태와 문제점 고찰, 정책 결정자와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요소를 정량적으로 반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다기준의사결정기법(Multi-criteria Decision-making Analysis: MDA)과 참여형 GIS(Public Participation GIS: PPGIS)의 적용성 검토,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방법론의 실험적용, 관련 주체들이 협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협력적 소통방법론(collaborative decision-making)을 기반으로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모형을 구상하고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모형은 공공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론조사 등 사회적 합의형성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합의를 촉진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쌍방향 합의형성 절차를 통해 적정한 입지를 함께 탐색하고 조정하는 정보기반의 틀을 제공토록 한다.

기존의 공공시설 입지 결정은 다소 일방적으로 국책성 사업을 결정하고 발표한 후 집행하는 DAD(Decide-Announce-Defend) 방식이 적용되어 투명성과 신뢰성이 미흡하여 의사결정 내용과 절차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모형은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여 지역개발사업 등 공공시설의 입지 추진 시 내용적·절차적 합리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참여형 GIS(PPGIS)의 환경을 조성하여 참여적·협력적 의사결정 절차와 합의형성 여건을 조성한다. 한편 다기준의사결정기법(MDA) 등 과학

적 방법을 도입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기능을 강화한다. 개선된 의사결정방식은 국민·행정가·전문가·NGO가 함께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보다 폭넓은 분석과 고민들로부터 환경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모형은 공공시설의 입지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 지연, 사업 중단, 비용 낭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론이 의사결정 정책설계 단계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참여형 GIS 기반의 합의형성 채널 확대, 선진적 분석기법의 활용 제도화, 입지관련 공모방식의 개선 및 갈등 협의 시 기초정보 제공 의무화 등 다방면의 변화가 요구된다.

끝으로 향후 필요한 후속과제로 ① 입지갈등 분석에 필요한 인문·사회적 분석자료 발굴 연구, ② 공공시설 입지갈등 유형에 따른 활용기법 및 시뮬레이션 수행, ③ 공공시설의 지역 내 공정배분을 위한 과학적 분석방법론 개발, ④ 갈등관리 전문가의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방법론 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II)

Establishing the Simulation Model for National Territorial Policy(II)

안흥기, 임은선, 김대중, 김준기, 김태영, 최명섭

이 연구는 1차연도의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체계에 관한 구상을 바탕으로 2차연도에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체계를 정립하였다. 즉, 여러 부문 간의 완전한 통합 대신 부문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정책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체계로 구성하였다. ‘토지이용’부문의 경우 토지이용변화 시뮬레이션을 예측하기 위해 KOPSS, LCM 등 복수의 여러 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간 경쟁의 격화로 국토정책이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 이슈가 되고 있어 이를 사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수요 공급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체계가 필요하므로 일반 균형모형인 다지역 CGE 모형을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K-SIM)에 도입하였고 3차연도에 다지역 동태 CGE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존 효과 분석 연구에서는 국토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되는 경우에 대한 효과분석이 대부분이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실제 그러한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모형을 이용한 경제적 공급효과 분석, 교통모형을 이용한 교통 접근성 제고 효과 등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각각의 부문별 효과 분석을 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간 이동’ 부문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국토정책이 공간에 미치는 1차적인 효과인 생산, 고용, 인구 등의 이동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교통, 토지이용, 환경 부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계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형의 활용방안에 중점을 두어 활용성이 높은 정책 유형을 사례로 하여 정책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최근 국토 전반에 걸쳐 신도시·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 혁신·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계획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국토정책의 중요 이슈로 부각하고 있고,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과도한 개발 사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요가 충분하지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향후 모형의 정책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 사례에 대해 정책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도시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예측 연구

Land Use Change Prediction based on Urban Policy Scenarios

김대중, 임은선, 김상조

도시 성장과 수반되는 토지 이용 변화, 즉 농지나 산지 등 미개발지에서 도시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기후변화 및 생물종다양성 감소의 원인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과 직결된다. 도시화는 농지와 산지를 파편화시켜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 또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이동거리 증가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급증시킨다. 도로 등 인프라시설 건설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수질오염도 사회적인 이슈다.

토지이용변화는 도시정책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과거의 도시정책은 경제개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준농림지역 제도는 주거와 공업용지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였다. 이로 인한 무계획적 개발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준농림지역은 특성에 따라 평가되어 세부 용도로 구분되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스마트 성장이나 녹색 성장과 같은 선진화된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거 추세 연장과 스마트 성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에 따라 도시성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인구는 통계청의 추계인구를 기반으로 도시의 인구성장을 고려하여 배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수요를 산정하였다. 과거 토지이용변화 추세 시나리오는 개발 가능지 중에서 무작위로 필요한 만큼 미개발 토지를 변화시켰고, 스마트 성장 시나리오는 개발 가능지 중에서 도심지와 도로에서 가까운 미개발지를 우선 변화시켰다. 2020년, 2030년, 2040년을 대상으로 10개 도시에 대하여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였다.

이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도시의 토지이용변화 과정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인 과거 추세 연장의 경우, 토지이용변화가 농지, 산지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였다. 민간개발업자의 경우 개발이익

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적어 토지매입이 쉽고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저렴한 지가의 미개발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개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별한 규제정책이 없는 한 이와 같은 토지이용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농지와 산지가 시장의 논리에 의해 개발된다면 난개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뿐 아니라 농지와 산지의 파편화를 가져와 생물종다양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둘째, 과거추세연장 시나리오에서 확인했듯이 토지이용변화가 주로 농지와 산지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 상당부분이 그러할 것이라는 점에서 스마트성장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보았듯이 새로운 수요가 기존 개발지와 가까운 곳에서부터 발생하도록 규칙을 정했을 때, 토지이용변화 패턴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과거추세연장 시나리오와는 달리 기존 개발지를 중심으로 개발수요가 집중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개발은 기존의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개설한다 하더라도 연결해야 하는 거리가 짧아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기개발지 근처의 지가가 먼 지역의 미개발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시장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새로운 토지수요가 기존의 개발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Strategies to Revitalize Local Trading Area for Stabilizing Regional Economy

이영주, 임은선

전통시장, 대형마트, SSM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보면 그 기능이나 역할이 서로 다르다. 서민 위주의 지역 상인들로 구성된 전통시장은 지역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 중 하나이며,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가진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대형마트나 SSM의 사업 확장, 소비자의 구매 행태 변화 등으로 지역상권을 구성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침체되고 있는 지역상권을 지원하여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 검증하기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통시장의 여건과 관련제도의 변화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상권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상태 및 구매자 행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상권의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상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의 심각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GIS와 ABM을 이용하여 지역상권을 둘러싼 제도 환경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도시계획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밀착형 상권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적 특성이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해 그 지역에 맞는 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취약계층의 경

제활동을 지원하고, 서민중심의 상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서민을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수혜증가로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역상권 활성화정책이 실제 상점의 매출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입지규제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시뮬레이션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관련제도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공정한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유통산업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넷째,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새롭게 도입된 정책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제도의 구체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상권활성화구역을 신청하는 지자체가 구역을 설정하는 데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정책 정립방안 연구

A Study on Setting Geospatial Information Policy in Smart Society

최병남, 박종택, 한선희, 강혜경

1995년부터 추진한 국가GIS 구축사업은 성과도 있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연구에서 제기하는 이슈는 첫째, ‘공간정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정책은 어떤 모습이었어야 했는가?’ 이다. 둘째, ‘공간정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사회현상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다. 셋째,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면, 새로운 공간정보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다.

이를 위해 정책의 특성인 계층관계를 중심으로 공간정보정책의 구조와 체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스마트사회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정보정책의 정립방안을 제시한다.

공간정보 관련 문제들은 국토정보화와 공간정보산업화 및 공간정보공유체계로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대상영역 부문에 대응한 정책은 국토정보화정책과 공간정보산업육성정책, 공간정보인프라구축정책이다. 공간정보정책의 대상영역에서 활동의 주체, 대상영역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등 정책 구성요소의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정책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이 세 부문의 각각에 대한 정책을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하위 공간정보정책은 공간정보 관련 문제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라는 관계로 연계되어 수직적·수평적 구조체계를 형성한다.

국가GIS구축사업은 1995년부터 국가GIS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책의 구조적 특성인 수직적·수평적 구조체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GIS정책의 핵심으로 국가GIS 기본계획은 개별사업 추진계획으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개별사업 전체를 묶는 상위 개념인 정책으로서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GIS정책을 정책이라면 갖추어야 할 체계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패러다임이 정보사회로부터 스마트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일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던 웹포털이 양방향 통신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종 사용자가 사용자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산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정보생태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간정보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제 기존 공간정보인프라 중심의 공간정보정책은 공간정보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공간패턴분석을 통한 토지이용변화 예측 및 활용방안 연구

Land Use Change Prediction with Spatiotemporal Pattern Analysis and Strategies for Urban Policy

김대중, 구형수

도시가 성장할 때, 난개발이나 생태계 파괴와 같은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변화 예측을 위한 기존의 방법론은 예측 정확성 등의 문제로 실무에서 활용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토지이용변화 예측 방법은 과거의 경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이용변화 패턴은 도시정책이나 토지정책 등 인위적인 개입에 의해 바뀌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토지이용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공간통계의 시공간패턴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토지이용변화 예측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한계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런 다음, 기존의 시공간패턴분석방법론을 보완하고 확장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즉, 새로운 방법론은 토지거래의 시공간패턴을 탐지하여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한 지자체의 과거 토지거래 자료(2002~2005)에 적용하여 토지이용변화 예측력을 검증하였고, 최근 토지거래 자료(2009~2010)를 이용하여 향후 토지이용변화가 일어날 지역을 예측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제적 스마트성장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개발계획이나 정책에 대한 토지시장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토지투지 조기경보체계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있는 토지거래 등 토지시장 활동 관련 자료의 시공간패턴을 분석하여 개발압력이나 토지투지를 조기에 감지하고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사전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취

합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정보를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변경하여 실시간 토지시장 모니터링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개발방향도 제시하였다.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Strategies on Building the Platform for Geo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 Based on Open Source Thinking

최병남, 신상희, 남광우

1995년 제1차 국가GIS 구축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0년까지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출물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찾기 힘들다. 과거나 현재나 외국인 공간정보기술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점들이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과 개방형 혁신 방법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을 제시한다. 공간정보기술 R&D 특성에 적합한 개방형 혁신 방법론의 **Outside-In** 전략을 바탕으로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 R&D 혁신’ 전략을 제시한다. 이는 이미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를 공간정보기술 R&D에 적극 활용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개발기술 관리의 특성에 적합한 개방형 혁신 방법론의 **Inside-Out** 전략을 바탕으로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 중매’ 전략을 제시한다. 이미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기술을 과감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직 외부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과 공유 전략이다. 개발기술 상품화 특성에 적합한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를 바탕으로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 비즈니스’ 전략을 제시한다. 이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방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순환체계를 형성하는 전략이다.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은 개방과 공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를 가장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개념이 ‘플랫폼’이다. 따라서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과 개방형 혁신 방법론을 연계한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을 실현하는 장으로 플랫폼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은 ‘공간정보기술개발의 다양한 참여자 그룹의 요구를 중개해 그룹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

키고, 이를 통해 참여자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공통적인 유무형의 구조물 혹은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갈등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 : 개발사업 유치 지역갈등의 비용 추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Social Cost of Regional Conflict in Development Projects

신영철, 안흥기, 이순자

이 연구는 개발사업 유치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계량화 측정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갈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용의 계량화를 시도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갈등상황에서 발생한 시위 등의 비용만을 집계하려고 노력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갈등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비용의 유형을 경제주체의 효용 극대화 모형을 근거로 하여 제시하였다.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는 갈등상황으로 인해 상실한 노동소득 비용, 갈등상황에서 발생한 피해 비용, 갈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 갈등상황에서 발생하는 신뢰감의 상실 또는 불쾌감 등과 같은 비효용 비용의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환경자원경제학 분야에서 발전한 비시장 재화(non-market goods)의 가치 측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비시장 재화 가치 측정법 중 진술선호법은 갈등 수준의 변화에 대한 가치를 구축된 설문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진술선호법의 대표적 기법인 조건부가치추정법(CVM)과 선택실험법(CE)의 이론적 기초와 기본모형 소개 및 추정방법도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목표한 바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도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개발사업 유치 지역갈등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의 및 유형화와 더불어 지역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비시장재화 가치추정법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못한 점이 다. 실제 추정과정에서 제시한 모형 및 추정방법이 문제 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지만 향후 과제이기도 하다.

둘째, 지역갈등의 경우도 사업의 성격 및 갈등의 진행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역갈등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갈등과 관련된 사업의 성격 및 갈등의 진행단계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 및 비시장재화 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여, 개발사업 유치 지역갈등 등 특정 사례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실증연구가 더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III) :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서비스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The Realization Strategies of New Digital Convergence Space(III)
: Focusing on GIS Strategies for the Smart Society

정문섭, 조춘만, 김민철, 김소라, 송미경

1995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국가공간정보사업은 측량, 지적, 원격탐사 등 주요한 기반기술 인프라의 성장을 바탕으로 토지, 주택,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정보화 및 국토관리의 역량 강화에 기여해왔다.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주요한 원동력인 국가 공공인프라의 하나로서 국가공간정보 인프라의 발전은 국토공간의 계획적 관리 및 활용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의 활용은 최근 스마트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 즉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 패드 등의 활용 일반화 흐름과 함께 현대인의 삶과 활동의 질 향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스마트사회의 도래와 그 진전에 따라 공간정보가 기여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점검해 보고 특히 공간정보의 융·복합적 활용에 의한 다양한 콘텐츠나 통신망 등과 연계된 시대적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증진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의 정책적 제언으로 스마트사회에 요구되는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는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각 세부 추진과제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 정책기반 추진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토해양부 중심의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조7항에 제시된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범위와 세부 서비스 구성에 관해 세부적 내용이 삽입되어야 한다.

둘째, 아직까지 정확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즉 공간정보와 기타 부문의 디지털 콘텐츠 등이 연계·통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존 법제도기반 서비스들과 구체적 연계 또는 통합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셋째,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본 인

프라로서 디지털 콘텐츠는 이미 공공이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글로벌·국토도시·생활공간 차원의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추진을 위해서는 공간정보와 통계데이터로 대표되는 사회·경제 데이터 간 유기적 연계 또는 통합화 작업이 요구된다.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및 도시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Urban Space Changes and the Direction of Urban Planning in the Age of U-City

신동빈, 왕광익, 정윤희, 이진희

이 연구의 목적은 U-City 시대를 정의하고, U-City 시대의 도래로 인한 생활 양식 및 도시공간의 변화를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도시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는 U-City 지수 측정, 지니계수를 활용한 도시의 분산과 집중 정도 분석, 도시민 설문조사를 통한 생활양식 변화 분석을 통해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도심을 주요 활동 공간으로 하는 도시 기능과 함께 교통과 주거에 있어 이들 기능의 이용을 위한 통행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통행량의 감소는 도심의 성장을 억제하고 도심으로의 집중화 정도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분의 기능이 계층적으로 분산하여 기존 도심에서 도시 외곽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도시의 외연적인 확산은 계속될 것이다. 개별 용도에 있어서는 통행량의 감소에 따라 규모나 개수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일부 중심 기능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존 공간의 재편에 있어서는 특히 공공공간에 있어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도시 시설물과 유비쿼터스 기술이 통합하면서 정적인 시설물이 아닌 미디어 처럼 변화하는 도시 경관이 창조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새로운 공간의 발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문화 교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복합화된 새로운 공간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U-City 시대의 도래와 여건 변화로 인하여 토지이용과 도시계획 시설의 수요가 도심과 비도심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별 용도 지역의 미래 수요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수요 산정이 가능한 계획 틀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기능간의 통합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용도 지역 지정이 필요하며 구도심과 지방 도시의 쇠퇴

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의 균형 있는 설치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향후 U-City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계획과 제도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며, 동시에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도시계획과 U-City 계획이 이원화되어 있어 실제적인 구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U-City 관련 계획과 종합적 연계를 위한 공간 구상에 관한 내용을 U-City 종합 계획에 신설하도록 하며, 동시에 도시기본 계획에도 이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여 두 계획이 분리되어 추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기대 효과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실제적인 생활 양식 변화에 따른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전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U-City 관련 법제도 개선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과 U-City 관련 계획의 연계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미래의 도시공간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 점도 기대효과라 할 수 있다.

Chapter VI

08

색인

- 과제명 색인 96
- 연구자명 색인 98

과제명 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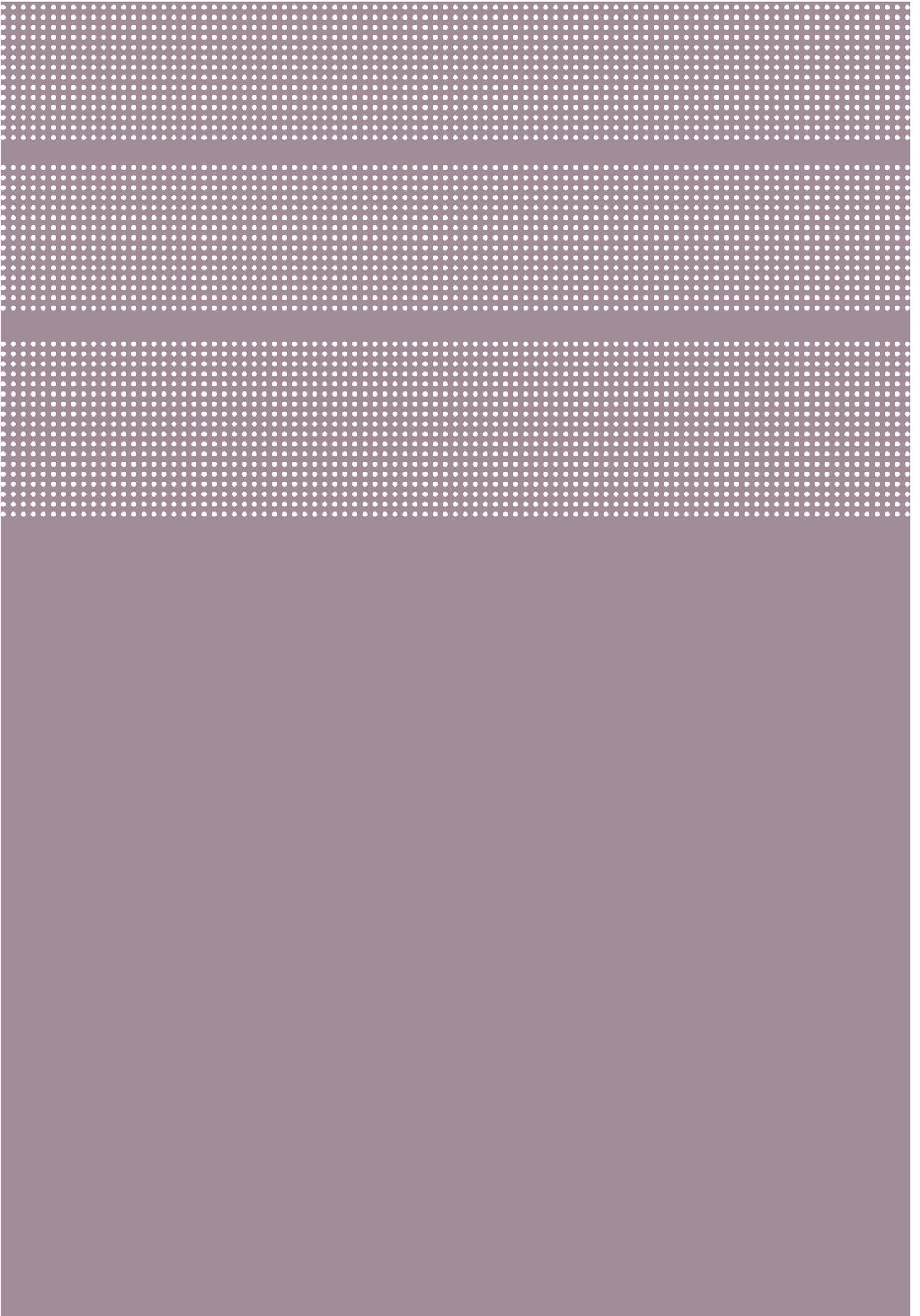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56
개도국의 공간정보기술(GIS) 수요특성과 대응전략	84
건강장수도시 조성의 현황과 과제	26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58
공간유형 계량화 기법을 활용한 미국 도시계획 사례 연구: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결을 중심으로	38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통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27
공공시설 입지갈등 예방을 위한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방법론 연구	85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 활용방안	50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발사업의 생활보상제도 정비방안 연구	59
공정사회를 향한 지역개발사업 갈등관리 실태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16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인프라 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방안: 교통정책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74
교통수단에 따른 통행 중 활동행태 분석: 한국과 일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75
국가산업단지 내 미개발용지 활용 방향 연구	28
국책사업 사회갈등 해소에 대한 독일사례 검토	60
국토 대예측 연구(III)	17
국토교통인프라의 최저서비스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도로인프라 접근성을 중심으로	76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II)	86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II)	18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방안 연구: 국토의 기물 취약성 및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51
녹색국토 구축을 위한 강(江)·산(山)·해(海) 통합관리 추진방안 연구	52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대중교통회랑 구축방안	77
녹색물류산업의 해외동향 및 시사점	78
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I)	53
녹색성장형 건강도시의 경제적 가치 추정 및 활성화방안 연구	29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30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19
도시 스마트성장 평가방식을 활용한 친수공간 계획체계의 합리적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	39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40
도시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예측 연구	87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방식의 개선방안 연구	41
미국 MPO 운영 현황과 시사점	79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	20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61
보급자리지구 원형지 선수공급방식 및 공공·민간 공동사업방식에 관한 연구	62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63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I): 정책효과분석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64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산업입지·기반시설 개발잠재력 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21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	65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31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88
서민지향적 융합형 도시재생방안	42
수도권 스마트 성장관리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32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정책 정립방안 연구	89
시공간패턴분석을 통한 토지이용변화 예측 및 활용방안 연구	90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91
이상기후에 대비한 하천의 체계적 관리방안	54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통정책 수립: 고령층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80
자연친화적 산지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66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서민주거안정방안 연구	67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영문보고서	22
주택관련 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68
지역갈등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 개발사업 유치 지역갈등의 비용 추정을 중심으로	92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낙후지역 발전 연구	33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I)	69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43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III):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서비스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93
창조계층 입지패턴 분석 연구	44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	23
트라이앵글 거점도시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34
한·중간 전략적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및 협력방안 연구	81
한국 주택금융제도의 역사적 개관	71
한국의 건설산업 관계법제 연구	70
한국형 국토공간 디자인 연구	45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II)	55
G20 시대의 국토품격 향상 전략 연구	46
G20 시대의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과 시장진출전략	72
KTX를 활용한 국토 재창조 방안	35
Making TDR Work: The Case of the Seattle Metropolitan Area	47
U-국토 환경에 대비한 교통수요예측기법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82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및 도시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94

연구자명 색인

강미나	42, 66, 71	김태환	26, 30, 46
강민규	18	김현식	55
강신욱	31	김혜란	74
강혜경	29, 89	김혜승	26, 31, 56
강호제	27, 32	김호정	76, 82
고용석	76	김홍석	76
구형수	51, 90	남광우	91
권수연	67, 69	류승환	27, 32
권영섭	55	류재영	81
권용석	60, 66	류태희	43
권형준	53	매트 빌	47
김결	51	문정호	16, 21
김광익	30	민범식	35, 42
김근태	39	박경현	22, 40
김대종	21, 86, 87, 90	박고운	17
김도형	38	박근현	45, 46
김동근	41	박세훈	23, 40
김동주	18	박수진	31
김명수	52	박재길	38, 45, 46, 47
김민철	58, 72, 93	박정은	42, 43, 52, 56
김상조	41, 87	박정호	17, 28
김선희	45, 50, 55	박종일	80
김성수	26, 41	박종택	89
김성일	70, 72	박천규	63, 64, 65, 67, 69
김소라	93	박태선	43
김승종	59, 62	박태순	85
김영민	53	박형서	16, 22
김영표	29, 64	배유진	58, 62, 63, 66, 70
김완중	65	백경진	55
김은란	40, 44, 45, 46	변세일	17, 19, 35
김은정	26, 29, 55, 56	변필성	20, 30, 33, 34
김재영	35	서민호	77, 81
김재철	52	서연미	18, 28
김재환	64	서태성	19, 27
김종원	53, 54	선우덕	65
김준기	56, 75, 80, 86	소진광	50
김창현	20, 53, 54	손학기	62, 66, 69
김천규	21, 23	송미경	93
김철중	35	신동빈	94
김태영	86	신상희	91

신영철	92	임은선	31, 85, 86, 87, 88
신예지	64	임지영	17
신혜원	23	장은교	16
심우배	51, 54	장철순	19, 27
안흥기	19, 58, 86, 92	전성계	64, 65, 67, 69
양진홍	26, 45, 46	전지현	31
오선영	41	정문섭	93
오성호	80	정석희	52
왕광익	94	정소양	40, 44, 52
유승훈	53	정원욱	26
유현지	64	정윤희	94
윤영모	22, 30, 33	정일호	18, 74, 79
윤윤정	31	정진규	77
윤하중	72	조남건	35
이동근	66	조우석	84
이동우	30, 81	조정곤	34
이미영	29, 78	조진철	71, 72
이백진	74, 75, 77	조춘만	82, 93
이범수	65	주미진	18
이범현	35, 39	지대식	59, 64
이상건	82	차미숙	19, 31, 85
이상준	21, 23	차주영	45, 46
이성수	58	천현숙	61, 69
이수욱	64, 65, 67, 68, 69	최동진	53
이순자	16, 92	최명섭	86
이승복	59	최병남	84, 89, 91
이승욱	18	최성연	38
이영주	88	최소림	75
이왕건	42, 43	최수	59, 62, 63, 66
이용우	17, 45	최영국	52, 56, 60
이원섭	55	최윤경	65
이유리	43	최지용	53
이지원	17	최혁재	59, 66
이진	35	크리스틴 배	47
이진희	94	허수정	61, 68, 71
이찬영	79	한선희	89
이현주	31	한우석	51, 54
이현지	61, 64, 65, 71	황관석	64
임동일	34	황형준	35
임영태	81		



NEWS

ANALYSIS

REPORT

Chapter

III

국제협력사업

1. 국제학술교류	102
2. 개도국 대상 국토정책 지원 및 컨설팅	113
3. 국제연수프로그램	123

1. 국제학술교류

국토연구원은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국토관련 연구 및 정책 홍보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기구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각국의 교수, 연구기관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토관련 선진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토연구원은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 런던대학(UCL) MOU체결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1년 2월 10일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영국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과의 MOU 체결을 기념하기 위하여 ‘KRIHS-UCL MOU 체결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National Urban Policy in Transition: Historical Development and Future Direction in UK and Republic of Korea’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Nicholas A. Phelps 교수와 Claudio de Magalhaes 교수는 ‘A History of British Urban Policy Since 1947’, ‘Governance Structure of British Urban Planning in Retrospection’이라는 제목으로 영국의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관리구조의 변화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국토연구원의 박재길 부원장과 이왕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각각 ‘Prerequisites for the Better Urban Policies: Reviewing Urbanization & Urban Planning Efforts in Korea’, ‘Urban Development Policy in a Transitional Period in Korea’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도시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사회는 김현식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하였으며, 토론자로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배응규 중앙대학교 교수, 유성용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김성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영국과 한국의 도시정책의 변화과정과 미래도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토연구원 – 세계은행 UKP 동아시아 런칭 세미나’ 공동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1년 6월 30일, 7월 1일 이틀에 걸쳐 세계은행과 함께 도시화지식플랫폼(Urbanization Knowledge Platform: UKP) 동아시아 런칭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참석자 외에도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몽골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석학과 실무 경험자 등 43명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와 경쟁력 있는 도시 활성화를 위한 토지, 시장, 인프라 및 공간 계획 방안을 모색하였다.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 진행된 6월 30일 일정은 세계은행 Abha Joshi-Ghani의 개최사와 박양호 국

토연구원장의 환영사, 정도안 국토해양부 국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세계적인 도시경제학자인 Ed Glaeser 교수의 기초 발표에서는 도시의 중요성과 도시화의 순환과정에서의 교통, 인구, 보건,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였다. 이어 이원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사례를 대상으로 도시화 과정과 도시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화답하였다. 이어 시작된 주제 1은 ‘효율적 도시 관리를 위한 제도, 데이터 및 수단’으로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인 Roberto Chavez가 배경지식 및 사례 발표를 하였으며, Greg Clark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Roberto Chavez는 도시계획에서의 거버넌스 및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규제수단과 계획수단을 각 나라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 관리에 있어서의 도시 주소 시스템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국토연구원의 김대중 연구위원이 발제하였으며, 한국에서의 GIS 프로젝트와 UPIS 도시계획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주제 2-1 ‘도시의 재조명: 효율적 토지이용계획정책-정책 및 규제수단’에서는 버클리대학의 David Dowall 교수가 배경지식 및 사례 발표를 하였고, 도시의 인구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 도시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변화된 환경에서의 도시 지속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어서 전명진 중앙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도권 개발 규제 정책이었던 그린벨트와 신도시 이슈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주제 2-2 ‘도시의 재조명: 효율적 토지이용계획정책-시장과 보장수단’에서는 주제 2-1과 마찬가지로 David Dowall 교수가 발표를 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시장의 변화와 이에 대한 도시계획가의 역할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어서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사례로 효율적 토지이용정책을 위한 용적률 이전제도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세션을 마친 후에는 현장투어가 진행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협조로 강남세곡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다. 초청자들은 청계천 문화관을 방문



하여 청계천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였다.

7월 1일 행사는 국토연구원 G20 Hall에서 개최되었다. 9시 30분부터 시작된 주제 3 ‘토지이용계획과 인프라 계획 통합방안’에서는 이상건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전략센터장이 사회를 보았으며, 세계은행 Imogene Jensen이 배경지식 발표를 하였다. Imogene Jensen은 각 나라별 도시 사례를 들어 인프라 개발 현황과 이것이 도시계획과 얼마나 잘 연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에 대한 화답발표는 오성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하였으며, 한국의 새만금을 사례로 토지이용계획과 인프라 계획이 어떻게 통합되어 계획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어 주제 4 ‘도시 슬럼과 사회적 평등’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정전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으며, 배경지식 및 사례 발표를 맡은 Roberto Chavez는 슬럼이 생성되는 원인과 여러 슬럼 지역을 예로 들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에 대한 화답발표는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주택 보급률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형성된 슬럼의 종류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주제 5 ‘저탄소 녹색 도시 전략’에서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강원도국제도시훈련센터 원장인 김귀곤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왕광익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배경지식 및 사례 발표를 하였다. 왕광익 책임연구원은 저탄소 녹색도시의 정의와 한국에서 추진된 저탄소 녹색도시 전략과 추진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강원도 강릉을 사례지역으로 들

어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는 김정환 녹색성장 위원회 과장이 녹색도시에 관한 전 세계적인 동향과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의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오후에는 이틀간 논의한 내용을 각국에 전파하기 위

하여 8개국과의 비디오 컨퍼런스를 진행하였고, 각 세션별 요약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폐회식에서는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의 폐회사로 이틀간의 세미나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국토연구원 – IOER 공동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1년 7월 5일 10층 중회의실에서 ‘Urban Planning Paradigm for Sustainability’란 주제로 독일의 IOER(Leibniz Institute of Ecological and Regional Development, 생태지역 개발연구소)과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공동 워크숍은 국토연구원 발표 후 IOER이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U-City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독일의 IOER에서는 Marc Wolfram이 IOER 소개 및 독일의 Smart City에 대해 발표하였고, Georg Schiller가 독일의 거주지 모니터링, Marin Behnisch가 독일의 오픈스페이스 개발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국토연구원 및 IOER의 연구진은 각 나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과 U-City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고, 향후 두 기관 간의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국토연구원 – OECD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OECD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의 국토도시정책’에 대한 국제세미나가 2011년 7월 13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 도시정책의 도전’과 ‘도시와 녹색성장’이라는 두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상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도시의 쟁점과 정책의 최근 동향’을 시작으로 OECD 지역개발정책고문인 Adam Ostry의 ‘Trends in Urbanization in Korea within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등 총 6건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은 김현식 국토연구원 선



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수원시 이재준 부시장, OECD의 Adam Ostry 지역개발정책고문, Marissa Plouin 도시개발 컨설턴트, 김수진 경제정책분석가, 주종환 경제정책분석가, 경기개발연구원 강석 연구위원과 고재경 연구위원,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김영환 청주대학교 교수, 최영수 서울시 국제기후협력팀장, 여상

구 SK C&C 상무 등 총 12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토론은 OECD의 한국도시정책보고서 발간에 앞서 연구내용 및 분석결과 검토와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고서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문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국토연구원 - 미국 GSU-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 공동 국제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는 2011년 7월 15일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미국 Georgia State University(GSU) 부동산학과의 Karen Gibler 교수, 노승한 박사, 신승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를 초청하여 미국의 부동산 시장 및 노인 주택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노승한 박사는 미국 REITs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신승우 교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순영업소득 증가율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Karen Gibler 교수는 미국의 노인 주택 종류와 특성, 수요 및 공급체계 등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 설명하였다. 이어서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노인 가구 및 주택의 특성에 대해 발표하고, 노인가구를 위한 주택정책의 대안



을 제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와 노인주거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할 수 있었다.

‘국토연구원-세계은행 UKP 라틴아메리카 런칭세미나’ 참석

국토연구원은 2011년 7월 18일, 19일 이틀에 걸쳐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도시화지식플랫폼(Urbanization Knowledge Platform: UKP)’ 라틴아메리카 런칭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의 국토 및 도시개발 경험을 발표하고 각국의 연구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런칭세미나는 6월 30일, 7월 1일 세계은행과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동아시아 도시화지식플랫폼(UKP)’에 이어 라틴아

메리카를 대상으로 개최된 행사다. 동아시아 런칭세미나에서는 세계은행과 국토연구원 간의 UKP 협약을 체결하고, 국토연구원이 UKP 글로벌네트워크의 핵심파트너기관(Core Partner Institute)으로 지정되었다.

런칭세미나에는 손경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하여 미국,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의 석학과 실무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

는 도시 발전을 위한 토지, 시장, 인프라, 공간계획 방안을 모색하고, 라틴아메리카의 UKP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공식일정으로는 Beatriz 콜롬비아 환경·주택·지역개발부 장관과 Abha Joshi-Ghani 세계은행 도시개발 매니저 등의 환영사와 개회사, 세계적 도시경제학자인 Edward Glaeser 교수의 ‘도시의 승리(Triumph of the City)’에 대한 기조발표가 있었다. 주요 세션에서는 도시발전전략과 네트워크, 도시화와 메트로폴리탄 거버넌스, 도시발전의 민간 참여,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도시발전과 사회격차 해소 등을 주제로 각국 참가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지역경제발전 세션에서는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이 한국의 국토 및 도시개발 경험을 발표하였으며, 남미국가들의 적용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또한 국토연구원 특별세션이 마련되어 남미국가 참



가자들에게 국토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였다. 특별세션에서는 조진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이 국토연구원의 설립배경과 조직구성을 소개하고, 국토 및 도시, 주택·토지, 인프라 등 분야의 주요 연구프로젝트를 비롯한 한국의 국토 및 도시정책 개발과 관련한 연구기관의 지원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도시계획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1년 8월 26일 경주대학교에서 대한민국·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고도보존과 도시계획’을 주제로 ‘도시계획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경주대학교와 호텔현대경주에서 개최되었으며, 일본도시계획학회, 대만도시계획학회 및 홍콩도시계획학회 소속 회원 200여 명이 참가하여 총 18개 세션에서 115편의 국내외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

일반논문 발표에 이어 진행된 정책세미나에서는 차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이 ‘Preservation of Historic City and Planning’을 주제로 역사문화유산을 간직한 고도(古都)의 개발과 도시계획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어 한국, 일본, 대만의 사례를 담은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 지역발전위원회, 경상북도, 경주시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순자 경주대학교 총장의 환영사, 허재완



학회장의 개회사, 홍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일본도시계획학회, 대만도시계획학회장의 인사말 및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의 인사말, 엄승용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의 기조연설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대한민국·도시계획학회, 일본도시계획학회, 대만도시계획학회, 홍콩도시계획학회가 동

북아시아의 도시계획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난 1976년부터 매년 개

최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2011 스마트에이징 국제심포지엄 중 ‘주거분야’ 세션이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방향’을 주제로 2011년 9월 1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스마트에이징 국제심포지엄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환경변화에 맞춰 정부의 정책과 제도정비, 선진국의 사례와 정책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등 고령화 관련 5개 기관의 주최로 의료산업과 금융, 주거와 여가 등 4개 세션이 진행되었다.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한 주거분야 세션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허재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의 사회와 아카시 타츠오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연구실장, 손경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먼저 아카시 타츠오 박사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주택정책’을 주제로 한국보다 일찍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 사례와 이에 대응한 일본의 주택정책을 소개했다. 아카시 박사는 “일본의 경우 1960년부터 1990년 사이에 개발된 신도시 거주자들의 고령화와 더불어 신도시의 구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후한 주택단지의 개축·개량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은퇴세대에 대한 지원도 강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경환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현황과 이들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베이비부머의 주거안정’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이후에도 높은 출생률을 유지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손경환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자산이 없는 저소득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과도한 주거비부담으로 주거수준이 크게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어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신영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의철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 등 국내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주거분야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국토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은 개원 33주년을 맞이하여 2011년 10월 7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물·삶의 공간’을 주제로 EAROPH KOREA(아태지역개발기구 한국위원회)와 공동주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1995년에 비해 2025년에는 전체 가용 수자원이 감소하는 반면,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수자원 확보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수자원 확보는 글로벌 개발의 핵심 과제이며, 인류가 해결해야 할 정치적인 이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미국 NASA 오메가프로젝트 리더인 조나단 트랜트는 ‘기후변화·물·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하여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인구밀집지역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활용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오메가프로젝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네쉬 메타 인도 CEPT대학교 명예교수는 ‘물·환경과 성장: 아시아 도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물 수요 증가로 물관리의 심각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수변공간 정비를 통해 물이 풍부한 강·도시경관의 개선, 오픈스페이스의 제공, 홍수관리, 지하수위 상승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ECO₂ 녹색도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왕광익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과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강릉시 사례



를 소개하고, “도시의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한 도시유형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며, 지자체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된 계획수립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비 도시통합방재 전략’에 대해 발표한 심우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초대형 재해발생 우려를 제기하며 토탈방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탈방재시스템은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평가를 통해 도시의 재해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토론에는 권원용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회장, 이상문 협성대학교 교수, 이우종 경원대학교 교수, 이재준 수원시 부시장, 최영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UN-Habitat와 한국 시민사회·공공부문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1년 10월 13일 국토연구원 G20홀에서 ‘UN-Habitat와 한국 시민사회·공공부문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기초발제와 두 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하성규 중앙대학

교 교수가 ‘UN-Habitat의 국제적 활동과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초발제를 하였으며, 이어서 나효우 아시안브릿지 운영위원장이 ‘UN-Habitat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협력방안’, 남권형 KOICA 동남아시아 1팀장

이 ‘우리나라 ODA와 KOICA의 무상원조’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하성규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진현환 국토해양부 과장,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국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노기덕 주거연합 사무총장,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이 참석하였다.



‘제15차 GIS국제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은 공간정보 분야의 범지구적 협력과 공동 연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 10월 27일 일산 KINTEX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글로벌 공간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제세미나에서는 한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대만, 베트남 등 공간정보 관련 국내·외 전문가 7인의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기조연설은 ‘유럽의 공간정보 연구 네트워크’(마우로 살베미니 AMFM GIS 이탈리아 대표),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공간정보 관리의 주요 이슈’(프레저 테일러 캐나다 Carleton 대학 교수)가 이루어졌다. 세션1에서는 ‘한국의 공간정보 R&D 정책과 국제협력’(최현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U-국토연구실장), ‘대만의 공간정보 R&D 사례 및 함의’(지미 추 대만 Feng Chia 대학 교수), ‘베트남의 공간정보정책 현황 및 국제협력’(루덕민 베트남 건설부 GIS팀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세션2에서는 ‘일본의 재해취약집단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연구 사례’(타츠키 시게오 일본 도시사대학 교수), ‘글로벌 공간정보 연구네트워크 조성 전략’(신동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발제 이후에는 김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마우로 살베미니 AMFM GIS 이탈리아 대표, 홍일영 남서울대학교 교수, 타츠키 시게오 일본 도시사대



학교 교수, 루덕민 베트남 건설부 GIS팀장, 최현상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U-국토연구실장, 신동빈 안양대학교 교수, 홍상기 안양대학교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한·일 문화클러스터 발전전략 국제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1년 11월 14일 국토연구원 7층 회의실에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클러스터 활용에 대한 정책지원 현황과 사례조사를 주제로 ‘한·일 문화클러스터 발전전략 국제워크숍(International Workshop on Cultural Cluster Strategy in Korea and Japan)’을 개최하였다.

사사키 마사유키 오사카시립대학 교수는 ‘Cultural Cluster Policy in Japan(일본의 문화클러스터 정책)’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창조도시 및 문화클러스터 지원에 대한 일반현황 및 가나자와시와 요코하마시의 문화클러스터 조성사례를 소개하였다. 뒤이어 박세훈 국토연구

원 연구위원은 ‘Can Cultural Cluster be Implanted?(정책지원형 문화클러스터가 지역에 잘 뿌리내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부산시 원도심 창작공간 지원사업(또따또가)의 시작과 현황, 향후 문화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원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토의시간에는 문화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 및 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아태지역개발기구(EAROPH) 44회 지역대회’ 참석

2011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아태지역개발기구(EAROPH) 44회 지역대회가 브루나이 다루살렘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브루나이 개발부 도시 및 지역계획국(Ministry of Development, Department of Town and Country Planning)이 주관하고 EAROPH와 국제주택 및 도시계획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using and Planning: IFHP)이 공동 주최하였다.

아태지역개발기구(EAROPH)는 1954년 인도의 뉴델리에서 창설된 UN 산하 국제기구로 동아시아지역 민간, 공공, 학계 전문가들의 교류를 통해 각국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 및 태평양 28개국 82개 기관 및 340인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대회와 세계대회를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한국은 제4회 세계대회인 1972년 대회를 시작으로 총 3회의 세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도 제23회 세계대회를 대구시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2012년도 세계대회 주제인 ‘Green City for Human Betterment’와 개최지인 대구시를 홍보하고, 한

국의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분야의 경험을 소개하기 위해 브루나이 지역대회에 참가하였다.

브루나이 지역대회는 총 3개 세션에 걸쳐 16개의 주제발표와 2회의 기조연설 및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대회 주제인 ‘Managing Urban Growth: Challenges for Small Cities’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규모 도시들 또한 도시성장으로 인한 경제적·환경적인 변화에 맞이하러, 이에 대응하고 기존 커뮤니티의 보존을 지원하고 회원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특히 도시의 성장관리를 위해 토지이용과 경제개발 계획, 건축계획, 환경보전계획, 주택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재익 계명대학교 교수는 첫 번째 세션의 첫 발표자로 도시성장관리 모델로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김영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한국측 방문단은 지역대회 전날 개최된 EXCO 미팅(운영위원회)에 참석해 EAROPH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였으며, 2012년 대회 개최 확인서에 한국측 대표

로 김영표 선임연구위원과 EAROPH 대표로 Michael Harbison 회장이 각각 서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진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012년 세계대회의 주제와 특별프로그램인 Young Leaders' Forum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국토연구원 김영표 선임연구위원과 강미나 연구위원은 EAROPH 본부와의 미팅을 통해 세계대회 주제와 운영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2012년 5월 본부 임원들이 서울을 방문해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함께 참가한 대구시 대표단은 대회 마지막 날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이 세계대회와 대구시에 대해 소개했으며, EAROPH 관련 인사들을 만나 2012년 대회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지역대회의 운영과 학술대회 진행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브루나이 측의 설명을 듣는 등 대회

진행에 관한 업무를 파악하였다.

2012년 EAROPH 세계대회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EAROPH 회원국들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 시도되는 Young Leaders' Forum에 대한 회원국 대표단의 큰 호응과 한류문화에 대한 관심 등으로 세계대회 규모가 기존 대회에 비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IFHP(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using and Planning)의 참여로 동아시아지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영국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지역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적인 지식교류의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0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공동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일본건설경제연구소와 함께 제20차 한일건설경제워크숍을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토연구원 손경환 선임연구위원 외 4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권오현 건설산업연구실장 외 2인, 일본건설경제연구소 콘도 소장 외 5인, 안상경 도요대학교 교수, 심형석 영산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였다. 11월 17일에는 총 4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먼저 ‘일본 대지진 이후 건설경기 현황 및 복구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한 토시야 하토리(Toshiya Hattori) 일본건설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010년 3월 후쿠시마 지역의 대지진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일본 경제는 이후 복구대책을 통해 꾸준히 회복하고 있으나, 엔화 절상과 세계경제 침체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회복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동향 및 최근 이슈’에 대해 발표한 국토연구원 김민철 책임연구위원과 배유진 연구원은 거시경제는 점진적으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산업의 성장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설산업 참



여주체 간 공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생발전위원회의 설립을 소개하였다.

‘일본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및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한 시니키 이사시키(Shinichi Isashiki) 일본건설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의 해외건설 진출 상황을 소개하고, 최근 기존 해외건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한국 플랜트 건설의 성장과 경쟁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 건설

업체의 성장과정을 설명하였다.

각 주제별 발표 후에는 영국의 건설경기, 동일본대지진 이후 복구대책, 양국 건설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

건설업 해외진출 및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 등에 관련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다.

‘환황해권(한·중·일) 상생협력을 통한 새만금 발전방향 국제세미나’ 개최

2011년 11월 18일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환황해권(한·중·일) 상생협력을 통한 새만금 발전방향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개최사를 통해 한반도 서해안의 중요 거점으로서 새만금의 중요성과 한·중·일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강조하였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이순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환황해경제권 상생발전을 위한 새만금의 역할과 개발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저우리훤 중국 난카이대학 빈하이개발연구원 부원장은 ‘빈하이신구 개발전략과 새만금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 기타큐슈 국제동아시아연구소 센터 타니무라 히데히코 소장과 다이 니효우, 이마이 겐이치 박사가 ‘일본 시각에서의 새만금 발전 잠재력과 해결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채병선 전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강동희, 고현정 군산대학교 교수, 박창호 인천재능대학 교수, 이강진 전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팀장,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이재욱 한아도시연구소 대표이사, 최승담 한양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2. 개도국 대상 국토정책 지원 및 컨설팅

국토연구원은 지구촌 공동성장과 공존 및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지식격차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는 개도국의 연수생을 초청하여 한국의 경제개발과 지역개발, 국토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전수, 정책사례 소개 및 개도국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 개발도상국의 중앙정부와 시정부를 대상으로 국토·지역·도시·교통 분야에서의 정책 및 계획 수립에 대한 해외개발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1 정책자문

‘국토연구원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합동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1년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강화를 위해 주요 협력기관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UAE 외무부, 유엔환경계획(UNEP) Risoe Centre 등 주요 관계기관과 녹색성장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주요 업무인 교육·연수, 계획·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UAE는 Masdar City 등 녹색도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마스다르 과학기술원(MIST)을 설립, 녹색 국토지역개발 관련 커리큘럼 개발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GGGI와 연계·협력하여 계획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역할을 적시할 수 있다.

UAE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글로벌 테스트베드이므로 향후 GGGI와의 협력증진을 통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교육·컨설팅 기능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서 수행 가능한 연구 주제는 ① 새로운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으로서의 녹색성장 이론체계 정립, ② UAE 발전단계에 적합한 녹색성장 정책 및 추진전략 연구, ③ 녹색성장의 국제적 Best Practice와 정책사례 분석 및 UAE 적용방안 제시, ④ Capacity Building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등이다.

또한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UAE 대상 ‘녹색성장 Capacity Building Program’ 개발·운영 공동 추진이 가능하다. 산업·기술별 세부발전전략 수립과 연계 가능 분야는 Green Home 단지 개발사업인데, 한국과 선진국의 그린홈 개발기술과 녹색 도시개발 및 Green Home Complex 기술 등을 UAE에 지원,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녹색교통 및 ITS 사업으로는 UAE에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친환경 탄소저감형 ITS 기술 등을 전수할 수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GGGI-UAE 합동워크숍, GGGI-UNEP 회의, UAE 관계부처 방문,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한 UAE 아부다비, Masdar City, MIST, 두바이 등지의 녹색 국토·지역개발 관련 계획 수립, 컨설팅, 교육사업 등 프로젝트와 사업 수요 파악,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참여 및 협력 가능성 증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주요 업무인 개발도상국 교육연수, 계획·컨설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UAE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기금 분담국이면서 앞서 말한 대로 Masdar City 건설 등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글로벌 테스트베드이므로 향후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태국 옴부즈만 방문단 초청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1년 6월 7일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태국 옴부즈만 방문단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방문단은 Siracha Charoenpanij 교수, Panit Nitihanprapas 등 2명의 옴부즈만(태국의 장·차관급)을 비롯하여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국토연구원 조진철 연구위원이 국토연구원과 글로벌개발협력센터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국토계획, 인프라정책, 산업단지정책, 녹색성장 및 녹색도시 등에 관해서 김동주 국토계획연구본부장,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강호제 연구위원, 왕광익 책임연구위원 순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질의응답시간에는 국토·도시계획과 교육생 과정 등 글로벌개발협력에 대해 국토연구원 직원들과 활



발한 논의를 가졌다. 방문단은 감사의 표시로 6월 10일 만찬에 국토연구원 직원들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국토연구원 직원들의 협력과 환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서한으로 보내왔다.

‘국토연구원 - 베트남 재무부 - 세계은행 공동 국제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는 2011년 7월 7일 베트남 컨터시 난큐2 호텔 7층 회의실에서 베트남 재무부·국토연구원·세계은행이 공동으로 기획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약 80명이 참가한 이번 국제세미나는 메콩강 유역 도시기반시설(교통인프라) 현황 및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베트남 측에서는 베트남 남서지역발전위원회, 베트남 토지행정청, 13개 메콩강 유역 지방정부 인프라개발 담당자, 한국 측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민간 기업체 인사들이 참가하여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조진철 연구위원의 개회축사를 비롯, 박재길 부원장의 ‘한국 도시화 현황’과 이상건 선임연구위원의 ‘한국의 ITS 사례 및 메콩강 유역에 대한 교훈’ 발표를 진행하였다. 뒤이어 세계은행의 Dean A. Cira, Hyoung Gun Wang, Dung Anh Hoang은 각각 ‘베트남 도시화 검토’, ‘세계 도시화 검토’, ‘베트남 물류



산업의 도전과 기회’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베트남 측에서는 베트남 재무부의 Pham Dinh Cuong이 ‘베트남에서의 도로교통 인프라 관리’, 베트남 교통부 Doan Canh Hoang이 ‘메콩강 유역의 교통인프라 시스템 현황 및 자본운용 방향’에 대한 발표를 했다.

베트남 재무부 공공자산관리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추

진한 이 세미나에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메콩강 유역 인프라 개발 방안에 대한 쟁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세

미나 이후 베트남 재무부와 한국 측 참가자들은 7월 8일 건너서 인프라 시설 현장 답사를 통해 향후 인프라개발 협력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국토연구원 - 베트남 환경과지속가능발전연구소 녹색도시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1년 9월 20일 베트남 사회과학원 산하 연구기관인 환경과지속가능발전연구소(Institute of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와 함께 녹색도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왕광익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한국의 녹색도시’에 대한 발표와 함께 시작한 이 세미나에서 국토연구원과 환경과지속가능발전연구소는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녹색도시 모델을 베트남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한국의 정책과 모델을 바로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되며, 베트남의 여건과 정책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Phan Sy Man 소장은 베트남에 적용할 수 있는 녹색도시 모델을 국토연구원이 같이 개발해주었으면 한다



고 의견을 밝혔다. 조진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과 Phan Sy Man 소장은 두 기관의 공동 연구와 정보교환을 위한 논의를 발전시켜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캄보디아 국가기본도, 지도도식 및 국가공간정보체계 마스터플랜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GIS연구분부는 2011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호텔 크리스털 볼룸에서 캄보디아의 중앙부처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국가기본도, 지도도식 및 NSDI 마스터플랜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한 ‘캄보디아 국가기본도 제작 및 국가공간정보체계 마스터플랜 구축사업’의 중간성과물을 캄보디아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식에서 신의철 한국국제협력단 소장이 개회선언을 하였으며, 캄보디아 H. E. Chhann Saphan 토지관리



도시계획건설부의 차관이 환영사를 낭독하였다. 워크숍

첫날에는 캄보디아 국가기본도 구축 결과가 발표되었고, 구축된 결과물을 워크숍 참석자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시연장비를 전시·운용하였다. 또한 9월 21일 캄보디아 토지관리도시계획건설부로부터 최종 승인된 캄보디아 지도도식에 대해 설명하고 환경부, 교통부 등의 관계기관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도도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워크숍 둘째 날에는 김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캄보디아 NSDI 마스터플랜 보고서의 전

반적 내용을 1·2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그룹토론을 통해 캄보디아 여건에 맞는 마스터플랜의 방향을 정리하였다. 그룹토론은 워크숍 참석자들이 캄보디아 NSDI 마스터플랜의 중요성과 부처간 자료공유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2년 3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방문단 대상 정책자문회의’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1년 10월 17일 국토연구원 4층 ECOL에서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정책(Urbanization and Urban Policies in Korea)’을 주제로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자문회의는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부주임(차관급)인 Hou Yunchun을 단장으로 한 총 6인의 방문단의 요청으로 개최되었으며, 방문단은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도시화와 지역균형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경험을 청취하고자 국토연구원을 방문하였다.

자문회의는 박재길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정책(Urbanization and Urban Policies in Korea)’을 주제로 한 발표 이후 중국 대표단과 국토연구원 박세훈 연구위원, 강호제 연구위원, 전성제 책임연구원 간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국토개발 및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도시화 과정에 대한 진단, 도시화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개발도상국을 위한 도시정책 등의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중국 대표단은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에 주목하였으며, 지금 한국이 채택한 기준을 목표로 하되 현재 중국이 경험하고 있는 도시화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개발연대 시 사용한 정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또한 향후 국토연구원과 같은 한국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할 기회를 갖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레바논 산업오염저감 프로젝트 자문회의’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1년 10월 20일 국토연구원 4층 ECOL에서 ‘레바논 산업오염저감 프로젝

트 기술지원’을 주제로 정책자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자문 세미나는 한국의 발전경험에 깊은 관심을

보인 레바논 정부의 요청으로 세계은행이 조사팀을 구성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세계은행 조사팀은 중동아프리카 농업환경 프로그램 매니저인 김훈애 박사와 수석환경전문가인 Kulsum Ahmed 박사로 이뤄졌으며, 세미나를 통해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는 레바논이 현재 겪고 있는 산업단지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의 경험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는 반영운 충북대학교 교수의 'EIP(Eco-Industrial Park)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in Korean Industrial Park Complex'에 대한 발표와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채송화 한국산업단지공단 박사, 심경호 경기 EIP사업단장으로 이뤄진 한국 측 패널과 세계은행 팀 간의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주요 논의는 환경기준을 따르게 한 구체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세계은행 팀은 레바논의 현재 상황에 적합하게 국가의 경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발전과정에 대한 회고적 연구를 통해 경제성장 경험을 발굴 및 정리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이러한 연구를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같은 한국의 유관기관과 세계은행, 레바논 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하지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레바논 산업오염저감 프로젝트 이외에도 도시개발, 인프라개발, 수자원 개발과 같은 개도국의 개발수요에 한국의 경험을 원용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과 국토연구원이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IDB-KSP ICT를 활용한 중남미 신항도시 개발전략 수립과정'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1년 12월 6일 국토연구원 4층 Ecole de GDPC에서 'IDB-KSP ICT를 활용한 중남미 신항도시 개발전략 수립과정'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IDB-KSP ICT를 활용한 중남미 신항도시 개발전략 수립과정'은 '지속가능한 신항도시 플랫폼 설계 및 시행사업-중남미 3개 도시의 ICT 현황조사 및 분석보고서 작성 컨설팅 용역' 사업의 일부로 중남미 3개 도시, 산타아나(엘살바도르), 몬테비데오(우루과이), 고이아니아(브라질) 등 시 관계자(각 도시별 2인, 총 6인) 및 중남미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관계자(3인) 등 총 9인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ICT 개발특징 및 도시문제 적용사례 등에 대한 강의 및 현장시찰을 실시하였다.

이 워크숍은 초청연수를 통해 경험한 ICT 사례 등을 중남미 3개 도시에 적용하는 이슈에 관해 발표 및



토론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구결과 및 Action Plan을 발표하였으며, 각 도시별 대표 및 IDB 관계자는 각 도시의 상황에 맞는 Action Plan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2 연수프로그램

베트남 고위공무원 대상 ‘교통인프라 정책개발과정 교육연수’ 실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는 2011년 1월 16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 고위공무원 교통인프라 정책개발과정에 대한 교육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교육연수는 한국의 교통인프라 건설정책을 청취하고, 교통인프라시설 건설 및 운영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의 선진화된 교통인프라사업의 시행 및 이용정책 개발 경험을 학습하며,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베트남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베트남 고위공무원 방문단은 Nguyen Huu Chi 베트남 재무부 차관, Nguyen Tan Thinh 등 공공자산관리국 관계자 8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연수 과정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차관 및 인천시 정부부시장 면담, 한국 철도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 등의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Nguyen Huu Chi 베트남 재무부 차관은 이 연수를 마친 후 1월 27일 감사메일을 보내 “교통인프라 정책개발과정은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으며, 베트남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면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우호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고위공무원 대상 ‘한국의 저소득 주택정책 교육연수’ 실시

국토연구원은 2011년 1월 21일 베트남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저소득 주택정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는 한국의 주거복지 및 저소득 주택정책을 청취하고, 한국의 주택종합정책안 수립과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베트남 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최근 개소한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역할 및 향후 운영계획을 소개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베트남 고위공무원 방문단은 Nguyen Trong Ninh 베트남 건설부 주택부동산국 차관과 주택정책국장, 베트남 재정부·계획투자부 국장 등 12명이 참석하였



으며, 교육연수 과정에는 IUTD(International Urban Training Center), 서울시 주택본부, 국토해양부 국토정

책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함께 참여하였다.

Nguyen Trong Ninh 건설부 차관은 이 연수를 마친

후 “이 연수는 향후 베트남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주었고, 베트남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국토계획연구소 전문가 대상 ‘국토 및 토지정책 자문과정’ 실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는 2011년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카자흐스탄 내진 건설건축 국토계획연구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토 및 토지정책 자문과정을 실시하였다. GIS 및 지역계획 지적 담당 Artem Gushev 과장과 정보기술 담당 Baurzhan Kaldybayev 과장, 지역계획 프로젝트 담당 Karlygash Muldagaliyeva 등이 참석한 이번 과정은 6월 사공호상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을 포함한 국토연구원 연구진의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논의된 두 기관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 과정은 국토지리정보와 토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 국토 및 지역계획과 신도시계획에 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강의와 기관방문, 현장답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알마



티에서 아스타나로 수도를 옮긴 경험이 있는 카자흐스탄 방문단은 세종시 홍보관과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다.

베트남 고위공무원 대상 ‘도시개발 정책 및 토지 행정정책 자문과정’ 실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1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건설부 도시개발청(Ministry of Construction) 및 토지행정청(General Department of Land Administration)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시개발 정책 및 토지행정정책 자문을 실시했다. 먼저 도시개발 정책 자문은 베트남 건설부 도시개발청 Deputy Director인 Do Viet Chien 등 8인을 대상으로 베트남 도시개발 법규개정에 필요한 정책을 학습하고 도시개발 및 현장을 시찰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베트남 토지행정청장(Acting Director General)인 Phung Van Nghe 등 6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행정정책 자문은 토지정책 및 지적정보화사업 학습 및 국토해양부와 교류협력 확

대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한국의 토지정책과 GIS 정책 등에 대한 강의 참석, 도시개발단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이 진행되었다.

3 교류협력

‘카자흐스탄 국토관련 기관’ 과의 교류협력

국토연구원은 2011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카자흐스탄 과의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기관을 방문하고 ‘아스타나경제포럼(Astana Economic Forum: AEF)’에 참석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

5월 3일에는 국토분야 관련 기관인 카자흐스탄 건설주택청, 토지관리청, 내진건축·건설연구계획실험연구소와 합동회의를 통해 교육연수 파견, 해외전문가 초청, 계획수립, 컨설팅 수행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5월 4일에는 아스타나경제포럼에 참가하여 조진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G20 정상회의와 글로벌 지역발전협력의 변화(G20 Summit and the Change in Global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5월 5일에는 2008년 10월 국토연구원과 MOU를 체결한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ERI)를 방문하여 Zhamila Bopiyeva 원장, Aigul Toxanova 부원장 등을 만나 교육연수 파견, 해외전문가 초빙, 컨설팅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문의 주요 성과로는 카자흐스탄 건설주택청 1인과 내진 건축·건설 연구계획 실험연구소 4인 등 총 5인이 국토연구원에서 6월 10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국토 및 토지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자문을 받기로 했으며, 카자흐스탄 경제연구소는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6주간 연구연수 프로그램에 1~2인 정도의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합의한 점 등이다.

‘우즈베키스탄 국가건축건설위원회·경제부’와의 교류협력

우즈베키스탄의 국토분야 관련기관으로는 국가건축건설위원회(State Committee on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of Republic Uzbekistan)와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Republic of Uzbekistan)가 대표적이다.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1년 5월 6일 2개 기관의 관계자를 만나 센터의 주요 기능인 개도국 공무원 교육·연수, 국토분야 계획수립 및 컨설팅에 대해 소개한 후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건축건설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건축법 26조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주요 도시 구역계에 있는 모든 건설계획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또한 국가건축건설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도시건설 계획수립인데, 향후 4년간 우즈베키스탄 도시 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국가계획에 포함시켰다.

경제부 관계자들은 2010년 4월 서울을 방문했으며,

교통시스템과 도시건설계획 부문에서 배울 점이 상당히 많으며, 특히 경복궁과 인천공항 프로젝트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과의 인연을 중요시했다. 국토연구원은 우즈베키스탄 방문이 처음이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계획이므로 우즈베키스탄 관계자들도 한국을 많이 방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국가 간 협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적 네트워크 구축임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방문의 성과는 양 기관이 글로벌개발협력의 출발점은 교육·연수임을 인식하였다는 것과 우즈베키스탄 국가건축건설위원회와 경제부에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6주 연구연수 프로그램에 1~2인 정도의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4 컨설팅

‘베트남 국토개발’ 논의

국토연구원은 2011년 3월 2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MOC), 베트남건축도시농촌계획연구원(Vietnam Institute for Architecture, Urban and Rural Planning: VIAP), 하노이 건설계획국(Hanoi Construction Planning Bureau), 후에시 도시계획·개발협회(Vietnam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Association: VUPDA), 토지행정청(General Department of Land Administration: GDLA), 하노이건축대학(Hanoi Architectural University: HAU), 도시관리아카데미(Academy for the Management of Cities: AMC) 등 베트남 국토개발 관련 기관과의 미팅을 통해 해외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재무부와는 메콩 델타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의 전문가 파견, 세미나 파견, WB, ABD 등 국제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장기적 펀딩 마련, GGGI 등 국제기구에서 프로젝트 공동 발굴, 메콩델타 지식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상호 논의하였다. 또한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교육연수과정에 재무부 전문가 초청을 희망하였다.

건설부는 한국의 도시개발 및 도시정책에 관해 학습하기 위해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 ‘도시개발정책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주시기를 제안했다. 도시개발 외에 저소득층 주택건설, 전세제도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언급했다.

베트남건축도시농촌계획연구원과는 ‘베트남 도시계

획정보시스템 구축 세미나’ 개최에 대해 사전 조율하였으며, 베트남 측은 UPIS 구축사업을 한국 정부에 ODA 사업으로 제안할 예정이라며 국토연구원에서 이를 지원해주시기를 요청하였다.

하노이 건설계획국은 건설계획국의 업무 중 국토연구원의 기능과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향후 협력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양 기관의 직원 간 인력 교류를 희망하며, 특히 신도시 개발·하천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길 희망했다.

후에시 도시계획·개발협회(VUPDA)는 후(HUE)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 관련 계획 등에 관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를 희망했다. 후에시는 베트남에서 이름 있는 학교가 많은 교육의 도시이며, 역사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한국 도시개발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토지행정청은 토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므로 토지법령안 개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주시기를 요청했다. 토지행정청 전문가들이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교육연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하노이건축대학은 글로벌개발협력센터와 개도국 국립대 간 네트워크 마련을 위한 ‘지식플랫폼 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소개하고, 지식플랫폼 파트너 참여를 요청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베트남의 건설시장 동향과 인프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베트남 정부부처와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등 협의

국토연구원은 2011년 7월 4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건설부 산하 도시개발청(Urban Development

Agency: UDA), 도시관리아카데미(Academy for the Management of Cities: AMC), 토지행정청(General

Department of Land Administration: GDLA)을 방문하여 논의 중인 베트남 공무원 초청연수사업, 도시정보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업무협의를 수행하였으며, 도시 시찰을 통한 베트남 도시화 현황 및 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교류하여 베트남 정부와의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토지행정청은 토지DB구축 및 토지행정법 제정에 관해 국토연구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토지DB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WB, ADB, KOICA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지원방안을 상호 모색하고, 토지행정법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및 국토연구원의 지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도시개발청은 현재 하노이시 도시개발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며, 개발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해 외국회사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도시개

발 관련 법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도시개발과 관련한 법제도 수립 시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연수 및 도시개발 사업추진 분야에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외에 GIS를 활용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WB, ADB 등의 자금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끝으로 국토연구원 방문단은 도시 시찰을 하며 GS건설이 100% 투자하는 사업인 나베 신도시 건설현장과 견터시 교통인프라시설인 견터국제공항, 견터항만, 견터대교 등을 방문하였다.

‘에콰도르 정부부처와 도시개발 프로젝트’ 논의

국토연구원은 2011년 7월 22일 에콰도르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연구원을 소개하고, 고등교육과학기술처(Secretaria Nacional de Education Superior: SENESCYT), 국가개발기획처(Secretaria Nacional de Planificación y Desarrollo: SENPLADES), 도시개발주택부(Ministerio de Desarrollo Urbano y Vivienda del Ecuador: MIDUVI), 사회개발조정기획부(Ministry of Coordination of Social Development)가 최근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고등교육과학기술처는 에콰도르와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단기 프로젝트보다는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원조와 협력이 적극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특히 중점 프로젝트인 지식도시(Yachay City)와 관련하여 자문 및 협력을 기대했다. Yachay City는 키토에서 10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400만㎡ 규모의 과학 기술 도시로, 2011년 8월 현재 마스터플랜 설계가 완료된 상태다. 인프라 구축 이외에 중

은 정주환경을 마련하는 방안에 관하여 기술협조 및 자문을 요청하였다.

에콰도르 도시개발부는 2008년 이후에 토지소유에 관한 법 및 규제 등이 시작되었으며, 이전에는 도시개발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여 외곽지역에 불법주택이 많이 건설되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지역정부, 시정부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연구원과의 협력 및 자문을 요청하였다.

에콰도르 사회개발조정기획부는 2011년 5월에 개최되었던 KOICA 위탁연수 ‘도시 지역개발정책과정’에 참여하였던 Maria Isabel Garcia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사회 이슈를 다루는 여러 기관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연구원과 도시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안전 등 여러 사회 이슈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 국제연수프로그램

2011년 국토연구원은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으로 EPC(I)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 EPC(II) 도시계획 및 정책과정, KOICA 위탁 연수, 아세안국가 물류정책과정 등을 운영하였고, 24개국 64명의 공무원이 참여했다.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은 국토·도시 개발 분야에서 축적한 한국의 경험과 기술 및 정책사례를 개도국 공무원들에게 전수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3~6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자체 및 위탁연수로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강의, 현장학습, 산업시찰, 워크숍, 어드바이저 미팅, 정책보고서 작성, 문화 및 친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성과는 우리나라 최초로 6주간 장기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는 것과 Issue Paper 발표 → 연수(강의, 현장견학, 방문학습 등) → 연구(지도교수) → Reporting(자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 순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주도적 교육연수를 정착시켰다는 점이다.

‘EPC+ 6주 연구연수(1차):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 실시

기간: 2011. 3. 21~4. 30

참가국: 네팔, 몽골, 베트남, 우간다,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참석자

Jantsan Munkhzul(UB시 건축·도시개발 및 계획부 선임전문가, 몽골), Julius Mughuma Masereka(자치행정부 도시공무원, 우간다), Le Thi Khanh(GDLA 전문가, 베트남), Lisa Septiana(교통부 직원, 인도네시아), Munkhtsetseg Gongorjav(지적측량부 선임전문가, 몽골), Nguyen Cong Khoi(AMC 학장, 베트남), Nguyen Huy Duc(GDLA 전문가, 베트남), Nyasha Takawira Mutsindikwa(짐바브웨대 교수, 짐바브웨), Rabi Shah(관광·민간항공부 프로젝트매니저, 네팔), Tran Huyen Tam(베트남 건축연구소 부소장, 베트남)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의 목적은 연수생들이 한국의 도시계획 및 개발 경험을 활용하고, 각 참가국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있다.

연수생들은 본격적인 6주 연수에 들어가기 전 Issue Paper를 발표하여 연수기간 동안 수행할 연구주제를 선정한다. 이후 강의, 현장학습 및 산업시찰을 통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경험하였다. 또한 연수생들은 각 연구주제에 적합한 어드바이저를 개인별로 배정받음으로써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연수생들은 워크숍에서 정책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자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연수과정을 모두 마친 후 수료식에서는 모든 이수자에게 수료증과 교육과정 증명서를 수여하고 우수 정책보고서 작성자에게는 별도의 우수상을 시상하였다.

연수생들을 위한 맞춤형 강의로 국토 및 지역계획, 교통인프라, 도시정책, 도시개발, 농촌개발, 새마을운동, 주택정책, 토지정책, 도시교통, 지리정보체계(GIS), ODA 정책 등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된 15개 강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은 강의를 통해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개발 현장을 견학하고 도시정책에 관련된 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견학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한국의 국토개발 현장과 산업발전의 모습, 한국 전통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2박 3일간의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2회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수생의 자기주도적인 연구연수 과정을 위해 각자 선정한 주제의 연구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원내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미팅을 진행하였다. 총 3회 진행된 어드바이저 미팅을 통해 연수생들은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EPC+ 6주 연구연수(2차): 도시계획 및 정책과정’ 실시

기간: 2011. 6. 22~7. 29

참가국: 몽골, 베트남, 짐바브웨,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이

참석자

Bat Mijiddorj(건설교통도시개발부 공무원, 몽골), Bui Quoc Thang(하노이건축대학교 교수, 베트남), Chawalita Junphuang(공공사업·국토계획부 단지계획과, 타이), Galmandakh Boldbaatar(지적측량부 감정평가사, 몽골), Gamzat Ruziev(국가건축건설위원회 수석전문가, 우즈베키스탄), Nelson Chanza(짐바브웨대 교수, 짐바브웨), Nguyen Thi Ngoc Nga(VIAP 연구원, 베트남), Otabek Amdimalikovich Juraev(경제부 선임전문가, 우즈베키스탄), Visaphone Inthilath(공공사업교통부 부국장, 라오스), Yelena Petrovna Yesmaganbetova(KazRPEIECA RSE 아스타나 사무소 수석전문가, 카자흐스탄)

도시계획 및 정책과정은 연수생들이 한국의 도시계획 및 정책의 경험을 활용하고, 각 참가국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도시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이 과정은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형’ 연구연수로 한국의 국토 및 도시계획에 관련된 정책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6주간 프로그램 중 강의 38%, 당일 현장학습 및 산업시찰 27%, 워크숍 20%, 어드바이저 미팅 및 정책보고서 작성 11%, 문화 및 친교 4%의 비율

로 구성되었다. 연수생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연수 과정 동안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고, 강의와 당일 현장학습 및 산업시찰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지도를 받으며 각국 정책에 맞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연수생들은 원활한 정책보고서 작성을 위해 각 연구주제에 알맞은 어드바이저를 개별적으로 배정받아 정책보고서 작성 시 도움을 받았다. 최종워크숍에서는 정책보고서를 발표하여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자국의 실

정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 정책보고서 작성자에게는 별도로 우수상을 시상하였다.

도시계획 및 정책과정에서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국토 및 지역계획, 녹색국토 및 도시, 주택도시, 국토인프라 및 GIS 분야, 한국의 공적원조, 민간투자 등으로 세분화하여 16개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국토개발 현황 및 도시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계획 사례를 보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2박 3일간 지방 산업시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통·인프라, 수자원관리, 도시 및 농촌생활 등을 경험하였다. 산업시찰의 일환으로 연수생들은 (주)유신, 도화엔지니어링 등 민간기업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이 보유한 국토 및 도시분야 관련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었다.



‘KOICA 위탁연수: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 과정’ 실시

기간: 2011. 5. 16~6. 3

참가국: 요르단, 카자흐스탄, 과테말라, 에콰도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케냐, 부탄, 모로코, 몽골, 네팔

참석자

Ahmad Ali Almomany(주택도시개발공사 정보팀장, 요르단), Bazarbaev Ruslan(아스타나 지역사무소 전문가, 카자흐스탄), Betzaida Elizabeth Revolorio Lopez(대통령비서실 전문가, 과테말라), Boris Mauricio Davalos Villacres(경제사회개발부 지역매니저, 에콰도르), Chivoan Nor(프놈펜시청 공무원, 캄보디아), Dian Okta Yoshinta(내무부 직원, 인도네시아), Joseph Okoio Okoio(Dev유역공사 지역계획매니저, 케냐), Kadyrbek Namazbayev(ERI 전문가, 카자흐스탄), Maria Isabel Garcia(사회개발조정부 주택정책분석가, 에콰도르), Minjur Doji(팀푸시 사무국장, 부탄), Sanaa Hammouzou(주택도시지역계획부 사무관, 모로코), Sotha Meang(토지관리도시계획부 수석책임자, 캄보디아), Usanbolor Enkhsaikhan(건설교통도시개발부 공무원, 몽골), Tapendra Bahadur Khadka(도시개발건축부 부장, 네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은 연수생들이 한국의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의 경험을 활용하고, 각 참가국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보

다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3주간의 프로그램은 강의 33%, 당일 현장학습 및 산업시찰 33%, 워크

습 6%, 어드바이저 미팅 및 정책보고서 작성 15%, 문화 및 친교 10%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수생들은 KOCIA에서 진행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한국문화와 한국의 발전경험을 소개받았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연수과정에 대한 소개와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았다. 강의와 현장견학 학습, 어드바이저 미팅을 통해 각자 선정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원내에서 배정된 어드바이저들의 연구지도를 받아 각국의 정책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 정책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어드바이저 미팅은 공식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공식적인 어드바이저 미팅 시간 이외에도 연수생들은 각자의 어드바이저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자료, 조언 등을 구했다. 어드바이저 배정은 연수생들의 Country Report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원 내 해당 주제 전문가 섭외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수생 모두에게 어드바이저가 배정되어 각자의 연구보고서(Planning & Policy Report)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모두가 만족하였다.

정책보고서 작성 후 Country Report 및 Planning & Policy Report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Country Report는 연수 교육과정과 관련된 국가현황들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미하며, Planning & Policy Report는 단순 국가현황 보고가 아닌 Country Report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혹은 정책 제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의미한다. Country Report는 연수 초기에 발표하여 어드바이저 미팅 및 개별연구를 통해 Planning & Policy Report로 발전시켜 최종 결과물로 제출하였다. 연수생

들은 Planning & Policy Report 발표 워크숍을 통해 어드바이저뿐 아니라 연구원 내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본국 귀국 후 지속적인 연구보고서 수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연수과정을 모두 마친 후 수료식에서는 모든 이수자에게 수료증과 교육과정 증명서를 수료하고 우수 연구보고서 작성자에게는 별도의 우수상을 시상하였다.

강의는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인프라, 녹색도시, 주택·토지정책, GIS, 한국의 공적원조 등으로 세분화하여 9개를 진행하였다. 또한 강의를 통해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개발 현장을 견학하고 도시정책에 관련된 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견학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 한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의 현장, 산업발전의 모습, 한국 전통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2박 3일 간의 지방시찰 프로그램을 2회 실시하였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 물류정책과정’ 실시

기간: 2011. 11. 1~11. 11

참가국: ASEAN 회원국 8개국

참석자

Caroline Pamilar Mangali(교통통신부 사무관, 필리핀), Dion Syaifudin(교통부 과장, 인도네시아), Ha Minh Nguyen(교통부 공무원, 베트남), Haji Khairul Zaman HJ Abdul Jalil(항무부 공무원, 브루나이), Kong Sopha(공공사업교통부 부국장, 캄보디아), Megasari Widyaty(ASEAN 사무국 선임관리자, 인도네시아), Nik Massidee Nik Harun(교통부 공무원, 말레이시아), Noor Aishah KarmSaarzman(교통부 비서, 말레이시아), Sotevind Vasim(공공사업교통부 부국장, 캄보디아), Siti Nur Fadlillah Almunawaroh(교통부 직원, 인도네시아), SoukKhongthong Voraphet(공공사업교통부 항공공무원, 라오스), Roberto Cedeño Aquino(필리핀 항만공사 매니저, 필리핀), Sasiwimon Chainarong(교통정책계획부 정책분석가, 태), Truong Hong Nguyen(교통부 전문가, 베트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 물류정책과정은 ASEAN 회원국의 물류정책 실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물류정책 및 산업, 인프라 등에 대해 학습하고 각국별 물류정책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과정은 강의, 현장학습 및 산업시찰, 워크숍, 문화 및 친교 등으로 구성되었다. 강의는 물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물류정책 및 법제도, 녹색물류정책, 물류시스템, 물류 인프라(육상, 철도, 해운, 항공) 등으로 세분화하여 총 9개가 진행하였다. 14명의 연수생들은 연수기간 동안 물류관련 강의, 현장학습 및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의 물류정책 및 산업, 인프라 등을 이해하였다. 최종워크숍에서는 연수생 전원이 연구 제안서를 발표하며 각국의 물류정책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연구원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 및 한국역사·문화 강의를 준비하고 연수기간동안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연수생들 또한 모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종 워크숍은 연수생들이 연수기간 동안 작성한 연구 제안서를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의 첫 번째 세션은 ‘통합 물류 및 물류 가격문제 해결과 지능형 운송

시스템(Integrated Logistics, Solving Cost Problems of Logistics, and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두 번째 세션은 ‘물류 인프라 및 정책(Logistics Infrastructure and Policy)’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교육 과정은 강의를 통해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물류정책 및 물류산업 인프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당일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1박 2일간의 부산·울산 지방 산업시찰을 통해 물류인프라 및 산업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학습 및 산업시찰은 해당기관의 브리핑 형식의 프레젠테이션이 먼저 진행되고 연수생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관련시설을 시찰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IDB – KSP ICT를 활용한 중남미 신항도시 개발전략 수립과정’ 실시

기간: 2011. 12. 1~12. 6

참가국: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참석자

Jonatahans Ortiz Estrada(산타아나 IT전문가, 엘살바도르), Juan Jose Prada(몬테비데오 IT부장, 우루과이), Marcia Casseb(IDB 환경/도시개발전문가, 브라질), Maria Urruzola(몬테비데오 홍보부장, 우루과이), Mauricio Bouskela(IDB ICT선임전문가, 브라질), Nancy Moreno Mora(IDB ICT전문가, 콜롬비아), Nelcivone Soares de Melo(고이아니아 AMTEC 위원장, 브라질), Sergio Kafuri(고이아니아 AMTEC 기술개발혁신부장, 브라질), Walter E. Aguilar(산타아나 IT전문가, 엘살바도르)

국토연구원은 한국의 ICT 연수를 통해 참가국의 ICT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IDB-KSP ICT를 활용한 중남미 신항도시 개발전략 수립과정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은 ‘IDB-KSP ICT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신항도시 플랫폼 설계 및 시행사업-중남미 3개 도시의 ICT 현황조사 및 분석보고서 작성 컨설팅 용역’의 일환으로 중남미 3개 도시 산타아나(엘살바도르), 몬테비데오(우루과이), 고이아니아(브라질)의 ICT 관련 지방 공무원 및 IDB의 프로젝트 담당자 등 총 9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의 ICT정책 관련 강의, 관련 기관 방문, 워크숍, 한국문화체험 등을 실시한 연수프로그램이다.

주요 강의 주제는 한국의 ICT 인프라, 전자정부, U-City, NGIS, ITS 등으로, 한국의 ICT정책 및 ICT 기술 적용 사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총 5개 강의가 실시하였다. 또한 연수생들이 강의와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전반적인 ICT 현황 및 정보화 발전양상

을 파악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기관방문과 더불어 총 2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2011년 12월 8일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개최된 최종 보고 발표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1차 워크숍은 12월 3일 ‘3개 도시의 ICT 진단 및 권고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 프리마호텔에서 진행되었으며, 2차 워크숍은 12월 6일 국토연구원에서 ‘3개 도시의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베트남 고위공무원 교통인프라 정책개발과정’ 실시

기간: 2011. 1. 16~1. 25

참가국: 베트남

참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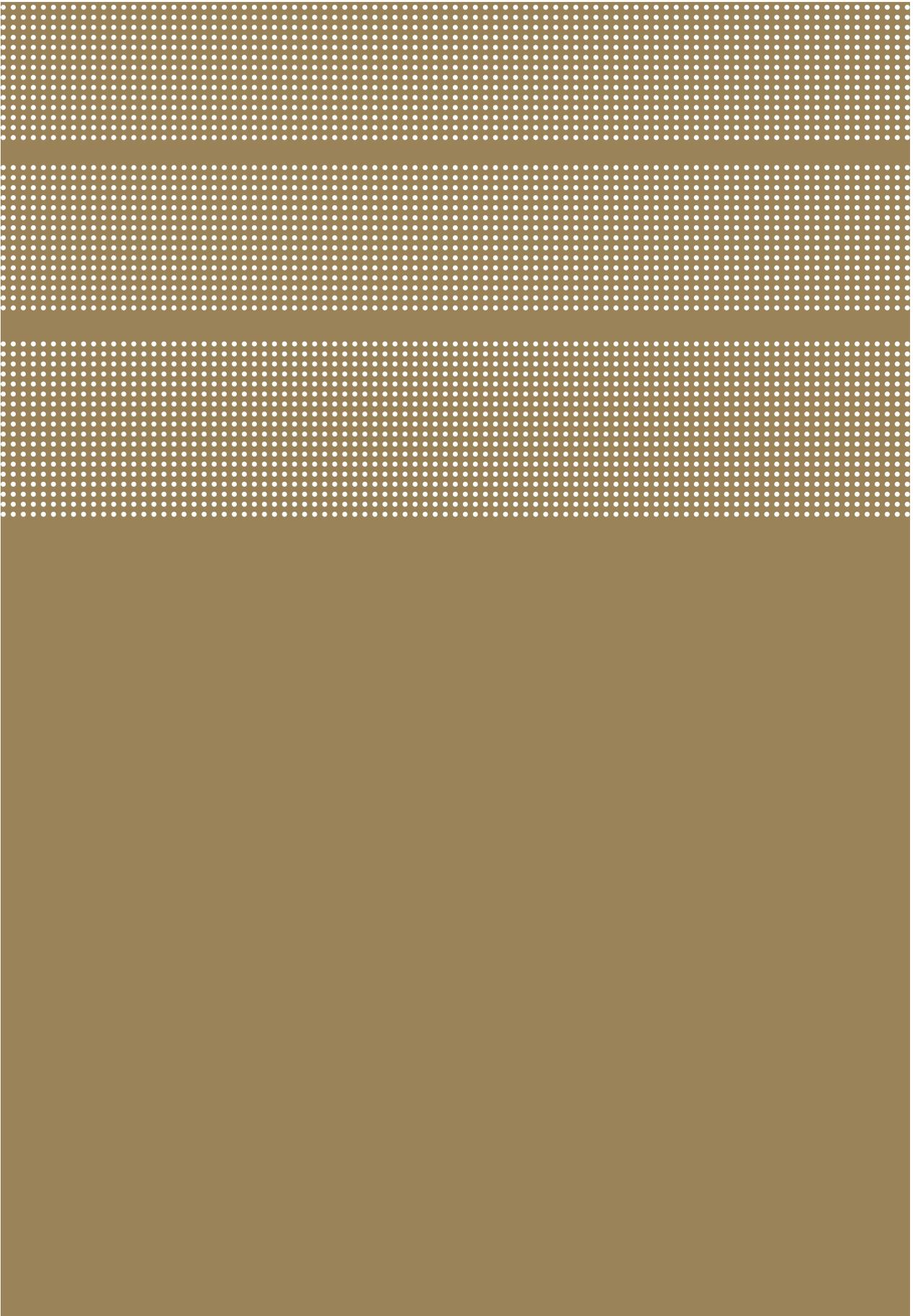
Nguyen Huu Chi(재무부 차관), Nguyen Tan Thinh(재무부 공공자산관리국 부국장), Nguyen Thi Thoa(재무부 공공자산관리국 과장), Lai Thi Mai Tuyet(재무부 공공자산관리국 부과장), Chu Thi Thuy Chung(재무부 공공자산관리국 부과장), Pham Thi Tuyet(재무부 공공자산관리국 전문가), Nguyen Thi Loan(재무부 전문가), Doan Canh Hoang(교통부 전문가)

국토연구원은 한국의 선진화된 교통인프라사업의 시행 및 이용정책 개발 경험을 교육하고자 베트남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교통인프라 정책개발과정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기관방문, 강의,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8명의 방문단은 연수기간 동안 한국의 교통인프라 건설정책을 청취하고, 교통인프라시설 건설 및 운영현장을 방문하였다. 특히 한국의 선진화된 교통인프라사업의 시행 및 이용정책 개발 경험을 학습함으로써 베트남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한국의 토지정책, 도로·철도 등 SOC 정책, 자산관리,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녹색성장, 공적개발원조(ODA) 등 총 8개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강의를 통해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선진화된 교통인프라시설 건설 및 운영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베트남 방문단의 주된 토론의제는 교통인프라 구축·운영·관리에 대한 정부·공공·민간투자의 사업 정책방향과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베트남 공산당은 교육·인프라·재정쇄신을 3가지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수를 통해 인프라와 재정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또한 방문단은 한국공기업과 민간기업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베트남 진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하였다.





NEWS

Annals

REPORT

Chapter

IV

연구지원활동

1. 연구지원활동	132
2. 연구관련 주요 행사 · 교육 개최	143

1. 연구지원활동

‘JiQ(Just in Quality)를 위한 2011년 본부별 활동계획 연찬회’ 개최



국토연구원 경영전략센터는 2011년 1월 13일 3층 중회의실에서 ‘JiQ(Just in Quality)를 위한 2011년 본부별 활동계획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찬회는 본부별로 ‘국토분야의 여건변화와 과제’에 대한 내부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고객만족의 정책연구상품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하였으며, 각 본부별 소속원이 모두 참석하였다.

연찬회는 ‘고객만족의 정책연구상품 개발’을 위해 그동안의 JiD(Just in Demand), JiP(Just in Place), JiT(Just in Time)에서 진일보한 JiQ(Just in Quality)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박양호 원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국토연구원이 고객과의 한층 더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핵심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2011년 국토연구원 연찬회’ 개최

2011년 국토연구원 연찬회가 흥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진행되었다.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연찬회는 ‘고객만족의 원년’을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개최하였다. 이 연찬회는 2011년 4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개최되었는데, 7일에는 건강전략 특강, 슈퍼스타-KRIHS대회가, 8일에는 자연환경연구공원 자연관찰구역 견학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건강100세를 위한 건강전략’을 주제로 한 건강전략



특강에서 백유진 한림대학교 교수는 “잠자기 전 1~2시간 전에는 절대 먹지 말고,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라”라고 강조하여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어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열린 슈퍼스타-KRIHS대회에서는 각 본부별로 선발된 직원들이 빼어난 노래와 댄스실력을 선보여 많은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일부 직원들은 의상까지 준비하여 흥겨운 분위기를 돋웠고, 국토연구원의 박양호 원장 등은 게스트로 출연하여 직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다음 날인 8일에는 자연환경연구공무원 자연관찰구역

견학이 진행되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환경과 생태계의 종합적·체계적인 이해도모와 환경연구, 교육, 차세대에 대한 생활체험의 교육장으로 조성한 곳으로, 직원들은 견학을 통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박양호 원장은 “이번 연찬회가 전 직원이 단합하여 ‘ONE KRIHS’를 만들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좋은 직장문화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양시-국토연구원’ 공간정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와 안양시는 2011년 4월 12일 안양시청에서 공간정보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양시-국토연구원 공간정보협약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차세대 디지털 통합공간 구축 실험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물 이관을 포함하여 공간정보 및 u-City 사업에 대한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를 위해 거행된 것으로, 사업내용 브리핑 및 안양예술공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 시연을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장과 최대호 안양시장의 상호협력 협약에 따라 IT기술을 접목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내서비스가 안양의 대표적인 휴양시설인 안양예술공원에 처음 적용된다. 즉, 안양시 예술공원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APAP(Anyang Public Art Project,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 테마별 추천 경로를 안내받아 작품관람이 한층 편리해지며 식당의 위치 확인 및 전화연결을 쉽게 이용할 수 있



게 된다. 안양시는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구축 실험사업’의 성과물에 변동자료 수정 등 갱신을 위한 관리자페이지를 개발하고 시에서 구축한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오는 7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안양 각 지역에 대해서도 점진적 서비스 확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1회 전국 중학생 국토올림피아드 대회’ 시상식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1년 4월 30일 서울대학교 SK 경영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사단법인 국토지리학회, 국토연구

원, 사단법인 국토교육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전국 중학생 국토올림피아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국토올림픽아드는 전국 중학생의 지리적 안목 육성을 통한 종합적 사고력과 창의력 함양,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다른 나라와의 상호 협력태도 및 국토에 대한 친근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011년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2011년 국토올림픽아드 대회는 전국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지역대회 참가 신청을 접수한 후 3월 26일 지역별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후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149명(동상 이상 수상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 9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국토올림픽아드 전국대회를 실시하였다. 시험 문제는 중학교 국토지리 교육과정 내용과 최근 시사적 내용을 중심으로 응시자들의 문제해결 능력, 사고력 및 창의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출제되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국토지리학회, EBS, 국토교육협의회, 전국지리교사연합회, 기타 국토올림픽아드 관계자 20여 명, 수상자 45명이 참석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박양호 원장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토 교육과 애국심, 미래국토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입상자들을 축하하였다.

시상식은 학생 부문과 교사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학생 부문은 인천 재능중학교의 김준준 학생이 대상인 국토지리학회장상을 수상했고, 금상 3명이 각각 국



토연구원장상, 국토지리학회장상, 한국교육방송공사장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은상 10명과 국토교육협의회 이사장상인 동상 19명이 선정되었다. 교사 부문에서는 조철민 인천 재능중학교 교사가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이동영 서울 가원중학교 교사를 비롯한 10명이 각각 국토연구원장상, 국토지리학회장상, 한국교육방송공사장상을 수상하였다.

국토연구원장상은 학생 부문에서 서울 마포중학교의 박성준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교사 부문에서는 안민호 서울 마포중학교 교사, 손은영 화성 기산중학교 교사, 홍근태 인천 인하시대부중학교 교사 등 3명이 수상하였다.

앞으로도 전국 중학생 국토올림픽아드는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통한 국토와 지리분야의 대중화와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차세대 국토 및 지리 인재 육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자랑스런 KRIHS인 시상식’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1년 5월 23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11년 자랑스런 KRIHS인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자랑스런 KRIHS인 시상식은 창조적 연구를 선도하고, 관련 정책연구의 성과를 창출·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한 연구과제와 KRIHS인을 선정하고 시상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2011년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연구상 3개 과제, 우수연구상 13개 과제, 아름다운 보고서상 4개 과제, 우수 해외출장보고서 13편에 대한 시상과 함



게 2010년 처음 제정되어 시행 중인 KRIHS 브랜드 대상, KRIHS 자원봉사 대상에 대한 시상이 거행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자랑스런

KRIHS인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창조적이고 우수한 정책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우수보고서 및 아름다운 보고서 수상자 명단

포상	과제명	책임자	연구진
최우수 (기본)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공간 활용도 제고 방안	임은선	이원섭, 이미영
	주택정책과 교통정책 연계성 강화 방안	정일호	강미나, 이백진, 김혜란, 서민호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 연구(II)	채미옥	구형수, 안영아
우수 (기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 계획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협동연구)	차미숙	김태환, 김창현, 손동글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III)	이수욱	지대식, 박천규, 김승중, 김재환, 유현지, 이현지, 전성제, 최정임, 황관석
	산줄기·물줄기를 고려한 산지구분 및 합리적 관리방향 연구	손학기	정희남, 최수
	저탄소 녹색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	김명수	정석희, 김상조, 박정은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구축방안 연구(II)(협동연구)	심우배	김걸, 지승희
우수 (수시)	임대전용산업용지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장철순	-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시설기준 보완연구	김은란	-
	국토지식샘 구축계획수립 연구	최병남	강혜경, 손학기, 한선희
우수 (수탁)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수립 연구	박형서	채미옥, 류재영, 민범식, 권영섭, 김창현, 김근용, 이왕건, 차미숙, 박태선, 김동주, 이승복, 임영태, 김종학, 조진철, 심우배, 박경현, 김명수, 윤영모, 전성제, 박정은, 구민상, 박지현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역 기본구상 수립 연구	김태환	김광익, 김종원, 이왕건, 김호정, 이동우, 윤영모, 손준형, 이수암
	국가표준 기후변화시나리오 활용방안 연구: 연안도시 대응방안 연구	심우배	김명수, 지승희, 한우석
	공공토지 비축을 위한 계획 수립 연구	지대식	최혁재, 이수욱, 조판기, 김승중, 박천규, 김선지, 이현지, 이기영, 조은경
	토지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연구	정희남	김승중, 손학기, 김선지, 강미영, 신선아
	새만금지역 광역연계교통체계구축 계획수립 연구	오성호	정진규, 이백진, 박종일, 박준서, 구민상

포상	과제명	책임자	연구진
아름다운 보고서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I)	김동주	김현식, 구정은, 강민규, 최인혜
	국토대예측(II)	이용우	김선희, 변세일, 박정호, 임지영, 이지원, 박고운, 신예지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정윤희	이진희, 박근현, 김범진
	한국의 도시·마을만들기: 창조적 도시재생시리즈 11	이왕건	조전형, 류태희, 서관호, 주희선, 구흥미, 이유리, 이종화

‘국토연구원 - 인천발전연구원’ 업무협약

국토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은 2011년 6월 1일 박양호 국토연구원장과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주재로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국토연구원-인천발전연구원 간 연구교류협약식과 도시재생전략을 주제로 한 국토정책 지식공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연구교류 협약을 통하여 국토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은 활발한 연구지식 교류를 공식 선언하였다. 특히 이 협약식에서는 도시재생전략을 주제로 국토정책 지식공유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천시의 도시재생 현안과 주요 도시의 도시재생현황 및 당면과제를 논의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전략센터장과 기윤환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이 각각 도시균형발전과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좌장을 맡은 민범식 국토연



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장을 중심으로 김용하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본부장, 김경배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최동일 인천도시개발공사 건축사업본부장, 김상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세계은행 - 국토연구원 도시화지식플랫폼(UKP)’ 협약 체결

국토연구원은 2011년 7월 1일 국토연구원 G20 Hall에서 도시화지식플랫폼(Urbanization Knowledge Platform: UKP) 협약을 체결하였다. 박양호 국토연구원장과 Abha Joshi-Ghani 세계은행 도시개발 매니저(Sector Manager, Urban Development, World Bank)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공동연구, UKP 활동, 지식교류 활동, 기술 자문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정주환

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돕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국토연구원은 UKP 동아시아지역의 허브기관으로 활동하며, 동아시아 세계은행 실무진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도시화지식플랫폼(UKP)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계획가와 정부 관계자, 학자, 민간기업 등 도시화 관련 지식 공유가 주목적이다. UKP 활

동을 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World Bank, CISCO, McKinsey& Company, PENN Institute for Urban Research, USAID, FEDESARROLLO, DUSPMIT, iihs, Cities Alliance, Brookings Institution, CSR: North-West 등이 있다.



제20회 도로의 날 기념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장’ 수상

국토해양부는 2011년 7월 7일 제20회 ‘도로의 날’을 맞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도로교통 관계자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기념식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우수연구기관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이어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도로’라는 주제로 정일호 기획경영본부장이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기념식에서는 도로사진 전시회, 도로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토론회도 함께 개최되었다.

권도엽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부족한 자본과 기술력의 한계, 사회 각계의 우려와 반대를 극복하고 건설된 경부고속도로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음을 상기하면서,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역경을 극복한 도로교통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나라 도로가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 오늘날 세계 선진국들은 도로를 친환경, 첨단 녹색교통체계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정부도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는 ITS 확충, 첨단기술 개발 R&D 투자 확대 등 녹색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의 날’은 1992년부터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년)인 7월 7일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로, 2011년 기념행사는 환경·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국내의 여건에 따라 도로교통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로 치러졌다.

‘올해의 자원봉사 거버넌스상’ 수상

국토연구원이 참여하는 안양시 기업연대사회공헌팀이 2011년 7월 21일 제18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에서 울

해의 자원봉사 거버넌스상을 수상하였다. 전국자원봉사대축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나눔봉사 행사이며, 개인·

가족·단체·기업·학교 등 단위로 전국에서 매년 100만 명이상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실천 한마당 행사다. 이번 행사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하여 전국의 자치단체와 기업, 민간단체, 개인, 가족 등 1,235팀이 참여했다.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처’ 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1년 7월 29일 국토연구원 4층 ECOL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처와 업무협약 체결식(MOU)을 개최하였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개발 협력사업과 해외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MOU는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상호 합의하여 갱신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협력내용 및 범위는 크게 5개 분야로 ① 개발도상국 등의 주택·도시개발분야 지식교류 활동, ② 개발도상국 등 해외 관계자 교육·훈련·컨설팅 수행, ③ 공적개발원조(ODA) 및 해외사업의 기획·발굴·수주·추진 협조, ④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인적정보 등 공유, ⑤ 상대기관 간행물 등 미디어 정보의 활용 등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국토연구원 사공호상 글로벌개발협



력센터 소장, 조진철 연구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황기현 해외사업처장, 구명준 부장, 류경수 차장, 여준구 과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연구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은 2011년 8월 4일 오전 11시, 국토연구원 4층 ECOL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 및 도시개발의 글로벌 지식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MOU)을 개최하였다.

MOU의 주요한 협력내용은 첫째,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실시하는 국토 및 도시개발에 관한

글로벌 지식교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①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글로벌 지식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② 해외 전문가 DB, 학술정보 등 각종 정보의 제공, ③ 글로벌 지식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발전 등이 포함된다.

둘째, 양 기관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 및 도시개발 분야의 지식공유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①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구성, ② 교육 콘텐츠 개발, ③ 교육강사 및 현장 학습 프로그램의 구성 등이 포함된다.

셋째, 도시 및 지역개발 관련 국제프로젝트의 발굴, 수주 및 수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박양호 원장, 유재운 선임연구위원, 김동주 본부장, 류재영 선임연구위원, 사공호상 소장, 조진철 연구위원이 참석했으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는 허재완 학회장, 김찬호 중앙대학교 교수,



김성현 국장 등이 참석하여 MOU 체결을 축하하였다.

국내 첫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발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서는 2011년 8월 18일 국내 최초로 전국 및 지역별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발표하였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11년 7월 12일 국가통계로 승인받은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조사'를 지수화한 것이다. 이 지수는 전국 일반가구 6,400가구(분기별)와 부동산중개업소 2,240개소(월별)에 전화를 걸어 조사하는 방식이며, 조사항목은 주택 및 토지 매도·매

수 동향, 주택 임차·임대 동향, 주택 및 토지 매매가격 동향, 주택 및 토지거래 동향 등 16개에 이른다. 지수는 0~200까지이며 95~115는 보합, 95 미만은 하강, 115 이상은 상승 국면을 나타낸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앞으로 매월 10일경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is.re.kr)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개원33주년 기념식' 개최

국토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식이 2011년 9월 29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1부 기념행사에서는 장기근속직원 포상과 특별강연, 국토연구원 크리스타 합창단 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포상을 받은 장기근속직원은 김동주 국토계획본부장, 전준호 연구지원센터장, 김경동 행정관리센터장, 이판식 총무관리팀장, 장인용 기획예산팀장(20년 근속)과 정진규 연구위원, 김종학 책임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10년 근속)이다. 장기근속직원 포상에 이어 미래기획위원회 박승준 위원장의 '스마트혁신과 산업생태계'

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실리콘밸리와 대한민국 생태계가 경쟁하는 시대이지 개별 기업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산업생태계 간의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강연 이후 크리스타 합창단은 'You Raise Me Up',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널 사랑하겠어', '넌과 함께' 등을 선보여 직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박수를 받았다.

II부 리셉션에서는 전·현직 임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박양호 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토연구원이 지난 33년간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전·현직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국토정책 연구를 선

도하는 Think & Act Tank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국토연구원 전 직원 추계체육대회’ 개최

2011년 11월 3일 국토연구원에서는 전 직원 추계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오전 9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안양 중앙공원에서 열린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발야구, 축구, 단체줄넘기, 굴렁쇠 굴리기, 600m 계주, 마라톤(1.5km)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굴렁쇠 굴리기는 각 부서별로 팀을 구성하여 200m 릴레이 경기를 펼쳤는데, 흔히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닌만큼 직접 경기에 임하는 선수와 응원하는 관중들의 긴장감을 자아내며 높은 인기를 누렸다.

손경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체육대회의 취지는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으로 행복한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뒤 “하루 중 많은 시



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만큼 직원 간 화합은 사기진작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16회 전국 초등학교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

국토연구원은 소년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지리학회가 후원하는 ‘제16회 전국 초등학교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2011년 11월 13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한만희 국토해양부 제1차관, 문현식 소년한국일보사장, 권용우 국토지리학회 고문, 전병호 안성보개초등학교장 등 대회 관계자와 어린이, 지도교사, 학부모 등 200여 명의 내외

빈이 참석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상인 개인 대상은 익산 이리모현초등학교 3학년 이수빈 어린이가 수상하였다. ‘시골집’이라는 제목의 글은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 게 개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어린이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짜임새도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도교사 대상 수상자는 글쓰기를 통해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도해온 익산 이리모현초등학교 이현옥 교사가 선정됐다. 단체상으로는 광명 철산초등학교, 서울 언북초등학교, 창원 호계초등학교, 포항 두호남부초등학교, 광주 일동초등학교 등 5개 학교가 선정되었다. 단체상을 수상한 학교는 국토탐방의 참여 기회를 얻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미래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국



토의 가치를 알리고자 1996년부터 매년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해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1만 2,110명의 어린이가 응모하였다.

‘국토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과 서울시립대학교는 2011년 11월 25일 11시 서울시립대학교 본관 7층 회의실에서 연구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 및 유재윤 선임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이진 총장 및 박경완 연구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토연구원과 서울시립대학교는 이 협약을 통해 상호 교류 및 협력강화, 국토 관련 공동연구, 인적자원 교류 등 공동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제10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2011년으로 10회를 맞이한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이 12월 27일 국토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2011년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4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국토정책 활용성, 연구내용의 창의성, 연

구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논문 1편과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였는데, 최우수논문으로는 “주택거래량은 주택가격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임재만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부교수), 우수논문으

로는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추정을 통한 지역성장 분석”(강상목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조상규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수료)과 “토지이용-교통 통합 모형 구축 및 계획 간 정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유선철 안양대학교 수도권발전연구소 연구원, 조규영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왕광익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가 선정되었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심사와 논의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구분	논문 제목	연구자	시상 내역
최우수상	주택거래량은 주택가격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	•임재만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부교수	상금 200만 원, 상패
우수상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추정을 통한 지역성장분석	•강상목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조상규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수료	상금 100만 원, 상패
	토지이용-교통 통합모형 구축 및 계획 간 정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유선철 안양대학교 수도권발전연구소 연구원 •조규영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왕광익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2011년 공공기관 청렴도 1위’ 달성

국토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출자·출연·보조기관 부문에서 종합 청렴도 1위를 달성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로 구분해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으며, 국토연구원은 출자출연 보조기관 41곳과 함께 청렴도 추정을 받아 출자·출연·보조기관 유형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I등급 내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내부 구성원들이 매긴 점수인 내부청렴도와 외부고객 대상의 외부청렴도를 각각 측정해 종합 청렴도로 집계하여 발표한다.

국토연구원은 10점 만점이 기준인 종합청렴도에서 9.03점을 받았으며, 이는 출자·출연·보조기관 부문의 평균인 8.69~8.86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직원들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이번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청렴도 1위’ 공공기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연구관련 주요 행사 · 교육 개최

1 워크숍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첨단교통(ITS)표준연구단 2011년도 제1차 총괄 워크숍	1.5~6	강촌리조트	연구역량 강화 및 ITS 기반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에 관한 브레인스토밍
2011년도 국토인프라 · GIS분야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본부 미니 워크숍	1.10	10층 중회의실	2011년도 도로 · 교통 · 물류 · GIS · ITS, 국토정책시물레이션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 대응 및 협력방안 토의
수도권 광역인프라의 실태분석 및 확충전략 연구 워크숍	1.20	블루몬테	주요 연구내용 및 이슈 발제 논의
2011년 북한 동북아 연구과제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진 공동 워크숍	1.18	6층 회의실	북한 동북아 분야의 연구과제 세부 추진계획 논의
도시재생지원사업단 워크숍	1.20 ~21	설악 한화리조트	2011년도 도시재생지원사업단 사업추진 계획 및 방안 논의
U-City법제도 및 지원정책(4차연도) 제1차 워크숍	1.26	노보텔엠베서더	연구 진행사항 점검 및 4차연도 사업단 자체평가 추진계획 협의
중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연구(I) 워크숍	1.26	3층 세미나실	중전부동산 지구별 현황 및 수요분석, 기능도출에 대한 검토 및 토의
지역개발의 통합지원 법안 워크숍	1.28 ~29	용인 한화리조트	법률안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과제의 JiQ를 위한 KOPSS 방법론 원내 워크숍	2.8	10층 중회의실	KOPSS 개요 및 지역계획지원모형, 도시기반시설계획지원모형, 토지이용계획지원모형, 도시정비계획지원모형, 경관계획지원모형 소개
부동산정책 워크숍	2.14(1차) 4.6(2차) 6.14(3차)	3층 중회의실(1차) 10층 중회의실(2차) 9층 회의실(3차)	전월세시장 동향과 정책방향 발표 및 토론(1차),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발제 및 토론(2차), 청년층 주거안정 방안 및 하반기 전월세 시장 전망(3차)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도로부문) 개선방안 연구 워크숍	2.18	10층 중회의실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의 현황 및 문제점, 해외 투자평가지침 사례연구 발표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산학연계 공동 워크숍	2.18	서울시립대	공간정보산업동향 변화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한 특화전략 및 성과 발표
2011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전부개정을 위한 워크숍	2.17~18	국토해양부	전부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례 DB 갱신에 대한 논의
차세대 국토해양공간정보 기술 기획 워크숍	2.21~22 (1차) 3.25~26 (2차)	용인 양지펜션(1차), 대부도 벤자민(2차)	차세대 국토해양공간정보 기술 기획 주요 과제 도출 및 1단계 평가를 위한 보고서 검토(1차), 기술개발전략 재수립 및 후보과제 우선순위 도출(2차)
공간정보사업 평가 및 관리시스템 운용 워크숍	2.22	통계교육원	공간정보사업 평가 방향 및 사전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2011년 제1차 공동 도시정책포럼 워크숍	2.24	10층 중회의실	도시계획, 관리제도 개선방안 모색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4차연도) 워크숍	2.24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	U-Eco City 사업단 자체평가를 대비하여 과제 진행상황 및 성과 점검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U-City 동향분석 및 미래공간기술 발전전략 연구 워크숍	2.25	블루몬테	U-City 주요 이슈 도출 및 U-Eco City 사업단 자체평가를 위한 연구결과보고서 검토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연구 워크숍	3.4	부산 한화리조트	낙동강 살리기 현장답사 및 연구 추진상황 점검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전략연구 워크숍	3.10	제주KAL호텔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의 DB 구축과 활용, 해외사례 소개, 공원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및 방향에 관한 지자체 공무원 설명회 및 종합토론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취약성 분석과 적응방안 - 국토민감성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진 워크숍	3.15	블루몬테	연구방향 설정 및 착수보고자료 작성
건강장수도시 만들기 제1차 워크숍	3.18	3층 중회의실	100세 시대 대비 '건강장수도시 만들기' 지식공유 및 시사점 도출
접경권 초광역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 산업 육성방안 협동연구진 워크숍	3.23	7층 회의실	접경지역 지역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논의
첨단 무탄소 도시 조성기술 기획연구	3. 23	고려대	1단계 보고서 보완, 중점분야별 세부과제 검토, 2단계 연구 일정 및 수행내용 확인
2011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교육워크숍	3.29~30 (1차) 4.5~6(2차) 6.24(3차)	국토해양부 (1차, 2차) 강당(3차)	지자체 업무담당자 실무교육 및 효율적 정보관리 방안 논의 (1차, 2차), LURIS의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지형도면고시 활성화 방안 논의(3차)
산업입지제도 개선연구 합동 워크숍	3.31	블루몬테	대행개발을 통한 원형지 공급방안 및 지원시설 용지 공급 기준 등 논의
시화지구 장기발전방향 수립연구 워크숍	4.15(1차) 5.30(2차)	블루몬테(1차) 7층 회의실(2차)	연구성과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1차), 연구진행상황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협의(2차)
2011년 국가공간정보 총괄조정사업 전문검토단 워크숍	4.22	3층 소회의실	국가공간정보 총괄조정사업 전문검토단 중점 검토사항 논의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진 워크숍	4.26	블루몬테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조사자료 검토 및 2011년 주거실태조사 설문지 세부항목 검토
한국과 태국의 인프라개발에 대한 비교평가분석 사업 연구진 워크숍	5.11	8층 회의실	연구내용, 분석방법, 일정계획 논의
도시재생에 관한 융복합 연구 워크숍	5.12~13	수안보 한화리조트	공정사회에 대응한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융복합적 도시재생방안에 대한 논의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II) 워크숍	5.13(1차) 12.21(2차)	서울대	도시권 협력모델 및 제도 개선방안 논의와 4개 지방대도시권 간담회 개최 준비(1차), 최종 원고 검토 및 보완사항 등 논의(2차)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다양화를 위한 디자인체계개선 및 시범사업추진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및 워크숍	5.13	건도연 7층 대회의실	중간보고 및 보금자리주택 관련 주체 의견청취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건축 관련 개발제도 개선연구 워크숍	5.19~20	대구경북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도시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변화에 따른 현행 도시 관련 관리 및 개발제도들의 한계를 분석하고 제도개선방안 마련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지역개발업무 광역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5.24	10층 회의실	신발전지역 업무 추진방안 및 통합 지역개발계획 주요내용 논의
2011년도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워크숍	5.26~27	천안 상록리조트	산업입지정보망을 통한 산업단지 정보관리의 활용성 향상 및 관련 지식 공유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워크숍	5.23~24	홍천 비발디파크	2010년 주거실태조사 업무보고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건축 관련 개발제도 개선연구 워크숍	5.24~25	전북발전연구원·전남발전연구원	용도지역지구제의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문제점 도출
문화국토전략센터 현지 워크숍	5.26	서울성곽 및 삼청동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유적 보존 및 한옥관리 사례 탐방
G20시대의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과 시장진출 전략 워크숍	5.27(1차) 10.7(2차)	9층 회의실 (1차, 2차)	연구진행 결과 발표 및 토론(1차), 외부 위탁과제 최종 결과 발표 및 논의(2차)
국토연구원-인천발전연구원 연구교류 협약식 및 국토정책 지식공유 워크숍	6.1	인천 하버파크호텔	도시재생 사업 현황과 지역의 사회적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전략에 대한 발표 및 토론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방안 연구 연구진 워크숍	6.2	한국법제연구원	중간연구결과 검토 및 원내외 연구진 의견 수렴
도로정책연구센터 및 첨단교통(ITS) 표준연구단 합동 워크숍	6.9~10	춘천 남이섬	분야별 교통기술(도로부문, ITS부문)의 융·복합 연구 수행 방안 및 도로 운영 효율화 방안에 필요한 첨단교통체계(ITS) 활용방안 모색
2011 KRIHS-IOER Workshop on Urban Planning Paradigm for Sustainability	7.5	10층 중회의실	공간정보정책, U-City정책, 녹색도시정책 등에 관한 논의
국토 대예측 연구(III) 워크숍	7.6~7 (1차) 9.16~17 (2차)	인천 골든스카이 리조트(1차, 2차)	도시 및 농촌의 변화분석 및 전망 관련 논의(1차, 2차)
하반기 신규과제 발굴 및 연구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미니 워크숍	7.9	10층 회의실	하반기 주요과제 및 국제 행사 진행 점검, 연구인력 운영 방향 논의
토지분야 2012년도 과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	7.14~15	춘천 오월당	토지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토지 관련 이슈 도출
접경권 초광역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 산업 육성방안 워크숍	7.18~19	백령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건의사항 취합 및 조정을 위한 현장조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 계획 수립 워크숍	7.18~20	제주발전연구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기본구상 논의
국토연구원-광양시 합동 워크숍	7.28	광양시청	광양만권의 미래 발전 방향-국토·인프라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국토해양부 남북협력사업발전연구회 공동워크숍	7.28	10층 중회의실	아시아하이웨이 1번(서울-신의주), 6번 노선(간성-선봉) 이용수요 추정결과 비교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 워크숍	8.4	엠클래스컨벤션	녹색도시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발굴
도시방재 워크숍	8.5	3층 중회의실	폭우·폭염에 안전한 도시 조성방안 논의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국토정책시물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 (II) 워크숍	8.10~12 (1차) 8.17(2차)	10층 소회의실 (1차, 2차)	국토정책시물레이션 모형 연구 관련 해외전문가 특강, 토론, 실습 등(1차), 국토정책시물레이션 국제워크숍 결과 정리 및 향후 연구방향 논의(2차)
기성시까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재생시범계획 워크숍	8.16(1차) 9.2(2차) 9.26(3차) 10.13(4차) 10.20, 27, 11.3(5차)	안양 충훈시장 (1차, 2차, 3차) 안양 석수3동 주민 센터(4차, 5차)	'지역상권재생 시범계획' 작성과 시장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참여형 워크숍 진행(1차), 석수3동 주민 및 충훈시장 상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참여형 워크숍 진행(2차), 지역상권 재생시범계획 작성과 석수3동 주민 및 시장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참여형 워크숍 진행(3차), '지역상권 재생시범계획' 작성을 위한 협의(4차), '지역상권 재생시범계획' 작성을 위한 석수3동 지역협의회 심화 워크숍(5차)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건축 관련 개발제도 개선연구 전문가 워크숍	8.16	7층 회의실	도시 관련 관리 및 개발제도의 한계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도시별 실태분석을 위한 제5차 워크숍	8.17	제주발전연구원	국내외 여건변화와 규제개혁의 배경 및 필요성 논의
국가공간정보정책개발 지원 워크숍	8.24	10층 중회의실	국가공간정보정책방향 설정 및 정책개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전문가 워크숍	8.29	서울교육문화회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역할 및 기능, 조직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논의
2011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관리·운영·평가 및 개선 연구 관계자 워크숍	8.31	건도연 7층 대회의실	2011년 시범사업 담당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관련 정보공유 및 교육 실시
지역개발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미래발전전략 수립 연구진 워크숍	8.31 ~9.1	충남도 및 대전 유성호텔	전문가 인터뷰 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 논의
스마트 사회 구현을 위한 Gov 2.0 공간정보정책 정립방안 연구 정책워크숍	9.2	3층 중회의실	Gov 2.0 공간정보정책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 논의
바람직한 공간정보정책체계에 대한 의견수렴 워크숍	9.7	3층 중회의실	정책이론 관점의 공간정보정책체계 협의 및 토론
UN-GGIM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연구 의견수렴 워크숍	9.7	10층 소회의실	의제 발굴 협의체 구성 및 향후 UN-GGIM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협의
2011년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사업 워크숍	9.20	화성시 라비들	"2011년 KOPSS 구축사업" 기술위탁용역 착수보고회 관련 내용 협의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도로부문) 개선방안 연구 합동워크숍	9.20	10층 회의실	편익항목별 개정된 지침(안) 최종 논의
2012년도 과제발굴 본부 워크숍	9.22	서울교육문화회관	내년도 과제 발굴 및 본부 토론회
IDB 지속가능한 신흥도시 플랫폼 및 시행사업-ICT를 활용한 중남미 3개 도시발전 방향 수립 컨설팅 과제 제2차 워크숍	9.29	4층 ECOLE	ICT 현황 조사 자료분석 및 한국의 정보통신 발전 모델 구축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예정지역 발전구상 연구용역 워크숍	10.7(1차) 10.28(2차)	10층 중회의실(1차) 연기군청(2차)	세종시 출범에 따른 연기군의 여건변화 및 발전방향 논의 (1차), 연구진행상황 점검(2차)
캄보디아 국가기본도 제작 및 국가공간정보체계 마스터플랜 수립 워크숍	10.19 ~20	캄보디아 프놈펜호텔	캄보디아 베이스맵 심볼 표준, 캄보디아 NSDI마스터플랜 설명 및 토론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방안 연구(도로부문) 연구진 워크숍	11.8	8층 회의실	개정(안)을 적용한 사례지역 분석결과에 대한 수정 및 개선방안 토론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국제 워크숍	11.14	7층 회의실	일본과 한국의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전략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방안 연구-도시별 재해취약 특성 분석 및 적응능력 제고방안(2차연도) 협동연구진 워크숍	11.14	토즈 양재점	도시계획시설 방재기준 최종(안) 논의
지역개발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미래발전전략 수립 연구 연구진 워크숍	11.14~15	롯데부여리조트	중간보고 시, 국토해양부 요청사항 수렴 및 지역개발시스템 ISP 예산 타당성 검토, 지역개발 시스템SP 최종보고서 정리 (목차 정의, 주요 내용 등)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 워크숍	11.29	4층 ECOLE	국토해양부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논의, 국제협력 로드맵 수립을 위한 국토해양부 국제협력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토론
투자평가지침 개정 연구(도로부문) 연구진 워크숍	12.1	8층 회의실	지침개정(안) 마련 및 최종보고 관련 협의
2011년 공간정보 거점대학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워크숍	12.2~3	전주비전대학	사업운영실적 보고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IDB-KSP ICT를 활용한 중남미 신흥도시 개발전략 과제 워크숍	12.6	4층 ECOLE	연구수행 결과 발표 및 토론
부동산시장 현장 워크숍	12.15	부동산114 광주전라지사	광주·전라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관련 현안과제 및 정책방안 모색
국토정책 지식공유 워크숍	12.16	제주상공회의소	국토품격 향상의 과제와 전략 등 주제발표 및 토론
2011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관리·운영·평가 및 개선 연구 디자인 총괄워크숍	12.16	건도연 7층 대회의실	시범사업 관리·운영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 논의
콤팩트시티에 관한 OECD 워크숍	12.16	3층 중회의실	콤팩트시티 관련 OECD의 연구성과 및 한국의 정책
U-City 동향분석 및 미래공간기술 발전전략 연구(5차연도) 산학연 워크숍 및 자문회의	12.21~22	부산 노보텔엠버서더	U-City 최신기술동향 및 정책동향 조사내용 검증, U-City 최근 발생 이슈 점검 및 발굴 전문가 자문

2 세미나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U-City법제도 및 지원정책(4차연도) 세미나	1.19	3층 중회의실	해외 공공정보 개방사례와 시사점(발표 1), 공공정보 활용 무선 인터넷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발표 2)
TR808 세미나	1.21 (제34차) 12.27 (제35차)	8층 회의실	CGE 모형 개념과 활용방안(제34차), 나를 변화시키는 연구의 지혜(과학적 연구란?)(제35차)
KRIHS-UCL MOU 체결기념세미나	2.10	강당	전환기의 국가도시정책 - 영국과 한국에서의 역사적 변천과 미래방향 논의
한·일 도시공원정책 세미나	2.11	서울대	한국의 도시공원정책 변화와 과제(발표1), 한·일 간 도시공원 정책 사례(발표2), 한·일 도시공원 운영관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토론
2011 창조적 미래 한반도를 위한 정책세미나	3.4	10층 중회의실	통일과 북한경제 연구분야에 대한 국내 국책연구기관의 최근 연구성과 공유 및 한반도 발전 방향 논의
전월세제도연구회 발족식 및 세미나	3.10	9층 회의실	외국의 임대료규제 사례 연구 발표
2011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세미나 시리즈	3.15~16	3층 중회의실	국토 및 지역경쟁력 강화전략, 글로벌 및 미래국토전략, 고품격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국토·도시환경 조성전략
교통수단에 따른 통행 중 활동행태 분석 국제세미나	3.30	10층 중회의실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한·일 간 통행행태 국제비교
건강장수 도시만들기 세미나	4.13	3층 중회의실	한국형 건강장수도시의 향후 방향 논의
하천복원사업의 사회 경제성 평가기법(5차연도) 외부전문가 정책세미나	5.11	8층 회의실	하천복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2011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지원연구 사업 세미나	5.18	8층 회의실	기술가치 평가방법 및 사례(주제1), 한국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시스템(KTRS) 사례(주제2)
2011년도 한·중 국토정책 국제세미나	5.23 ~27	중국 베이징	한국과 중국의 국토 및 토지정책 발전방향 모색
인프라 21 외부전문가 초청 세미나	5.26 (제52차)	8층 회의실 (제52차, 56차, 59차)	미국의 친환경 도로 정책 및 연구(제52차), Transportation Safety Planning(제53차), Toward Sustainable Transportation & Built Environment in an Aging Society(제54차), KSEA 및 Caltrans 주요 프로젝트(제55차), 지역 간 다수단 교통시스템 분석 모형의 소개(제56차), 교통정책 연구방향(제57차), 교통,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제58차), 물류와 토지이용 특성과의 관계 규명을 통한 주도로 내에서의 트럭화물(제59차)
	5.26 (제53차)		
	6.1(제54차)	3층	
	11.8 (제55차)	소회의실 (제53차)	
	11.24 (제56차)	10층 중회의실	
	12.9 (제57차)	(제54차, 55차, 57차)	
	12.13 (제58차)	3층 중회의실	
	12.16 (제59차)	(제58차)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한·미 교통정책 세미나	5.30	10층 중회의실	고령사회를 선도하는 한·미 교통정책 비교
전월세제도연구회 2차 세미나	5.31	9층 회의실	영국의 공정임대료 제도
태국 옴부즈맨 방문단 초청 세미나	6.7	3층 중회의실	한국의 국토계획, 녹색성장 및 녹색도시 등 4개 섹션 마련
보금자리주택의 새로운 지평 세미나	6.22	강당	하우징 디자인의 현재와 미래(주제1), 보금자리주택 디자인체계 개선방안(주제2), 한국도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한 노력과 방향 - 서울강남 보금자리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WB-KRIHS UKP Launching 국제 세미나	6.30	강당	토지, 시장, 인프라 및 공간 계획-지속가능한 도시와 경쟁력 있는 도시 활성화 방안 논의
베트남 재무부·국토연구원·세계은행 공동 국제세미나	7.7	칸토	도시화 리뉴 & 메콩강 유역 인프라 개발 현황 및 전망
OECD-KRIHS Seminar on National Urban Policies and Planning of Korea 국제세미나	7.13	강당	한국 도시정책의 도전들, 도시와 녹색성장
자전거 전문가 초청 세미나	7.15	서울역사 회의실	GIS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와 Non-Recreational Trip의 상호관계 연구(Los Angeles 사례)
시화지구 장기발전방향 수립연구 세미나	8.23	6층 회의실	Geopark 개요와 해외 및 우리나라 지정 현황
도시개발정책의 변화와 합리적 방향 모색 세미나	8.23	10층 중회의실	한국과 일본의 도시정책 비교 및 발전방향 토론
녹색성장·통합·광역화 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 정책세미나	9.26, 29	3층 중회의실	광역 통합시대의 하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토론
지연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 세미나	9.28	서울시 역사박물관	서울시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안) 발표 및 토론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전문가 세미나	9.30	10층 중회의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분야 주요 정책 방향 과제 논의
개원33주년 기념 부문별 세미나	10.13(1차) 10.14(2차) 10.17(3차) 10.18(4차)	3층 중회의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건강장수국토·도시전략, 대도시 베이비부머의 이도향촌(離都向村) 수요특성과 정책과제(1차), 고품격 교통서비스와 지속가능 신교통정책, G20시대의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인프라 협력전략(2차), 주택시장 및 건설경기 진단과 과제에 대한 논의(3차), 품격 있는 국토·도시 만들기 추진전략에 관한 논의(4차)
UN_Habitat와 한국 시민사회·공공부문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세미나	10.13	강당	UN_Habitat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협력방안 등 논의
한·영 국제 공동연구 세미나: 녹색도시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의 역할과 전망	10.24~25	UCL·TCPA (런던)	한·영 대중교통회랑 관련 공동연구 성과 검토, 국토연구원-UCL 국제연구협력방안 등 논의(세션1), 한국과 영국의 녹색도시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정책 현황과 전망 등 논의(세션2)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국토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동주최 제15차 GIS 국제세미나	10.27	KINTEX	글로벌 공간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OGC Interoperability Day 공간정보표준 국제세미나	10.27	KINTEX	미주, 유럽, 아시아 대륙별로 공간정보정책 추진 및 미래 공간정보정책과 국제협력 논의
국토연구원 · 한국CRM협회 공동주최 공간정보를 활용한 상권분석 서비스 세미나	10.28	KINTEX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지원 및 저비용 마케팅 사례 공유를 통한 상권분석시스템의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에 대한 논의
환경해경제권 시대에 대비한 새만금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11.18	3층 중회의실	한국: 환경해경제권 시대의 초국경 지역 간 전략적 협력 필요성 중국: 빈하이신구 개발전략과 새만금 발전을 위한 시사점 일본: 일본 시각에서의 새만금 발전잠재력과 해결과제
뮤지엄과 아카이브 그리고 건축 세미나	11.23(1차) 11.30(2차)	국립현대미술관 대강당(1차) 서울역사박물관(2차)	광의적 의미의 뮤지엄(미술관, 박물관)과 아카이브의 관계에 대한 세미나, 예술기록 자료 관리 및 활용 방안 논의(1차), 건축 도시 분야 자료의 관리와 활용, 도시건축박물관의 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2차)
인도네시아 지역의회 대표단 초청 정책자문 세미나	11.24	3층 중회의실	토지소유권 관련 법적 정비, 토지 등기, 토지사용계획의 구조, 토지구제 적용을 위한 강제와 유인정책 등에 관한 한국의 경험 소개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II) 전문가 세미나	11.29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	실천전략 구체화 및 정책화 방안 도출
공생발전 세미나	11.29	강당	공생발전을 위한 생활국토 조성방안 논의
제3회 국토해양연구회 세미나	11.30	강당	공생발전을 위한 국토해양선진화 전략과 과제 논의
AURI-Norsk Form MOU 체결기념 세미나	11.30	건도연 7층 대회의실	노르웨이와 한국의 건축도시공간 관련 정보 교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ousing Market and Policy 국제세미나	12.8	3층 중회의실	Comparing responses to the financial and housing crisis(주제1), Housing policy of Korea(주제2), Housing market and housing finance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주제3)
국토 대예측 연구(III) 세미나	12.12	일본 도쿄대	한 · 일 국토예측 경험과 성과발표 및 논의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1주년 기념 세미나	12.16	강당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발표1), 무상원조 정책 방안(발표2), 다자간 개발협력 방안(발표3), 개발협력의 글로벌화 방안(발표4)

3 간담회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국토인프라분야 전문가 초청 신년 간담회	1.4	중앙대 건설대학원	지난 40년의 국토개발 및 교통인프라 정책회고와 향후 전망 발표
국토해양부 남북협력팀 -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 정책간담회	1.11	과천 구단지하정식	2011년도 통일 및 남북협력분야 연구과제 논의
매입임대주택 정책 간담회	1.11	부산시청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 검토
2011년도 공간정보정책 간담회	1.14	강당	국토해양부 공간정보정책 발표 및 산·학·연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2011년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신년 간담회	1.19	7층 회의실	2011년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의 활동계획 실천을 위한 토론
보금자리지구 원형지 선수공급방식에 관한 연구 간담회	1.19	9층 회의실	민간의 리스크 경감 방안 및 향후 연구추진 협의
경주고도보존계획 간담회	2.7	8층 세미나실	경주고도보존계획(안) 점검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5차 사업 간담회	2.9	10층 소회의실	KOPSS와 UPIS 연계추진에 대한 업무 협의
창조적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 잠재력과 정책과제(II) 연구간담회	2.11	6층 회의실	북한 남포의 실태와 개발 과제에 대한 논의
보금자리지구 원형지 선수공급방식에 관한 연구 간담회	2.17	10층 중회의실	원형지 선수공급의 적정규모 및 가격에 대한 논의
본부 직급별 간담회	2.18	10층 회의실	2011년도 연구방향, 개인별/팀별 연구능력 향상방안 등 논의
국토인프라전략센터 주관 원내 간담회	2.18	8층 회의실	제2기 국토인프라전략센터의 발전 방향
한·중 물류협력 전략 모색을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	2.18	8층 회의실	최근 중국의 물류 동향과 협력 과제
제2기 해외도시개발 포럼 출범을 위한 간담회	2.25	글로벌개발 협력센터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교육사업 상호 협력방안 및 해외도시개발 사업 진출을 위한 신탁기금 조성방안 논의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 간담회	3.16	3층 중회의실	국토연구원 수행 연구과제 설명 및 과제개발 검증체계 논의
공공시설 입지 갈등해소를 위한 GIS 기반 합의형성지원 방법론 연구 현장 답사 및 간담회	3.17~18	제주도	공공시설입지 갈등발생지역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혁신도시 지원과제 개선방안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3.24	3층 중회의실	혁신도시 지원과제 관련 이전기관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 논의
카자흐스탄 전문가 초청 간담회	4.5	4층 ECOLE	카자흐스탄과의 개발협력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2011년도 교통정책 분야의 연구협력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4.5	대려도	국책연구원·대한교통학회·교통학회·국토해양부 간의 연구협력과제, 교통분야 주요 정책현안과 과제, 국제행사 공동개최 등 논의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서민 지향적 융합형 도시재생방안 전문가 간담회	4.6(1차) 6.15(2차) 7.26(3차)	10층 중회의실 (1차, 3차) 3층 중회의실 (2차)	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융합형 도시재생 방안 강구 (1차, 2차), 서민계층을 위한 융복합 도시재생방안 논의(3차)
세계문화유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용적률거래제 적용방안 간담회	4.7	지역발전 위원회	세계문화유산 주변지역에 대한 용적률거래제 적용방안에 대한 토의
최저 주거기준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간담회	4.21	국토해양부	최저 주거기준 개선(안) 및 고령자장애인 주거기준 도입 최종(안)에 대한 자문
도로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전문가 간담회	4.21	10층 중회의실	고속도로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간담회	4.26	10층 중회의실	도시재생 정책현황 논의 및 상호 협력방안 모색
국토교통축과 공간구조의 변화 간담회	5.11	서울교육 문화회관	과거 1~4차 국토종합계획과 교통망계획의 정책기조와 계획 및 시행 결과 비교, 자료지원 방안 논의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II) 지역간담회	5.31(1차) 6.3(2차) 6.10(3차)	대전발전 연구원 · 대구경북 연구원(1차) 부산발전 연구원(2차) 홀리데이인 광주(3차)	대전 · 대구대도시권 지자체 간 협력실태 및 개선방안 논의(1차), 부산대도시권 지자체 간 협력실태 및 활성화 방안 논의(2차), 광주대도시권 지자체 간 협력실태 및 활성화 방안 논의(3차)
한·중 물류 및 광역교통체계 관련 지역 간담회	6.2	광양시청	광양항과 중국항만 간의 물류 추이와 전망, 항만배후단지 화주 기업 동향 및 전주-광양 고속도로의 효과, 남중권 TOD 도입 방안 등 논의
국토해양부 도로국 정책간담회	6.14	국토해양	국토해양부 도로국과 도로정책 관련 현안 및 도로정책 방향 논의
중국의 아세안지역 진출현황과 향후 국제물류인프라체계에 대한 현지 간담회	6.16	미얀마 양곤 KOTRA	아시아하이웨이 중국지역 회랑의 개황, 향후 중국-미얀마-인도 양의 새로운 회랑(신 버마로드) 개발 시 한국의 대응방향, 국토계획 및 교통인프라분야 국제협력방안 등 논의
한중 FTA 관련 중국건설시장 실태에 관한 업계 간담회	7.26	주중한국 대사관	중국건설시장 진출 실태 및 애로사항 등 업계 의견 수렴
교통시설 입지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8.2	서울대	합리적인 사업추진 및 평가체계, 사후관리 및 대응방향 논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실 정책간담회	8.11	국토해양부	도로정책 현안에 대한 향후 연구과제 논의
마리나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자료 지원 및 간담회	8.11	국토해양부	관련 연구내용 요약자료집 작성, 마리나산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연계방안 설명
산업단지 개발과정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 간담회	9.19	6층 회의실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의 민간참여 확대방안 및 개발절차 개선사항 논의
베트남 도시개발계획협회 관계자와 간담회	8.27	올림픽파크텔	베트남 도시개발 현황과 글로벌 개발협력 방안 논의
녹색·생활 교통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9.23	자전거정책 연합	대중교통 연계 활성화, 신교통수단(TRAM) 도입, 도시부 도로공간 활용방안 등 논의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국토해양부 도로국 정책간담회	10.6	과천 그레이스호텔	2012년 도로국 업무계획 논의
녹색·생활교통 분야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10.11	서울역 회의실	도시 유형별 녹색교통 정책 지표 및 수단 분담 구조설정, 교통과 도시계획 연계 전략, 녹색교통과 ICT 연계 등 논의
한국과 네덜란드의 수변공간 개발방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10.12	서울 마리나	마리나 등 친수·친환경적 도시개발 사례, 한국의 마리나 개발 현황 및 제도, 향후 협력 방안 토의
ASEAN 국가 물류정책과정 연수생들과 포럼 회원과의 간담회	11.8	4층 ECOLE	각 국가별 해외기업 진출 방안 협의
북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11.11	6층 회의실	북한의 환경실태와 정책과제
토지이용규제시스템 운영관리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	11.16	10층 중회의실	현행 도시 및 토지관련 제도 검토, 시스템 적용 방안 논의
독일전문가 초청 간담회	12.1	6층 회의실	유럽의 도시 간 공동발전 협력사례 -독일을 중심으로
물류연구기관·전문가 간담회	12.1	은행회관	2012년 물류분야 주요연구 과제 협의, 협력방안 논의
하버드대 Peter Rowe 교수 초청 간담회	12.6	3층 중회의실	한국의 국토정책 및 도시계획과 국토연구원의 역할
주거복지전략센터 간담회	12.19	9층 회의실	2011년 연구성과 회고 및 2012년 연구방향 논의
교통 및 자전거분야 유관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12.20	서울역 KTX 회의실	2012년 녹색교통 및 자전거 연구를 위한 연구협의체 구성, 주요 의제 논의
물류분야 민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과제 개발 및 협력을 위한 간담회	12.21	한진물류 연구원	근세-현대 물류문화사, 한국물류도감, 물류지도 등 중장기과제 발굴 및 공동추진방안 협의
총청권 연구기관과의 교통/물류분야 연구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12.27 (1차) 12.29 (2차)	서울역 회의실 (1차) 엘타워(2차)	교통/물류/녹색교통 분야 연구 협력네트워크 구축 방안 협의, 자문(1차, 2차)

4 설명회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개발(4차연도) 연구성과 설명회	3.3~4	BEXCO	연구발표 및 시연회를 통한 연구성과 검증 및 전문가 의견수렴
EAROPH 개최지 선정을 위한 설명회	4.5	10층 중회의실	EAROPH 세계대회 개최지와 주제 선정에 대한 설명회 개최
공간정보 유통기구 설립을 위한 설명회	6.9	강당	공간정보 유통기구 설립 및 실무추진단 구성 계획 발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설명회	6.15	서울연구원	KOPSS 설명회 및 미집행시설연구 KOPSS 활용방안 논의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강화군 도 서중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	8.22~23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사업계획안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민자도로 운영평가제도(안) 설명회	8.24	국토해양부	민자도로 운영자(SPC)를 대상으로 민자도로 운영평가제도(안)에 대한 발표 및 의견수렴
토지적성평가제도 소개 및 설명회	8.31	10층 소회의실	한국의 토지적성평가제도 내용 소개
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 공청회 및 지자체 설명회	10.25	한국철도공사	5대 광역권(수도권, 부산울산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에 대한 공청회 및 지자체 설명회
2011년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	10.26	KINTEX	2011년 KOPSS 구축사업 중간성과 보고, 지자체 KOPSS 활용 사례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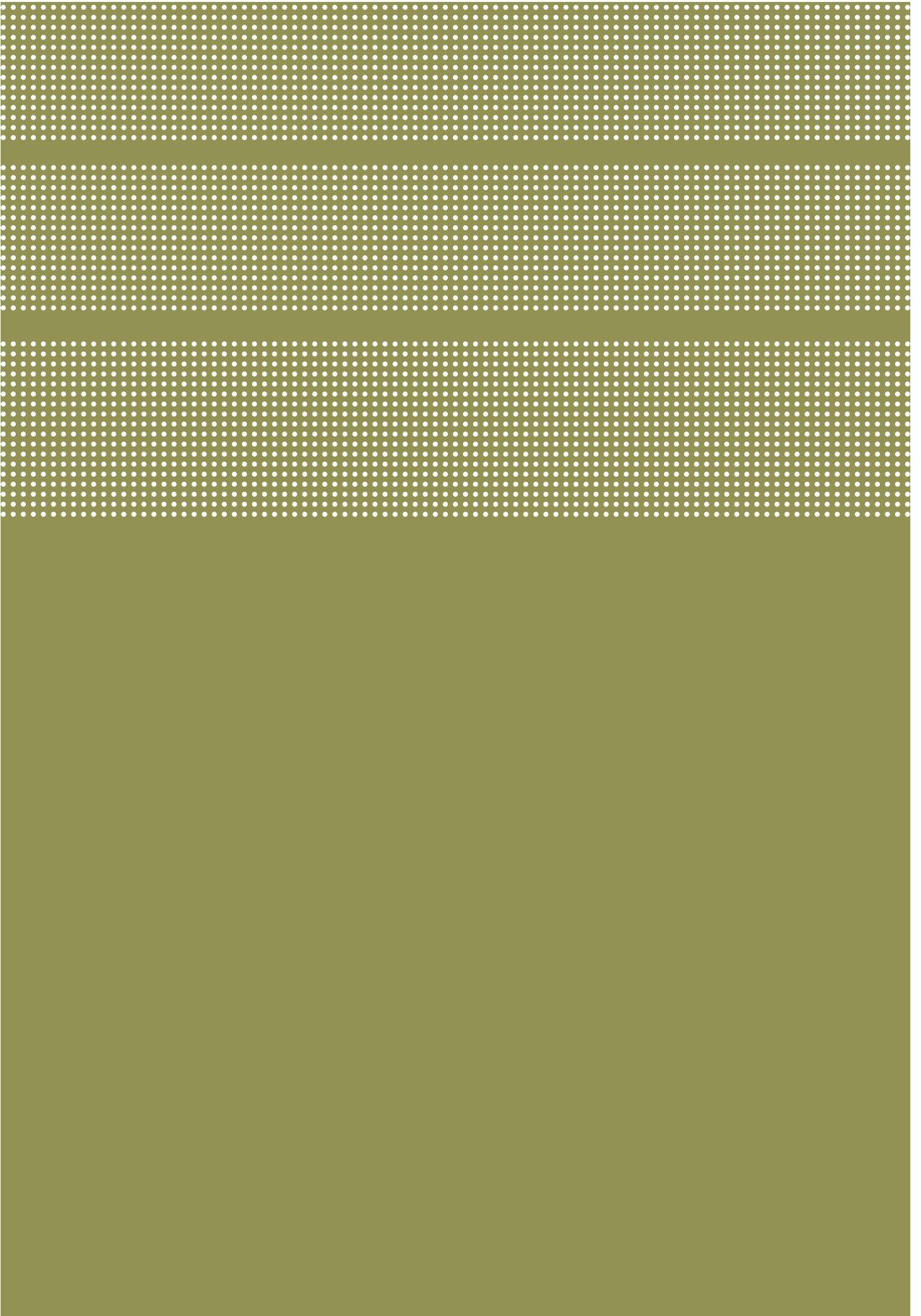
5 토론회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경제자유구역 발전방향 토론회	2.23	3층 중회의실	경제자유구역의 광역적 발전방향
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에 관한 제3차 토론회	3.16	10층 중회의실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
제2회 주거복지컨퍼런스 종합토론회	6.15	9층 회의실	조직위원회 종합 토론 및 향후 방향 논의
산업단지 분양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7.28	10층 소회의실	산업단지 분양 증가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논의
차세대 공간정보정책 수립에 관한 지역전문가 토론회	8.12	강릉 원주대	측량, 지적, 해양, U-City 등 공간정보 관련 통합적 차세대 공간정보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고려대상 지역현안 논의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제6차 지역정책포럼 및 지역토론회	9.6	서천군청	서천군 지역사회통합 주요 추진시책 및 사례 설명, 지역진단 결과 논의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III) 전문가 토론회	9.6	10층 중회의실	글로벌 국토정책 현안, 도시생활 밀착형 공간정보서비스 모형 협의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3차 전문가 T/F 토론회	9.28	전북도청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및 기본방향, 전라북도 건축현황과 여건변화 및 전망,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설정, 전문가 T/F 토론회 운영 개선방안 제안(각 부문별 구성 등), 각 위원별 논의 제안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	10.20	10층 중회의실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 논의

6 공청회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3.2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 및 경기도 건축디자인기준(안) 발표, 계획(안) 및 기준(안)에 대한 토론 및 질의, 응답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공청회	4.29	강당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국토개발체제 개편방안(개발사업 검증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5.30	강당	건설경기 동향 및 건설기계 수급분석 결과 발표 및 토론, 각계 의견 청취
소득·자산기준 개선방안 연구 공청회	6.3	강당	보금자리주택 청약 시 기준(소득·자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예정지역 발전구상 연구용역 공청회	11.24 (1차) 12.28 (2차)	연기군민회관(1차) 연기군청(2차)	과학벨트 연계(부문별) 발전전략 및 조치원읍 도심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1차), 연기군 편입예정지역 발전방안(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자 의견 수렴(2차)



CONTENTS

Annals

REPORT

Chapter

V

정기 간행물 목차

1. 국토(351호~362호)	158
2. 국토연구(68권~71권)	164
3. 국토정책Brief(306호~355호)	165
4. 도로정책Brief(39호~50호)	167
5. 건설경제(66권~68권)	169

1. 국토(351호~362호)

351호 2011. 01

국토시론

더 큰 대한민국의 국토청사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박양호

짧은 글 긴 생각

국토계획 단상 장용동

특집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비전과 목표 박형서, 윤영모
2. 지역특화와 광역적 협력 강화를 통한 국토경쟁력 제고 권영선, 김창현
3.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김명수
4.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와 주거환경 조성 민범식, 김근용, 전성제
5.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임영태, 류재영, 사공호상
6.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기반 구축 남정호
7. 글로벌 시대의 초국경적 국토경영기반 구축 이승복, 조진철

용어풀이 149

아그로파크(Agropark) 외 윤영모

이슈와 사람 75 | 허재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글로벌 녹색국토'의 비전 제시" 김명수

세계의 도시 149

아프리카의 관문, 평화로운 항구도시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진영호

가던 길 멈추고

@-interview

필립 카텐: 세계화 시대, 사회과학으로서의 지리학 임동근

해외리포트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편리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김준기, 최소림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안) 공청회 윤영모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왕광익, 노경식
- 세계은행-국토연구원 공동 워크숍 조진철, 권대환
-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조진철, 이종화
- 국토연구원 단신 | 박양호 원장, 2010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상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결과 '1등' : 우수기관장상 수상 외

글로벌정보

파리시, 공용 자동차 대여 서비스 사업자 선정 외

지역통신

충청권 3개 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박차 외

간추린 소식

지난해 총 38.7만 호 주택건설(인허가), 2009년과 비슷한 수준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31

홍성의 조양문(朝陽門)과 홍주성(洪州城) 박영순

352호 2011. 02

국토시론

배려와 소통의 전통적 가치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박헌주

짧은 글 긴 생각

멋있게 나이 드는 방법 이규섭

특집 | 저출산시대에 대응한 도시 및 주택정책 방향

1. 저출산시대의 도시정책과 향후 방향 이왕건
2. 저출산시대에 대응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김학실
3. 저출산시대의 주택정책과 향후 방향 김영한
4. 저출산문제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정책 방안 천현숙
5. 저출산시대의 보육·교육지원정책 과제 서문희
6. 일본의 저출산 대응 정책: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김진범

용어풀이 150

새로마지플랜 2015 외 이현지

해외리포트

영국 쇠퇴·낙후지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제도: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와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을 중심으로 변필성

이슈와 사람 76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천현숙

세계의 도시 150

주민이 주도하여 만든 소박한 관광도시, 유후인(Yufuin) 강현수

가던 길 멈추고

글로벌정보 | 국토개발청, 새로운 농촌 활성화 지역 선정 기준 제시 외

국토논단

대런던위원회(The Greater London Authority) 10년의 평가: 기능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양도식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 2011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간담회 정문섭, 이주연
- U-City 동향분석 및 미래공간기술 발전전략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이미숙, 천정윤
- 국토연구원 단신 | 'JiQ(Just in Quality)를 위한 2011년 본부별 활동계획 연찬회' 개최 외

지역통신

제주, 해상풍력 발전 메카를 꿈꾼다 외

간추린 소식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위한 주택기금 지원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32

홍주관이(洪州官衙)의 안회당(安懷堂)과 홍성팔경 박영순

353호 2011. 03

국토시론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의 미래국토 박영숙

짧은 글 긴 생각

바람 따라 울고 웃는 두 도시 이야기 김선희

특집 | 국토 대예측

- 1. 메가트렌드와 국토 미래모습 이용우
- 2.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에 따른 국토이용 변화 권원태
- 3. 인구감소시대의 도시서비스 변화 최진호
- 4.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공간변화 황주성
- 5. 첨단 과학기술 발달과 주거·교통의 미래 임현
- 6. 해외 미래예측 동향과 시사점 서용석

영어풀이 151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 외 임지영

지역통신

영도대교 보수·복원공사 착수 외

이슈와 사람 77 |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회장

“다가오는 미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용우

세계의 도시 151

가난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얼굴,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오성호

가던 길 멈추고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국토연구원·국토지리학회 공동주최 'G20 글로벌 경제영토' 세미나
장은교, 박정호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산학연계 합동 워크숍' 주요 내용 박종택, 동우철
국토연구원 단신 | '국토연구원-영국 런던대학교 MOU 체결기념' 국제 세미나
개최 외

정책해설

산업입지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 안경호

해외리포트

일본 시만토강(四万十川) 유역의 문화적 경관지정과 관리
김선희, 백경진, 류태희

글로벌정보

해상 풍력발전소 5곳, 2015년까지 개발예정 외

간추린 소식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로 개발행위 쉬워진다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33

서산(瑞山)의 관문 진남문과 해미읍성(海美邑城) 박영순

354호 2011. 04

국토시론

공정사회 구현과 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고승영

짧은 글 긴 생각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쉬 마을의 봄 임세근

특집 |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통정책

- 1.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통정책 방향 정일호
- 2. 계층별 소득수준을 고려한 교통복지 향상방안 마강래
- 3. 농어촌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이백진, 이운석
- 4.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첨단 교통서비스 전략 김원호
- 5. 미국 소수집단의 Transportation Equity 제고를 위한 정책동향 추상호
- 6. 사회적 배제 최소화를 위한 유럽의 사례 김경석

영어풀이 152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외 서민호

이슈와 사람 78 |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화해와 협력’을 이루겠습니다” 이백진

세계의 도시 152

관용과 개방의 도시, 젃다(Jeddah) 이중환

가던 길 멈추고

@-interview

제네비브 줄리아노(Genevieve Giuliano): 미국의 대중교통 동향과 광역 도시공
간구조 이정우

국토논단

중국의 거대도시군 형성과 지역정책 시사점 김원배

해외리포트

일본 도시·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왕광익, 노경식

글로벌정보

안전한 원자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청의 대응체계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2011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세미나 시리즈
이승욱, 백승현, 오선영, 김은선, 구민상
새 지식 공유를 위한 전문가 특강 주희선
2011년 제1차 한반도 포럼 신혜원
국토연구원 단신 | 국토연구원에서 입안·지원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심의 및 확정 외

지역통신

대구시, 담장허물기운동 확대 운영 외

KRIHS 보고서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방안연구(II)
이정전

산줄기·물줄기를 고려한 산지구분 및 합리적 관리방향 연구 최병암

간추린 소식

서민교통 강화를 위해 교통권(交通權) 및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 제정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34

서령관아문(瑞寧官衙門)과 서산팔경 박영순

355호 2011. 05

국토시론

안전한 방재국토 실현을 위한 제언 이학은

짧은 글 긴 생각

'땅콩집'의 지혜 구선영

특집 | 대형 재난에 대비한 방재국토

- 1. 기후변화시대 대응을 위한 국가방재정책 방향 홍 철
- 2. 지진 위험과 지진 방재정책의 현황과 과제 강익범
- 3. 이상홍수의 현황과 대응방안 고덕구
- 4. 대형 태풍의 피해 특성과 대응방향 심우배
- 5. 폭설 현황과 대응방향 한우석
- 6. 대형 산불발생의 원인과 대응전략 이명보
- 7. 동해안 지진해일의 리스크와 대응과제 이호준
- 8. 미국의 통합적 재난대응시스템 김근영

용어풀이 153

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지승희

지역통신

영월군 '단종제례' 무형문화재 지정 외

이슈와 사람 79 | 조석준 기상청장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왕진

세계의 도시 153

파라오의 영광이 살아 있는 고도(古都), 룩소르(Luxor) 윤서영

가던 길 멈추고

@-interview

에드워드 힐(Edward W. Hill): 미국 쇠퇴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송창식

글로벌정보

2010년 외국기업 투자건수 22% 증가 외

해외리포트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GIS 기반 교통사고 분석 사례 박신형

국토논단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변필성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100세 시대를 향한 건강장수도시 만들기 세미나' 주요 내용 정원욱
 국토연구원 단신 | '2012년 EAROPH(아태지역개발기구) 세계대회 개최 유치 도시 설명회' 개최, 개최지로 대구광역시 결정 외

KRIHS 서평

Low Carbon Low Energy U-Forest(이은식, 이명주 지음) 김선희

KRIHS 보고서

주택 · 교통정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실증적 분석(정일호 외 지음) 김경석
 녹색성장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 모색(김명수 외 지음) 변병설

간추린 소식

택지개발에 민간참여 허용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35

당진(唐津)의 솔미성지 박영순

356호 2011. 06

국토시론

녹색도시, 그 믿음과 우리의 잠재력 김형국

짧은 글 긴 생각

역사 속 세금이 주는 교훈 김덕례

특집 | 매력 있는 녹색국토 창조

- 1. 강 · 산 · 바다 · 섬이 어우러진 녹색국토 창조전략 김선희
- 2. 녹색도시 조성현황과 과제 유성용
- 3. 수변도시, 강에서 미래를 찾다 권영상, 조민선
- 4. 숲 속의 도시, 산림도시의 추진동향과 과제 박구원
- 5. 한국형 녹색섬 조성방안 왕광익, 차정우
- 6. 녹색길 추진현황과 과제 정 휘

용어풀이 154

지역별 국토 셀(Micro-scale Spatial Cell: MSC) 외 백경진

이슈와 사람 80 |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아름다운 보석들로 반짝이는 국토, 소중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김선희

세계의 도시 154

파라과이의 정치 · 경제 중심지, 아순시온(Asuncion) 이정림

가던 길 멈추고

@-interview

짐 데이토(Jim Dator): 미래사회의 성장과 위기 배일한

해외리포트

페허에서 그린 커뮤니티로, 미국 그린스버그 남윤우, 김도희
 일본 국토교통성의 대가구화(大街區化) 가이드라인 추진과 시사점 김중은

지역통신

부산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발표 외

글로벌정보

2025년까지 프랑스 전 국토에 초고속 통신망 구축 예정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고령사회를 선도하는 한 · 미 교통정책 비교' 세미나 주요 내용 김준기, 오성호, 박종일
 국토연구원 단신 | '2011년 자랑스런 KRIHS인 시상식' 개최 외

지상중계

'제1회 전국 중학생 국토올림픽대회' 평가를 위한 좌담회

KRIHS 보고서

국토 대예측(II)(이용우 외 지음) 조정제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II): 부동산시장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K-REMAP의 정책적 이용 증진 방안(이수옥 외 지음) 정의철

간추린 소식

2011년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7만 2,232호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36

면천읍성(沔川郡城)과 당진성경 박영순

357호 2011. 07

국토시론

국토개발사업 추진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김용웅

짧은 글 긴 생각

자연과 인간의 함수관계

맹승영

특집 | 국토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정책과제

1. 국토개발의 추진현황과 과제
2.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실천과제
3. 국토개발사업의 검증제도 도입방안
4.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5. 지역개발통합정보망 구축과 운영방안
6. 일본의 국토 과잉개발과 잃어버린 10년
7. 네덜란드 국토개발전략의 사례와 시사점
8. 국토개발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언

장철순

이용우

정경훈

김이탁

김대중

이동우

강호제

서태성

용어풀이 15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외

고민구

이슈와 사람 81 | 흥 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사람 중심의 지역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손경환

세계의 도시 155

문화와 예술의 교차로, 리옹(Lyon)

김남연

가던 길 멈추고

국토논단

지역 간 연계 · 협력 사업의 성공조건과 정부의 역할

권영섭

해외리포트

홍콩의 도시재생전략과 시사점

김 걸

영국의 공정임대료 제도와 시사점

박미선

특별기고

대체수자원 확보기술 동향

박진혁

글로벌정보

르 아브르(Le Havre), 내륙수도 파리의 항구로 개발 외

지역통신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2011년 제2차 한반도 포럼’ 주요 내용

신혜원

‘제3차 지역정책포럼’ 주요 내용

차미숙, 윤윤정

국토연구원 단신 | ‘세계은행-국토연구원 도시화지식플랫폼(UKP) 조인식’

체결 외

KRIHS 서평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박인성 · 조성찬 지음) 김윤상

KRIHS 보고서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이수욱 외 지음)

박신영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정윤희 외 지음) 서수정

간추린 소식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4개에서 6개로 늘려 수도권 시민 이용 편해질 듯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37

태안(泰安)을 지켜온 돌부처와 안흥성(安興城)

박영순

358호 2011. 08

국토시론

새로운 친수공간의 보고, 섬의 잠재력

조정제

짧은 글 긴 생각

2천 년을 잇는 진리의 보편성

판카즈 모한

특집 | 바다 위의 국토, 섬 발전방안

1. 우리나라 섬의 특징과 잠재력

김 준

2.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이승우

3. 섬 발전을 위한 관광관리 사례와 정책방향

최영국, 박정은

4. 섬 관광의 동향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김영준

5.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안여객운송 실태와 정책과제

류재형

6. 대한민국 명품섬 조성계획과 추진 전략

전만권

7. 일본의 이도(離島) 활성화 정책

신순호

용어풀이 156

서해 5도 외

강민규

지역통신

부산시, 종합 교통대책 마련 외

이슈와 사람 82 | 강동석 2012여성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바다를 활용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때입니다”

김명수

세계의 도시 156

국립공원의 천국, 서호주의 심장 퍼스(Perth)

안정숙

가던 길 멈추고

@-interview 안드레아 팔루디(Andreas Faludi):

21세기 공간계획-유럽연합 내외의 국가 간 영토결속

최경호

해외리포트

전쟁터에서 평화의 섬으로, 대만 금문도

한우석

정책해설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김영아

글로벌정보

미래 경쟁력 5개 부문에 350억 유로 투자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KRIHS-IOER Joint Workshop’ 주요 내용 김걸, 김교민

‘OECD-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 주요 내용 김은란, 정소양

국토연구원 단신 | ‘세계은행UKP 라틴아메리카 런칭세미나’ 참석 외

KRIHS 서평

도시의 승리(에드워드 글레이저 지음)

이왕건

KRIHS 보고서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공간 활용도 제고방안

- 지방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임은선 외 지음) 김상빈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슬과 산업 파급효과 분석연구(최병남 외 지음) 조우석

간추린 소식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7만 2,667호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38

백화산성(白華山城)과 태안팔경(泰安八景)

박영순

359호 2011. 09

국토시론

중국 국토개발과 한중협력: 꼬끼리와 함께 춤을 김원배

짧은 글 긴 생각

노년의 哨兵 한상렬

특집 | 중국의 국토개발과 한중협력

1. 중국 국토분야의 정책방향 및 우리의 대응전략: 12·5계획을 중심으로 김천규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장규, 여지나
3. 중국 환경정책의 동향과 한중협력 발전방향 추장민
4. 중국의 토지정책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박인성
5. 중국 교통물류계획의 추진방향과 한중 협력전략 임영태, 서종원
6. 중국의 관광정책 동향과 한중 협력방안 장병권
7. 중·북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동향과 전망 장동명

용어풀이 157

사오강사회(小康社會) 외 김 흠

지역통신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기공식 개최 외

이슈와 사람 83 | 신봉길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한·중·일 3국협력의 허브로 자리잡겠습니다” 김천규

세계의 도시 157

동슬라브 민족의 고향, 성스러운 도시 키예프(Kiev) 박정호

가던 길 멈추고

@-interview

수잔 팝킨(Susan J. Popkin): 사회계약체중의 자립성 제고를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 방향 경신원

국토논단

강 살리기의 성과와 시사점: 독일의 이자르강 살리기를 중심으로 심우배

해외리포트

미국의 새로운 교통정책 관점: 유럽으로부터의 교훈 조남건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중국의 보장성(保障性) 주택건설 정책 이진, 유홍욱

글로벌정보 | 투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 경기, 국토경관의 다양성을 홍보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 ‘제1차 지역상권재생 워크숍’ 주요 내용 류태희
- ‘제8차 첨단국토포럼’ 주요 내용 정문섭, 이주연
- 국토연구원 단신 | 국토연구원, ‘베이이봄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국제 심포지엄’ 개최 외

KRIHS 서평

- 지속가능한 국토와 환경(곽결호 외 지음) 권원웅
- Collaborative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Towards a Sustainable Regional and Sub-regional Future(김원배 외 지음) 문정호

KRIHS 보고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차미숙 외 지음) 김현호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강미나 외 지음) 김성희

간추린 소식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의 통과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39
아산(牙山) 현충사(顯忠祠)와 맹씨행단(孟氏杏壇) 박영순

360호 2011. 10

국토시론

우리 4대강에 역사와 문화의 새 물결이 열린다! 권도엽

짧은 글 긴 생각

강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자 신정일

특집 | 기후변화에 대비한 한국의 물관리 전략: 4대강 살리기 어디까지 왔나

- I. 치수와 수질관리
 1. 4대강 살리기의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 이상해
 2. 하천관리를 통한 치수대책의 현황과 효과 이상현
 3. 친환경적 수질관리의 현황과 향후 과제 김수찬
 4. 집중폭우에 따른 4대강 살리기 성과 김구범
- II. 생태와 친수문화
 5. 수변생태환경 관리의 현황과 향후 방향 김동구
 6. 4대강 살리기와 친수문화 즐기기 이형기
- III. 미래 물관리 패러다임
 7. 4대강 살리기 이후의 하천종합 관리과제와 방향 김중원
 8. 체계적 물문제 해결과 4대강 살리기의 잠재력 김계현

현장인터뷰 |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4대강 살리기는 전 지구적 물문제에 대비하는 환경사업입니다”

용어풀이 158

치수(治水)와 친수(親水) 외 지승희

지역통신

부산시, 모범간판 건물 인증제 추진

세계의 도시 158

카리브해의 진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Cartagena) 이소영

가던 길 멈추고

@-interview

대니엘 스펀링(Daniel Sperling):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교통기술과 정책의 방향 김창모

해외리포트

독일·폴란드 접경지역 연계교통체계 구축의 시사점 이백진, 서민호
친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의 녹색정책 추진과 정책적 시사점 김광석, 이상욱

글로벌정보

프랑스의 도립공원 개발 프로젝트, 공모 방식 채택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전문가 세미나 주요 내용 박정은
- 국토연구원 단신 | ‘국토연구원 개원33주년 기념식’ 개최 외

KRIHS 서평

서른 살의 아프리카(양은주 지음) 김은정

KRIHS 보고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김은정 외 지음) 고광욱
주거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

간추린 소식

향(천현숙 외 지음) 봉인식

간추린 소식 | 용산-여수 5시간대에서 3시간대로 빨라져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40
아산 외암(外岩) 민속마을과 온양(溫陽) 민속박물관 박영순

361호 2011. 11

국토시론

시공자재(時空自在) 세상과 사이버영토 김영표

짧은 글 긴 생각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의 단상 신지혜

특집 | 글로벌 공간정보사회 대응전략

- 1. 국내 공간정보정책과 글로벌화 전략 서명교
- 2. 글로벌 공간정보기반(GSD)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조춘만, 이영진
- 3. 글로벌GIS 추진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정문섭
- 4. UN-GGIM 창립 의의와 과제 엄경수
- 5. 글로벌 공간정보 연구협력체계 구축방안 신동빈
- 6. 해외 공간정보시장 진출전략 주현중

용어풀이 159

공간정보기반(SDI) 외 성해정

지역통신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본격적 가동 외

이슈와 사람 84 |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KAIST 이사장, 웅진에너지 · 폴리실리콘 회장

“IT 융 · 복합, 다양한 산업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사공호상

세계의 도시 159

문명의 교차점, 카사블랑카(Casablanca) 김광수

가던 길 멈추고

@-interview

조나단 트렌트(Jonathan Trent): 연안공간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개발, 오메가 프로젝트 왕광익, 김재철

해외리포트

네덜란드의 수상 컨테이너 아파트, ‘실로담(SILODAM)’ 이현지

파리의 산업이전적지를 활용한 도시재생과 시사점 이유리

글로벌정보

도시확장으로 인한 중소도시 및 농촌의 통합 가속화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제15차 GIS 국제세미나 주요 내용 이미숙

국토연구원 단신 | ‘국토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외

국토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시리즈 지상중계

제16회 전국 초등학교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수상작 및 입상자 발표

KRIHS 보고서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II)(김선희 외 지음) 송미령

비수도권 인구정책형 도시의 주거문제와 정책방안(김민철 외 지음) 김주영

간추린 소식

북한강 자전거길 열렸다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41

온주야문(溫州衙門)과 아산팔경(牙山八景) 박영순

362호 2011. 12

국토시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성공에서 성공개최로 최문순

짧은 글 긴 생각

아름다운 시들의 합창 류기봉

특집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활성화

- 1. 세계 속 ‘강원브랜드’ 형성의 기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염도민
- 2. 지역 간 연계 · 협력을 통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추진방안 차미숙
- 3. 평창동계올림픽, 경제올림픽으로서의 성공조건 안동규
- 4.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관광활성화 과제 심원섭
- 5. 평창동계올림픽과 녹색교통체계 구축 문영준, 임정실
- 6. 올림픽 시설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전진근
- 7. 해외 동계올림픽 개최사례와 교훈 임태성

용어풀이 160

New Horizons 외 윤윤정

이슈와 사람 85 |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평창에서 세계 동계스포츠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차미숙

세계의 도시 160

시련의 땅이 희망의 도시로, 캄보디아 프놈펜(Phnum Penh) 한가욱

가던 길 멈추고

@-interview

대니얼 그리피스(Daniel A. Griffith):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전용완

해외리포트

미국 연방주택청의 주택전략계획 2010~2015 박미선

후지사와(藤沢)시의 지속가능한 스마트타운 구상 임상연

글로벌정보

파리시 전차노선을 활용한 물류수송기능 강화 외

지역통신

부산 시내버스 이용객 만족도 개선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환경해권(한 · 중 · 일) 상생협력을 통한 새만금 발전방향 국제세미나 주요 내용 전은호

제3회 국토해양연구회 세미나 주요 내용 강민규

국토연구원 단신 | ‘공생발전을 위한 생활국토 조성방안 세미나’ 개최 외

2011 초등학교 국토탐방

KRIHS 보고서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박형서 외 지음) 이선우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I)(심우배 외 지음) 신상영

간추린 소식

3개 광역도로 연말 개통으로 대도시권 광역 교통혼잡 크게 해소 외

2011년 국토 총 목차(통권351호~362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42

천안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의 사적지 박영순

3. 국토정책Brief(306호~355호)

호	발간일	제목	저자명
306	01. 03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전략과 한국의 역할(KRIHS 세미나 중계 10-3)	박재길
307	01. 10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江山)개조론 과 4대강 살리기의 국토재창조	박양호
308	01. 17	['국토 셀' 특집 시리즈2] 국토 품격 제고를 위한 "국토 셀" 특성화 모델: 경주 양동마을 사례	김선희
309	01. 24	다문화시대의 도시관리전략: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박세훈, 정운희, 정소양
310	01. 31	인간과 도시환경 상생을 위한 녹색대중교통체계 - 히로시마의 LRT 중심 종합대중교통체계 구축사례	이백진
311	02. 09	국내 1인 가구 증가의 공간분포 특성에 따른 지역 정책적 함의	강민규
312	02. 14	친수구역의 계획적 활용을 위한 도시디자인 방향	이범현
313	02. 28	위치기반 SNS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정책의 역할과 방향	최병남, 이영주
314	03. 07	외국 고속철도역세권 특성화 개발사례와 시사점	변세일, 이범현
315	03. 21	중국의 12차 5개년계획에 제시된 중국의 국토전략 · 특성, 한국에 대한 시사점	김천규, 이상준
316	03. 21	['국토 셀' 특집 시리즈3] 국토 품격 제고를 위한 "국토 셀" 특성화 모델: 장성 편백숲 사례	양진홍, 백경진
317	03. 28	농촌거주 장애인의 주거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강미나, 김현진, 이현지
318	04. 04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교통개발지구(TDD) 사례와 시사점	강호제
319	04. 11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실천 방안	이원섭
320	04. 18	외국인의 토지소유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최수, 배유진
321	04. 25	도로역 설치를 통한 도로연계공간 활성화	고용석
322	05. 02	Gov 3.0 시대의 토지이용규제정보 대국민 서비스 혁신방안	김대중, 홍경선
323	05. 09	스마트 인프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오성호, 김호정, 김준기
324	05. 16	대중교통을 활용한 저탄소 · 녹색도시 구현 전략: EU의 압축도시와 트랜짓시티, 미국의 TOD 추진 사례	서민호
325	05. 23	해외의 도시권 정책사례와 시사점	김동주
326	05. 30	광역경제권 연계 · 협력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영섭
327	06. 13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간정보기술 R&D 추진전략	최병남, 신동빈
328	06. 13	국가 공원길(SCENIC PARKWAY) 조성	최영국, 박정은, 백승현
329	06. 20	Q방법론을 활용한 국토정책 갈등관리 방안: 미국 Illinois River Watershed의 사례와 시사점	장은교
330	06. 27	산업단지의 복합화 동향과 정책과제	서연미
331	07. 04	주택관련 통계조사 및 지표생산의 개선방향: 외국의 주택 질(Quality) 및 부담가능성(Affordability) 지표 활용사례와 시사점	하수정
332	07. 11	도로사업 사후평가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김호정
333	07. 18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한 대만 공간정보 R&D 사례 및 시사점	강혜경
334	07. 25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의 국제적 동향 및 시사점: 녹색도시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정진규

호	발간일	제목	저자명
335	08. 01	지방 대도시와 주변지역 간 연계실태 및 협력방안	권영섭
336	08. 08	중국물류시장 진출 핵심 Key Words "C.H.I.N.A"와 진출을 위한 전략과제	임영태
337	08. 16	최근의 산업단지 동향과 정책과제	장철순, 서관호
338	08. 22	2011년 7월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동향	이수욱, 전성제, 최윤경 외
339	08. 29	일류공항들 녹색공항을 향해 경쟁 중	정석희, 김명수, 박정은
340	09. 05	정주계층별 고용특성과 지역정책의 시사점	권영섭
341	09. 19	인터모달리움 기반 교통정책 추진동향과 시사점	이미영
342	09. 26	2011년 8월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동향	이수욱, 전성제, 최윤경 외
343	10. 05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책적 시사점	김성수
344	10. 10	도시 빗물관리 개선을 위한 미국 저영향개발 적용사례와 시사점	한우석
345	10. 17	[KRIHS 세미나 중계 11-①] 기후변화 · 물 · 삶의 공간	심우배, 왕광익, 김명수
346	10. 17	2011년 9월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동향	이수욱, 전성제, 최윤경 외
347	10. 24	미국의 통합지역개발계획 운영과 시사점	차미숙
348	11. 07	과학적 합의형성지원기법을 적용한 공공시설의 입지갈등 예방 사례와 시사점	임은선, 차미숙
349	11. 14	월드뱅크의 Eco ² City 동향과 시사점	이진희
350	11. 21	2011년 10월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동향	이수욱, 전성제, 최윤경 외
351	11. 28	영국 Brighton & Hove시 주거전략 건강영향평가(HIA)의 시사점	김혜승
352	12. 05	중국 경제를 이끄는 제3의 성장극(成長極), 텐진 빈하이신구 개발프로젝트 추진과 시사점	이순자, 김흠
353	12. 12	동일본 대진재(東日本 大震災) 복구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사례와 시사점	이영주
354	12. 19	2011년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동향	이수욱, 전성제, 최윤경 외
355	12. 26	해외 플랜트 건설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	김민철

4. 도로정책Brief(39호~50호)

39호 2011. 01

칼럼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정일호
해외정책동향	
1. 도로의 태양광 활용 해외사례	이석진
2. 도로사업 환경평가: 독일사례와 비교	이무춘
3. 미국의 교통 정책: 거주적합성(Livability)을 중심으로	김혜란
4. 차량운행 안전 향상: 미국 인텔리드라이브(IntelliDrive) 사례	오성호
이슈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진정훈
간추린 소식	
1.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안) 공개토론회 개최	
2. 도로 민간투자사업 정책토론회 개최	

40호 2011. 02

칼럼 도로인들은 긍지와 비전을 갖자	박경부
해외정책동향	
1. 일본 유료고속도로 무료화 사회실험 성과와 전망	이승배
2. 유럽의 교통 SOC 투자사업 의사결정 방안	박경아
3. 일본 지방정부의 도로정책 방향	박종일
4. 겨울철 도로관리를 위한 제설장비 선진화의 필요성	양충헌
이슈 UTS 시대의 도래와 주요 쟁점사항	이기영
간추린 소식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확정 · 고시	
2. 국토해양부, 산단 운영 · 개발지침 등 개정	

41호 2011. 03

칼럼 민간투자사업의 정책방향	옥동석
해외정책동향	
1. 차등요금제 해외사례: 똑똑한 요금(Smart Toll)으로 녹색 고속도로(Green Highway) 구축	고용석
2. 프랑스의 지속가능한 고속도로정책	황상규
3. 국내 · 외 도로소를 대응방안 동향	김철환
4. 유럽 쿠퍼스(COOPERS)의 특징과 시사점	오성호
이슈 도로사업 사후평가 제도의 내실화 방안	김호정
간추린 소식	
1. 국토연구원 '제3회 도로연구성과발표 연찬회' 개최	
2.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상공형 휴게소 개발사업 착수	

42호 2011. 04

칼럼 사회적 형평성과 도로 투자정책 방향	고승영
해외정책동향	
1. 외국의 도로부문 온실가스 산정방식과 시사점	이현주
2. 일본 수도권 고속도로의 현황과 도로정책 및 시사점	류시균
3. Positive Guidance의 개념과 적용	노관섭
4. 미국의 SAFETEA-LU 연장과 새 연방 교통법안 입안 추진	이찬영
이슈 수도권 고속도로 정체 개선 방안	이일원
간추린 소식	
1.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안)(2011~2020) 설명회 개최	
2.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고속도로 상황제보' 개발	

43호 2011. 05

칼럼 도로의 목표! 세계 초일류로 설정할 때다	김한용
해외정책동향	
1. 한국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제정 및 활성화 사업	이동민
2. 런던 도시고속도로의 소통대책 및 시사점	박경아
3. 해외사례로 살펴본 도시교통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방향	김태호
4. 지역공동체 버스 운영사례: 미국 Unitrans	김중학
이슈 국토계획평가 제도의 도입과 도로관계계획	이용우
간추린 소식	
1.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부 4개 구간 추진 구상	
2. 투수성 도로포장 설치 가이드라인 구축 예정	

44호 2011. 06

칼럼 도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김형렬
해외정책동향	
1. 녹색도로를 위한 열에너지 하베스팅 구축 연구 동향	조병완
2. 미국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정책 특징과 시사점	강경표
3. 도심교통류 조절을 통한 도시화물운송 효율화 : 뉴욕시 THRU Streets 프로그램	이지선
4. 일본 배리어프리 도로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김재호
이슈 도로 민간투자 내실화 방안	송병록
간추린 소식	
1. 도로정책심의회 개최	
2. 도로경관디자인 기술개발 해외전문가초청세미나 개최	

45호 2011. 07

칼럼 우리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금기정
해외정책동향	
1. 고령화 사회의 도로정책 방향: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승엽
2. 미국의 친환경 도로관리를 위한 정책과 연구: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김창모
3. 미국 대중교통중심개발(TOD) 사례와 시사점	서민호
4.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일본 도로대책	고용석
이슈 로드킬의 대안, 폐도 복원을 통한 생태축의 근본적 회복	서재철
간추린 소식	
1. 제20회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2. 2011 제2차 AURJ 정책포럼 개최	

46호 2011. 08

칼럼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 필요	박병규
해외정책동향	
1.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운영시스템 시범구축	황윤국
2. 사회기반시설물과 BIM 도입	백영인
3. 미국 MPO의 역할과 권한 논의 현황	김승엽
4. 해외 PBC(Performance-Based Contracting) 사례와 시사점	김상록
이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진입로 신호조절 운영효과	김중흔
간추린 소식	
1. 도로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 제3차 중기교통투자계획 마련	

47호 2011. 09

칼럼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글로벌경쟁력,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한승헌
해외정책동향	
1. 독일 고속도로 화물차 통행료 징수정책	이승배
2. 통일 독일의 교통인프라 정책: 성과와 시사점	이상준
3. 미국의 통합 토지이용-교통모형 개발과 운용 현황	김유승
4. 일본의 도로 방재기능 평가방법	최소림
이슈 티널 내 차로변경 허용 필요성	최봉한
간추린 소식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SOC 투자규모 축소	
2. 국토연구원-한국도로공사 「도로정책 연찬회」 개최	

48호 2011. 10

칼럼 지역발전과 인프라 정책	홍순영
해외정책동향	
1. 교통혁신을 위한 미국 DTE정책	김중학
2.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동향	장정아
3. 도쿄도 '특정 긴급수송도로' 지정 운영	김중은
4. 지역차원의 도로안전 제고 노력: 호주 빅토리아주를 사례로	연복모
이슈 SOC시설 디자인 개선 정책방향	김경인
간추린 소식	
1. 2012년 국토해양부 예산안, 도로부문 7.3조 원 편성	
2. 멕시코, 제24회 세계도로대회 개최	

49호 2011. 11

칼럼 간선교통망 중심의 국토공간구조 재편	김경철
해외정책동향	
1. 미국 교통 인프라 노후화 문제와 정치적 갈등	조성민
2. 유럽의 탄소저감을 위한 도시교통프로그램- EU CIVITAS	조혜진
3.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해외 사례	이승배
4. 일본 도로의 방재 대책: 내진 강화 및 비상복구 전략	김민영
이슈 한국형 포장설계법 개발 연구를 마무리하며	
간추린 소식	
1. 고속도로 시간대별·요일별 차등 통행료 도입	
2. 2014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 절반 단축	

50호 2011. 12

칼럼 지속가능한 간선도 도로교통을 위한 노력	팽우선
해외정책동향	
1. 캐나다 고속도로의 차등요금 정책	연복모
2. 해외고속도로 휴게시설과 우리의 개발방향	오석중
3. 미국의 자전거길	조남건
4. 교통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제도화 동향	김혜란
이슈 주말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고속도로 정체개선	이윤재
간추린 소식	
1.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개발	
2. 스마트 하이웨이 시연행사 개최	

5. 건설경제(66권~68권)

66권 2011. 봄호

건설경기 진단

2011년 상반기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김성일, 김민철
2011년 1/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과 소비심리	이수욱, 최윤경, 황관석
2011년 상반기 해외건설 동향과 전망	정창구

특집: 건설시장 현안 진단과 대책

SOC 건설시장의 실태 및 대응방안	박용석
주택건설시장 현안문제와 대응방안	김덕례, 조명수
부동산 PF 대출의 실태와 개선방안	최은영
건설시장 양극화와 상생협력의 방향	이종광

지상중계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1-제1차)	배유진
------------------------------	-----

해외건설정보

해의 그린빌딩의 동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김광석
------------------------	-----

주요 건설통계

67권 2011. 여름호

건설경기 진단

2011년 상반기 건설경기 동향 및 향후 전망	김성일, 김민철
2011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동향과 소비심리	이수욱, 최윤경, 황관석
2011년 하반기 해외건설 전망	정창구

특집: SOC 투자 방향과 건설시장 활성화 방안

4대강사업 이후의 SOC 투자의 적정방향	하헌구
SOC 사업의 민간투자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송병록
주택건설시장의 진단 및 활성화대책	김용순, 이현림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의 해외건설 진출확대 방안	이상호

지상중계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1-제2차)	박대근
------------------------------	-----

해외건설정보

카메룬 인프라 시장 동향 및 진출방안	이훈기
----------------------	-----

주요 건설통계

68권 2011. 가을 · 겨울호

건설경기 진단

건설경기 진단 및 2012년 전망	김성일, 김민철
2012년 부동산시장 동향과 소비 심리 전망	이수욱, 최윤경, 황관석
2011년 해외건설 동향 및 2012년 전망	정창구

특집: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과제

건설산업 참여주체간 공생발전 방안	김재영
건설문화 및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방안	조준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이상호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방안	안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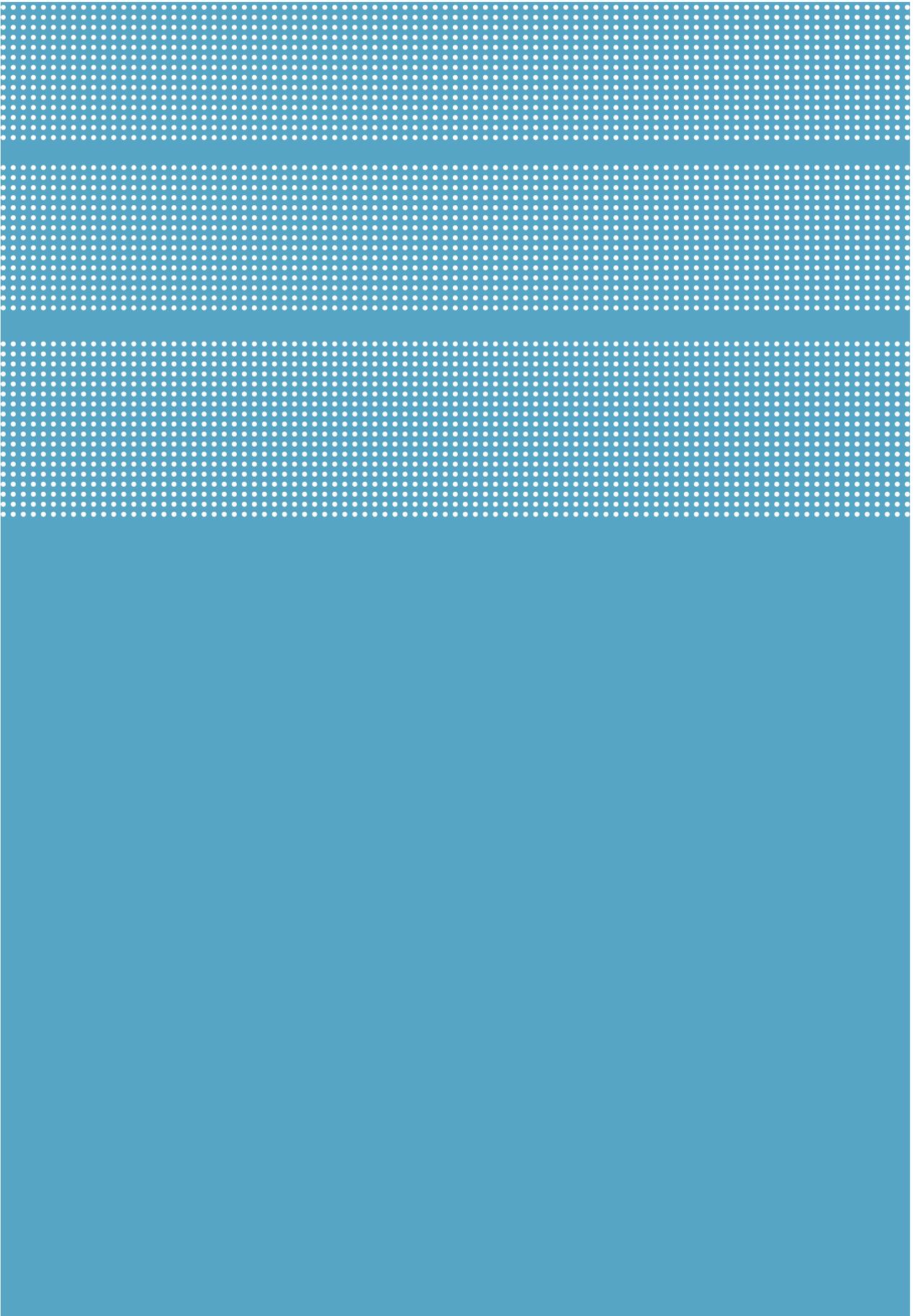
지상중계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1-제3차)	배유진
------------------------------	-----

외국의 건설정보

통행료 부과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분석	조은경
----------------------	-----

주요 건설통계



Chapter

VI

부서소개

1. 원장 · 부원장	172
2. 국토계획연구본부	175
3. 지역연구본부	179
4. 도시연구본부	183
5. 국토환경 · 수자원연구본부	189
6. 주택토지연구본부	193
7. 국토인프라연구본부	201
8. 국토정보연구본부	207
9. 글로벌개발협력센터	213
10. 기획경영본부	217

Chapter VI

01

원장 · 부원장

President & Vice President



박양호 원장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국토 및 지역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건설교통부장관 자문관, 국토연구원 부원장, 한국지역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위원이다. 주요 연구로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토·지역발전」(2011), 「세계경제 흐름과 창조적 국토발전」(2009), 「제4차 국토종합계획연구」(1999), 「제3차 국토종합계획연구」(1991), 「첨단산업과 지역발전방향」(1987) 등 다수가 있다.



박재길 부원장

공학(도시계획) 박사, University of Tokyo

「G20 시대의 국토품격 향상 전략 연구」(2011), 「한국형 국토공간 디자인 연구」(2011), 「공간계획의 정책계획기능 제고에 관한 연구」(2010),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2006), 「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2004)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장, 연구혁신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을 역임하였고,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심의회 위원 및 토지이용규제평가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Chapter VI

02

국토계획연구본부

National Territorial Planning &
Research Division

연구본부 소개

국토계획연구본부는 국토계획 및 정책연구,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연구, 미래국토연구 등 국토발전과 관련한 장단기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첫째, 국토의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국토 신성장거점 등 국책사업 추진 지원, 도시권 육성, 낙후지역 발전 등 국토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셋째,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발전방안과 동북아의 상생발전을 연구하고, 넷째, 바람직한 국토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미래 국토 발전전망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토계획연구본부는 우리 국토와 관련한 창의적, 실용적, 미래지향적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미래연구센터,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와 협력하고 있다.



본부원 소개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지역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토계획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I, II)」(2009, 2010),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방안 연구」(2009), 「미래도시권 육성전략」(2009) 등이 있다.

이용우 선임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University of Bonn
지역계획, 미래예측, 지속가능발전 및 국토계획평가 분야의 전문가로서 현재 국토계획평가센터장, 국토미래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국토 대예측 연구(I, II, III)」(2009~2011), 「국토계획평가 시행방안 연구」(2011),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 연구」(2011),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2010) 등이 있다.

이상준 선임연구위원

공학 박사,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도시개발 및 북한 국토·도시 분야 전문가로 일본 종합 연구개발기구와 독일 연방건설청의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 잠재력과 정책과제(I)」(2011), 「동북아협력시대의 한반도 서해안권 종합발전 구상」(2010),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전략 연구」(2009) 등이 있다. 현재 한반도·동북아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서태성 선임연구위원

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개발정책, 관광개발계획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분야 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국토공간계획 평가 및 과제」(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200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

립 연구」(2004)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원섭 선임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국토계획 및 지역정책 분야 전문가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지방대도시권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2010), 「주요국의 국토해양 정책 동향 분석 연구」(2009),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혁신방안」(2007),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Ⅰ, Ⅱ, Ⅲ)」(2005, 2006, 2007) 등이 있다.

김천규 연구위원

경제학(자원 및 환경경제) 박사, 中國人民大學

지역계획, 중국지역개발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중국·북한·러시아 접경지역의 산업·기반시설 개발잠재력 및 대응전략 연구」(2011), 「중국동북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2011),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및 평가 관리 연구」(2009), 「신규원전 입지확보 체계 및 방법 정립 연구」(2009) 등이 있다.

김창현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국립경상대학교

국토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2011), 「녹색성장·광역·통합 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Ⅰ)」(2011), 「하천복원사업의 사회·경제적 평가」(2011),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 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2010), 「댐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의 합리적 제도개선방안 연구」(2010), 「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2009) 등이 있다.

문정호 연구위원

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94년 박사학위논문 「Planning Against the Leviathan」으로 John Dyckman Award를 수상했다. 이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을 거쳐 2003년부터 국토연

구에 재직하고 있으며, 2009~2010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로는 「접경권 초광역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2011), 「공정한 국토·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기획 연구」(2011),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법적분쟁의 실태와 대처방안」(2008) 등이 있다.

이순자 연구위원

정치학(환경정책 및 자원관리) 박사, Colorado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로는 「공정사회를 향한 지역개발사업 갈등관리 실태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2011),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2010),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9) 등이 있다.

이성수 책임연구위원

경제학 석사, 서강대학교

주로 동북아 및 북한지역 개발을 연구하며 주요 연구로는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Ⅰ)」(2006), 「한일 해협권 통합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2005),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2004),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2003) 등이 있다.

박경현 책임연구위원

지리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2010),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재생 전략 연구」(2009),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Ⅲ)」(2007),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2007),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2006),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2005), 「ICT산업의 지역 간 기능분담 방안 연구」(2004) 등이 있다.

임상연 책임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Tokyo, Urban Engineering, Ph.D 과정 중.

(2010) 등이 있다.

장은교 책임연구원

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2011), 「새만금사업 종합개발계획 수립(학술부문) 2차」(2011), 「공정사회를 향한 지역개발사업 갈등관리 실태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2011),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2010),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정책방향」(2010) 등이 있다.

민성희 책임연구원

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주요 연구로는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Ⅲ)」(2011),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Ⅲ)」(2011),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11) 등이 있다.

남기찬 책임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연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Ⅲ)」(2012) 등이 있다.

박정호 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국토 대예측 연구(Ⅱ, Ⅲ)」(2010~2011), 「국토계획평가 시행방안 연구」(2011), 「국가산업단지 내 미개발 용지 활용 방향 연구」(2011), 「경로분석을 이용한 인구가동 결정요인들 간의 인과구조」(2009) 등이 있다.

이건민 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 초인플레이션」

Chapter VI

03

지역연구본부

Regional Research Division

연구본부 소개

지역연구본부는 지역계획 및 정책, 수도권 및 광역경제권 정책, 산업입지 계획 및 정책 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장단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지역의 자립적 특화발전을 위한 각종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정책을 발굴하며,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및 입지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 수행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계량분석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역연구본부는 창의적·실천적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등 지역정책 관련 정부부처, 지역발전위원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구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본부원 소개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Tsukuba
현재 지역연구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 연구」(2010), 「수도권 발전전략 연구」(2009), 「수도권 규제가 인구·산업의 공간적 재배치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2008), 「분권화시대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연구: 국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200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자원 확보방안 연구」(2005)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태환 선임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수도권 및 지역계획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건강장수도시 조성의 현황과 과제」(2011),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기본구상 수립연구」(2010), 「수도권의 성장관리를 위한 시범모니터링 및 연차보고서 연구」(2009),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방안(Ⅱ)」(2009),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2008),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 방안(Ⅰ)」(2008), 「수도권 공

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이전 추진방안」(2005) 등이 있다. 현재 건강장수도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국토 및 지역계획, 산업 입지 및 클러스터, 첨단산업과 지역정책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지방대 도시권 발전을 위한 신성장 산업기반 확보방안 연구」(2010), 「신성장산업의 입지패턴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2009),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핵도시 체계확립과 육성방안」(200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방안」(2007),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6),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 등이 있다.

김광익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성신여자대학교
도시 및 지역정책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수도

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 및 관리방안」(2010),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재생전략 연구」(2009),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2008), 「도시권 확장연구」(2007), 「도시화지역 확정을 위한 시스템 개발」(2006) 등이 있다.

류승한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과정 수료, 동국대학교

산업입지 및 지역경제발전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안」(2010), 「산업입지 수요공급 실태분석」(2009), 「동남권 도시용지 수요전망」(2008), 「클러스터를 활용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2007),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례편」(2007),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2005), 「산업입지 제도개편 방안 연구」(2005) 등이 있다.

차미숙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지역정책 및 지역계획 수립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2011), 「공공시설 입지갈등 예방을 위한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방법론 연구」(2011),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2010),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 방안(I, II)」(2008, 2009) 등을 수행하였다. 저서로는 「新지역발전론」(2009)이 있다.

장철순 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개발 전문가로 산업입지 및 낙후지역 정책 등 지역계획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8~2010년 동안 기획경연본부 연구기획조정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로는 「지역개발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미래발전전략 수립」(2011),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통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11),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시책 마련을 위한 연구」(2011),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2011), 「새만금사업제도 개선 및 주요 국책사업을 고려한 지역발전전략 수립 연구」(2010), 「임대전용산업용지 공급활성화 방안 연구」(2010), 「광주시 개별입지 공장 및 물류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2009),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연구」(2008), 「광주·전남 국가산업단지개발 타당성 검토 연구」(2008) 등이 있다.

변필성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도시계획 부전공), University of Arizona

주요 연구 관심분야 및 주제는 지역발전정책, 낙후지역 발전과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 기업투자 및 지역발전 등이다.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낙후지역 발전 연구」(2011), 「영국의 쇠퇴·낙후지역 기업투자 활성화 제도와 정책적 시사점」(2010), 「지역경제 살리기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방안」(2009), 「지방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캐피탈 활용방안」(2009)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강호제 연구위원

도시정책학 박사, Cleveland State University

지역경제개발, 산업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GIS 공간분석 전문가로 「수도권 스마트성장관리를 위한 산업입지 정책 연구」(20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반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12), 「산업입지 제도개선방안 연구」(2011), 「Detecting Agglomeration Economies Using Space-time Clustering Analyses」(Annals of Regional Science, 2010)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5년 미국서부지역학회 최고논문상(Springer Award)과 Honorable mention for Tiebout prize를 공동 수상하였다.

김진범 책임연구원

도시·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Tsukuba

주요 관심분야는 계획이론, 커뮤니티플랜, 지역시설계획 등

이다. 주요 연구로는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2010),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2010),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 연구」(2009) 등이 있다.

이미영 책임연구원

교통공학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녹색물류산업의 해외동향 및 시사점」(2011), 「녹색성장형 건강도시의 경제적 가치추정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1), 「국가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교통수단 연계운송체계 구축방안 연구」(2010),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공간 활용도 제고 방안: 지방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2010), 「글로벌 통합물류체계 연결을 위한 Port Biz Valley 구축방안 연구」(2009), 「u-T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 연구(3차연도)」(2009) 등 다수가 있다.

서연미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 관심주제는 기업조직 및 입지, 지역산업정책, 도시의 서비스 경제화다. 「국가산업단지 내 미개발용지 활용 방향 연구」(2011),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2011), 「산업단지 입주가능 서비스업 조정방안 연구」(2010), 「산업용지 수요·공급 분석 연구」(2010),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안」(2010),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 연구」(2010), 「자연보전권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2010), 「수도권 발전전략 연구」(2009)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은정 책임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주요 연구로는 「녹색성장형 건강도시의 경제적 가치추정 및 활성화방안 연구」(2011),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2010), 「Effects of Built Environmental Factors o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Disparity」(2008), 「Health Disparity and the Built Environment: Spatial Disparity and Environmental Correlates of

Health Status, Obesity, and Health Disparity」(2007), 「The Impact of Alternative Tax Systems on Regional Disparity in Korea」(2005) 등이 있다.

하수정 책임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주요 연구로는 「Input-output Analyses of the Pollution Content of Intra- and Inter-National Trade Flows」(2012), 「Econometric Estimation of Armington Import Elasticities and their System-wide Impact in a Regional CGE Model of the Illinois Economy」(2012), 「The Export Base Model with a Supply-side Stimulus to the Export Sector」(2011), 「주택관련지표의 국제비교 연구」(2011),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2011), 「한국 주택금융제도의 역사적 개관」(2011) 등이 있다.

윤영모 연구원

도시정보공학 박사과정 수료, 안양대학교

수도권 및 지역계획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방안 연구」(2011),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낙후지역 발전 연구」(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수립 연구」(2011),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 연구」(2010), 「수도권 발전전략 연구」(2009) 등이 있다.

이윤석 연구원

도시계획 및 설계학 석사, 고려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지역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 검증체계 구축 및 검증을 위한 연구」(2012), 「한반도 폐쇄형 고속도로 기초 연구」(2012),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노선(간성-선봉) 이용수요 추정모델 연구」(2011), 「인프라 건설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비용분담 검토」(2010) 등이 있다.

Chapter VI

04

도시연구본부

Urban Research Division

연구본부 소개

도시연구본부는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 제도 연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 가져야 할 모습으로서 활력 있는 도시, 편리한 생활도시, 매력적인 문화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모색한다. 실천단계에서는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정책방안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방법론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과 설계,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에 관한 법제도 발전방안도 제시한다.

도시연구본부는 연구원 내 도시재생지원센터, 문화국토연구센터,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건강장수도시연구센터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부원 소개

민범식 선임연구위원

도시공학 박사, University of Tokyo

현재 도시연구본부장이며, 「수변도시 조성전략 연구」(2010), 「미래도시정책 방향연구」(2008),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2004),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개발수요 분석 연구」(2003), 「기성시가지 정비기법에 관한 연구: 주거지역을 중심으로」(2002) 등 도시개발과 기성시가지 환경정비 분야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왕건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도시재생지원사업단장을 겸무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2011), 「서민지향적 융합형 도시재생방안」(2011), 「도시재생지원사업」(2011), 「뉴타운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 연구」(2009), 「도시용지의 공급확대에 따른 계

획적 활용방안」(2008), 「도시주변부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2007),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2006), 「인구 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2005),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방안 연구」(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관리」(2005),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 연구」(2004)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 Princeton University

「베트남 국토이용정책 개선방향 연구」(2010), 「The Role of Festivals in the Reproduction of the Urban Lifeworld」(2006), 「이집트 토지개발정책 평가감시능력 강화사업」(2006),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전략 수립 연구」(2005), 「도시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2001), 「제주국제도시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2000)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역·도시실장을 역임하였고,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손경환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한양대학교

국토연구원 부원장,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장, SOC·건설경제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주택정책 및 부동산시장이며, 주요 연구로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2008), 「국토 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사업(2007),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2007), 「부동산정책의 효과분석체계 구축 연구(2006),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안 연구(2005),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2004), 「부동산거래신고가격 적정성 평가모형 개발(2004), 「주택종합계획(2003~2013) 수립 연구(2003), 「외국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정책 연구(2003) 등이 있다.

유재운 선임연구위원

도시경제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SOC·건설경제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경제, 도시개발, SOC 투자 등이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국토정책의 시뮬레이션 체계구축 전략(2009),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DB 구축(2009),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Ⅰ)(2007), 「건설수요구조의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6), 「기업 도시 타당성 검토기준 및 개발이익산정 연구(2005), 「민간투자사업의 중간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5), 「도시개발의 재정영향분석에 관한 연구(2002), 「도시개발비용의 구조분석 연구(2001), 「도시문화산업 육성방안 연구(2000), 「도심재개발 활성화 방안(1997),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1996) 등 다수가 있다.

박은관 연구위원

환경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베트남 국토이용정책 개선방향 연구(2010),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2005), 「택지개발사업지구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2004),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2004),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2001) 등 주로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해왔다.

김상조 연구위원

환경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방안 연구(2010), 「미래 도시정책방향 연구(2008),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기준 연구(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2005~2006), 「지방분권에 따른 국토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2005), 「남해군 시범 군 기본계획 수립(2004), 「도시기본계획 결정권한 이양에 따른 제도 보완방향 연구(2003)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판기 연구위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자체평가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주택·도시정책이며, 특히 도시의 물적 기반이 형성되어온 과정과 요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Ⅲ)(2007), 「토지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2004), 「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 제도발전 방안 연구(2004), 「택지개발지구 자족성 강화방안 연구(2004), 「도시개발의 재정영향분석 연구(2002),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 연구(2002), 「도시경쟁력 비교분석 연구(1998) 등이 있다.

박세훈 연구위원

행정학(도시계획) 박사, 서울대학교

도시정책·계획 분야의 전문가로, 세계화와 도시발전, 도시문화와 역사, 도시개발의 정치경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2010), 「동아시아 초국경적 지역협력과 도시전략(2009), 「마을만들기 참여거버넌스의 비교분석: 제도주의적 접근(2009) 등이 있다.

김성수 책임연구원

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 전문가로 주로 도시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다수의 신도시개발계획에 참여하였다. 최근에는 보행과 대중교통중심의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설계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자원절약적 국토발전방안 연구: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교통에너지 소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2003),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개발수요분석 연구」(2003), 「에너지 효율적 도시형태에 관한 연구」(2002),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연구」(2002),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상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2002) 등이 있다.

왕광익 책임연구원

도시공학 박사, University of Tokyo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Ⅲ)」(2010),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개발 및 시범도시 기본구상 연구」(2009),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2009), 「저탄소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 토지이용부문」(2009),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Ⅰ, Ⅱ)」(2008, 2009), 「미래 도시 정책방향수립 연구」(2008),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방재도시 연구」(2008),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전략 연구」(2008),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계획적 활용방안 연구」(2008),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 온실가스 IPCC 신규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기획연구」(2008)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과 도시공간구조 분석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김은란 책임연구원

지역과학 박사, Cornell University

주요 관심분야는 창조경제, 인적자본, 지역개발이다. 주요 연구 및 프로젝트 실적으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시설 기준 보완 연구」(2010), 「국제회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2010),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방향 연구(Ⅱ)」(2010), 「한국의 도시화 과정과 정부 정책에 관한 연구」

(2010),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Ⅰ)」(2009), 「신성장산업의 입지 패턴분석을 통한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2009),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전략편」(2008),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계획 제도 도입방안」(2008),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2007), 「정보 직종과 미국 대도시권사회 경제적 환경」(2006) 등이 있다.

정윤희 책임연구원

도시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주요 관심분야는 공간분석 및 계획이론, 도시재생 정책이다. 주요 연구 및 프로젝트 실적으로는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및 도시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2011),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2010),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연구: 국토공간 영향분석을 중심으로」(2009),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 연구」(2009),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전략편」(2008), 「건설교통 관련 공공갈등 매뉴얼 구축에 관한 연구」(200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2005), 「도시계획 결정과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2004),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2004),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구축 및 운용방안」(2003),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2002) 등이 있다.

이범현 책임연구원

도시설계학 박사, 서울대학교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전략 연구」(2008), 「중추 기업도시 개발타당성평가」(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2006), 「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2006),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의 집합적 파급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2005),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개발수요 분석 연구」(2003)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중은 책임연구원

도시공학 박사과정 수료, University of Tokyo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2005), 「도시 계획결정과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2004), 「신행정 수도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2003),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2003)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2006~2007)으로 활동하였다.

박정은 책임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가천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2011), 「서민지향적 융합형 도시재생방안」(2011), 「녹색국토 구축을 위한 강·산·해 통합관리 추진방안 연구」(2011),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2011), 「저탄소 녹색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2010),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I, II, III)」(2008, 2009, 2010), 「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분야 정책과제」(2009),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I)」(2008), 「건강·문화·생태회랑 구축전략 연구」(2008),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2007) 등이 있다.

김재철 책임연구원

도시설계학 박사,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도시설계 이론 및 실제적 적용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주요 연구로는 「홍릉 글로벌 녹색단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201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반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11), 「한국 도시설계에 적용된 서구도시 건축이론의 재고」(2011), 「도시설계운동에서의 혁신과 전파에 관한 연구」(2010), 「애틀란타 지역의 뉴버니즘 프로젝트 및 주변지역의 가로연결성에 관한 연구」(2007) 등이 있다.

김동근 책임연구원

공학(도시설계) 박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방식의 개선방안 연구」(2011),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예정 지역 발전구상 연구」(2012), 「홍릉 글로벌 녹색단지 발전방안」(2012), 「도로교통 소음 저감에 유리한 가로변 공동주택 배치방안에 관한 연구」(2012), 「단기주거에서의 장소애착에 대한 연구」(2011),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분석」(2011), 「WDQ분석을 통한 CCTV의 범죄예방 연구」(2011)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진희 연구원

도시공학(도시계획 및 설계) 석사, 연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및 도시계획 방향 연구」(2011),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2011),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2010),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방안 연구」(2010), 「뉴타운 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 연구」(2009),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방안 연구」(2008), 「도시용지의 공급확대에 따른 계획적 활용방안」(2008), 「미래 도시정책방향 수립 연구」(2008), 「주민참여형 도시 개발사업방식 연구」(2007),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2007), 「김포신도시 개발계획 및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2006), 「광역대중교통체계 기반의 포천신도시 개발전략 연구」(2004) 등이 있다.

이승욱 연구원

도시공학 학사,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2009),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연구」(2009),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2009), 「4대강 살리기 관련 외국사례와 시사점」(2009),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제도 도입방안」(2008) 등이 있다.

정소양 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주요 연구로는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2011),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방향 연구(I), (II), (III)」(2009~2010), 「국제회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2010),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2010), 「건강·문화·생태회랑 구축전략 연구」(2008) 등이 있다.

박근현 연구원

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2010), 「한국의 도시화 과정과 정부 정책에 관한 연구」(2010), 「현대 도시 경관의 생성과 변화에 관한 정치경제적 해석」(2010)이 있다.

Chapter VI

05

국토환경 · 수자원연구본부

Environment & Water Resource
Research Division

연구본부 소개

국토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국토환경, 수자원, 문화·역사, 관광, 건강장수도시 구축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국토의 환경계획을 선도하기 위하여 산림, 녹지, 하천, 해안 등의 환경과 생태계를 중시하는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연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자원관리, 방재국토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역사를 바탕으로 한 품격 있는 문화국토의 실현과 건강한 도시생활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건강장수도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국토연구센터,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건강장수도시연구센터 등 3개 센터와 융복합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본부원 소개

김종원 선임연구위원

자원경제학 박사, West Virginia University at Morgantown 환경 및 수자원 정책분야, 계량분석 전문가이며, 현재 국토환경·수자원연구본부장으로 있다. 주요 연구로는 「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I)」(2011),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연구」(2010),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총괄)」(2009), 「환경용수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정책과제」(2007), 「하천복원사업의 사회·경제성 평가기법」(2007), 「물 수요관리평가 모형 구축방안 연구」(2006),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2005), 「하천 유역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 전망과 정책과제」(2004), 「용수 재배분을 통한 가용수량 확보방안(Ⅱ, Ⅲ)」(2004, 2005, 2006) 등이 있다.

채미옥 선임연구위원

공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문화

국토연구센터장, 환경부 중앙자연환경보전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산림청 규제개혁위원, 국무총리실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정책,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산지전용권거래제도 연구」(2011), 「경주 고도(古都)보존계획」(2011), 「지방대도시권 역사문화역량 강화방안」(2011),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Ⅰ, Ⅱ)」(2009, 2010), 「용적률 가치에 기초한 개발이익 통합환수방안」(2009), 「부여 고도(古都) 보존계획」(2009), 「공주 고도(古都) 보존계획」(2009),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 조성방안」(2007),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Ⅰ, Ⅱ)」(2006, 2007),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 방향」(2005),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심우배 연구위원

공학 박사, 홍익대학교
수자원, 도시방재 및 기후적응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국가도

시방재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방안 연구」(2011),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 통합 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 II)」(2009, 2010), 「4대강 살리기 관련 외국사례와 시사점 연구」(2009), 「천변저류지 조성 촉진 및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2008), 「재해에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 「도시홍수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6), 「현장중심적 접근을 통한 수해특성 분석 및 정책과제」(2006), 「효율적인 빗물관리방안 연구」(2005) 등이 있다.

최영국 선임연구위원

조경학 박사, Agricultural University of Norway

지속가능한 국토 및 환경부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관리, 생태관광 및 경관계획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녹색국토 구축을 위한 강·산·해 통합관리 방안」(2011),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I, II, III)」(2008, 2009, 2010),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2007), 「국토의 자연 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2006),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 연구」(2002)가 있으며, 저서로는 「지속가능한 국토와 환경(법문사, 공저)」(2011), 「녹색성장의 길(중앙북스, 공저)」(2009), 「백두대간의 자연과 인간(산악문학, 공저)」(2002), 「지속가능한 관광(일신사, 공저)」(2001) 등이 있다.

김선희 선임연구위원

공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국토미래 전망, 녹색성장, 국토환경 및 어메니티 계획, 갈등 관리 분야 전문가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I, II)」(2010, 2011), 「국토비전 2050」(2009),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 연구」(2009), 「저탄소 녹색도시

의 녹색성장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2009),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자본 확충방안 연구(I, II)」(2008, 2009),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2007),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2007),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2006),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5),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평가 기준설정 및 적용방안 연구」(2004), 「자원절약적 국토발전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박태선 연구위원

수공 및 환경공학 박사, 한양대학교

하천 및 수자원 분야 전문가로서 수자원정책, 자연형하천, 공업수도, 내륙주운, 간이상수도, 치수경제성 분석, 댐 사후평가 등 수자원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한국수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관련 학회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섬진강댐 재개발에 따른 댐사용권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2009),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한 하천유지 관리방안 연구」(2009), 「진위천 일대의 친환경 상생발전 연구용역」(2009) 등이 있다.

양진홍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중앙대학교

국토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건강문화생태회랑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시·군)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G20시대의 국토품격 향상 전략 연구」(2011),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강화군 도서발전계획」(2011),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I)」(2010),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I)」(2004), 「구미국가산업단지 지원 기능 강화방안 연구」(2004),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추진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01) 등이 있다.

이문원 책임연구위원

도시공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립대학교

국토자원 활용(연안 및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이전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출판팀장을 역임하였으며,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2007), 어촌체험마을 컨설팅사업 및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심사위원(2007), 녹색성장위원회의 생생도시평가단 평가위원(2009)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국토해양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독도의 가치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2010), 「독도와 주변지역의 부존자원 분포지도 작성」(2009),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 II)」(2008, 2009), 「낙동강프로젝트 기본계획수립 연구」(2008),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2007), 「군사시설이전적지 활용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연구」(2007) 등이 있다.

한우석 책임연구원

수자원학 박사, University of Utah

주요 연구분야는 수문분석 및 기후변화 방재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 「Assessment of Satellite-based Rainfall Estimates in Urban Areas in Different Geographic and Climatic Regions」(2011),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방안 연구」(2011), 「기후변화 적응 도시 조성방안 연구 - 도시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방법 정립 및 취약성평가(1차연도)」(2011),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취약성 분석과 적응방안 - 국토민감성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1차연도)」(2011), 「이상기후에 대비한 하천의 체계적 관리방안」(2011), 「북한 수자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수자원개발전략 및 추진과제」(2011),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방안 연구(I) - 연안도시 대응방안 사례연구」(2010), 「Determining Effective Impervious Area for Urban Hydrologic Modeling」(2009) 등 다수가 있다.

박종순 책임연구원

환경지리학 박사, The University of Cambridge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환경정책 및 연안계획·관리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지속가능한 연안국토 관리 방향 및 정책과제」(2012), 「독일의 자연침해 제도와 정책제언」(2012) 등 다수

가 있다.

구형수 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도시개발관리 및 성장관리정책, 공간계량분석 전문가다. 주요 연구로는 「시공간패턴분석을 통한 토지이용변화 예측 및 활용방안 연구」(2011),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I, II)」(2009, 2010) 등이 있다.

Chapter VI

06

주택토지연구본부

Housing & Land Research Division

연구본부 소개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도하고, 정책수요에 적시 대응하며, 국가적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주택, 토지 및 건설경제와 관련된 시장분석, 정책개발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첫째, 부동산 시장분석 및 전망, 부동산 정책개발 및 정책효과 분석 등 부동산 시장연구, 둘째, 주택종합계획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평가 등 주거복지정책연구, 셋째, 토지정책의 평가 및 개발, 토지이용 및 개발제도, 토지수급 및 관리 등 토지정책연구, 넷째, SOC·건설경기 동향, SOC 투자 및 정책평가, 건설산업 및 제도 등 건설경제연구다.



본부원 소개

김근용 선임연구위원

경영공학 박사, KAIST

현재 주택토지연구본부장, 한국주택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 감사원 특별조사국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부동산금융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수요 지향적 주택공급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2009),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2009),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 분석연구」(2008), 「주택수급 여건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2007),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실현방안 연구」(2005), 「지역 간·계층 간 주거격차 완화방안 연구」(2005),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2003), 「주택사업 유형별 지원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2002) 등이 있다.

이수옥 연구위원

문학 석사, 한양대학교

현재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 정책 및 시장분석, 주택금융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2011),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2008~2010),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2010),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2009),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 분석 연구」(2008),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인구와 가계자산 변동을 중심으로」(2007),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2007), 「주택분양가제도 개선방안 연구」(2007) 등 다수가 있다.

윤하중 연구위원

공학 박사, 가천대학교

현재 건설경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민간투자사업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영종~

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사업성검토 연구」(2011),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2011), 「창원시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연구」(2010),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연구」(2009),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BTL) 민자사업 연구」(2008), 「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단계별 개선방안」(2007), 「하남-화도(국도45호선) 교통량 재검토 연구」(2006),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 분석 연구」(2006),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준 및 절차지침 연구」(2004), 「민간투자사업의 성능제안형 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2002),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 연구」(2002), 「민간투자사업의 운영관리비 산정에 관한 연구」(2001), 「인프라시설의 타당성 개선방안 연구」(2000) 등과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시설 타당성조사 및 다수의 민간투자사업 평가와 협상 업무를 수행하였다.

김영표 선임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 가천대학교

국토연구원 부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회 위원, 균형발전영향평가단장, 국가GIS위원회 위원 겸 총괄간사,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개발사, 국토정책, 토지정책, GIS,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분야다. 연구실적으로는 「국책사업 갈등사례 분석 및 시사점」(2011), 「녹색성장형 건강도시의 경제적 가치 추정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1), 「한국 경제 60년사: 국토 및 환경 부문」(2010), 「세종시 특별연구」(2010), 「글로벌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 전략」(2010),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의 표기에 관한 실증연구」(2009), 「상전벽해의 국토 60년」(2008),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 연구」(2007),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2005),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2004),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2004), 「토지공개념 연구」(1989), 「대도시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1980) 등이 있다.

배순석 선임연구위원

도시계획학(정책분석) 박사, University of Washington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민주당 소득격차완화 특별위원회 위원, 지방공영개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주택학회 운영위원장, 학회지 편집위원장 및 감사로 활동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 택지개발 및 재개발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주거다양성 제고를 위한 단독주택시장의 구조적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2009), 「서민 주거복지 확대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2008), 「주요 주택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08),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주택보급률 110%,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응」(2007), 「주택 재고관리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06),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2006), 「주택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품질보증체계 구축 방안」(2005),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 연구」(2005) 등이 있다.

진정수 선임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건국대학교

현재 행정안전부 합동평가단 평가위원, 산림청 산림정책평가위원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홍보실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정책 및 택지개발, 산지관리 및 이용 정책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자연친화적 산지개발기준 정립 연구」(2009), 「선진국의 저소득층 주택정책 동향」(2009),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2009), 「택지개발사업의 공공·민간경쟁체계 도입방안 연구」(2009), 「서민주거복지 확대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2008), 「합리적인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2008), 「국민주택기금관리체계 개편 연구」(2007),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실태분석 연구」(2006), 「철원평화시 건설 기본구상 연구」(2006), 「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200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2005) 등이 있다.

정희남 선임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 및 토지정책, 토지 및 부동산시장, 부동산 법제와 부동산금융 등이며, 대통령비서실경제구조조정 기획단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토지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연구」(2010), 「한국경제 60년사: 국토환경」(2010),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토지시장 관리방안 연구」(2009),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리츠제도 활성화방안 연구」(2008),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2008),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다양성 확보방안 연구」(2007) 등 89권의 연구 단행본, 「세계토지사」(1998) 등 4권의 번역서, 「정부수립 이후의 한국 토지정책 60년사 소고, 1948~2008」(2010), 「The Commodification of Land and Housing」(2004) 등 84편의 학술지 발표논문, 「Urban Development and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Land Acquisition and Resettl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2010) 등 72편의 국내외 공개세미나 발표자료 등이 있다.

지대식 선임연구위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 관리와 도시 행 · 재정이며, 건설교통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 연구실적으로는 「부동산산업의 발전방향과 향후 과제」(2010), 「공공토지 비축을 위한 계획수립 연구」(2010),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2009),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지원 방안 연구」(2009), 「투자자국가소송에 대비한 토지구제 개선연구」(2008),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2008) 등이 있다.

김혜승 연구위원

이학(주거정책) 박사, 경희대학교

현재 한국주택학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자문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수석 전문위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

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정책 및 주택시장 분석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공저, 2011), 「미국의 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비영리주택조직의 역할을 중심으로」(2010), 「주거다양성 제고를 위한 단독주택시장의 구조적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2009), 「주거실태조사」(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형 고령자주택 유형개발에 관한 연구」(2009),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2008),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소요추정연구」(2007), 「임대주택체계 개편연구」(2006), 「주거양극화의 현황 및 과제」(2006), 「임대료보조제도 확대도입방안 연구」(2004), 「주거복지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2004), 「주택후분양제도의 초기정책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최혁재 연구위원

행정학(도시 및 지역개발) 박사, 건국대학교

국무총리 물관리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부패방지위원회 전문위원,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바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이용 및 개발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농어촌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2011), 「농어촌정비사업의 추진체계 개선방안」(2011), 「군사시설관련 분쟁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2009), 「남해안 권발전종합계획수립」(2009), 「국방 · 군사시설 관련 계획체계 정비 및 국토이용체계와의 연계방안」(2008),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2006),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 · 관리방안 연구」(2005),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2005), 「농지구제 완화에 따른 투기방지방안 연구」(2004), 「국토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농지 이용관리제도의 발전방향」(2003), 「농지제도 개선방안」(2003) 등이 있다.

천현숙 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연세대학교

건설교통부 자체심사평가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감사원 건설물류국 자문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한국주택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정책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주거안전망 구축방안 연구」(2010),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 연구」(2010),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발전전략: 주거부문」(2009),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방안 연구」(2009), 「커뮤니티재생 거버넌스 및 운영시스템 개발」(2008),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2006), 「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 체계 정립방안 연구」(2005),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개편 방안 연구」(2003),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2002), 「수도권주택건설과 인구집중」(2001) 등이 있다.

김성일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SOC 투자 및 건설산업 정책, 조달행정 및 정책 등이며, 주요 연구로는 「한국의 건설산업 관계법제 연구」(2011), 「G20시대의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과 시장진출전략」(2011), 「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Ⅲ)」(2010),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부문의 대응과제」(2008),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2007), 「BSC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성과 관리방안 연구」(2007),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방안 연구」(2006),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5), 「공공공사 발주행정 분권화 방안 연구」(2004), 「공공공사 클레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2003),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다양화방안 연구」(2002), 「최저가낙찰제도의 정착방안 연구」(2001) 등이 있다.

이승복 연구위원

경영학(자원환경관리) 박사, 단국대학교

자원관리 및 경제성 분석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발사업의 생활보상제도 정비방안 연구」

(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0),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2009), 「남북경협 활성화 시대에 대비한 동해연안 남북접경 지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2008), 「경주역사 문화도시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2007), 「하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하천관리체계 모색연구」(2006), 「대체수자원 확보에 관한 연구」(2006), 「홍수피해 특성분석 및 홍수피해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2005), 「하천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2004),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기초평가 기준설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2004) 등이 있다.

강미나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및 주택정책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경기변동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2011),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2010), 「주거다양성 제고를 위한 단독주택시장의 구조적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2009),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방안 연구」(2009), 「2006, 2008, 2010 주거실태조사」(2007, 2009, 2011),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2008), 「2007 주거실태조사: 노인 가구」(2008),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 연구」(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고령자 생활패턴 분석을 통한 주거환경 편리성 개선방안 연구」(2007), 「지역 간 · 계층 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Ⅲ)」(2006) 등이 있다.

최수 연구위원

도시행정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 및 주택정책, 부동산 시장분석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발전방안 연구」(2011), 「보금자리지구 원형지 선수공급방식 및 공공·민간 공동사업방식에 관한 연구」(201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개선방안」(2011),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발사업의 생활보상제도 정비방안 연구」(2011), 「자연친화적 산지 이용·관리계획 수립방향 연구」(2011), 「산줄기·물줄기를

고려한 산지구분 및 합리적 관리방향 연구」(2010),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토지시장 관리방안 연구」(2009),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리츠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2008), 「2008년도 국내외 부동산 시장 및 정책동향 연구」(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2007),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Ⅱ)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와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2007), 「재건축사업의 계획적 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방안」(2006), 「공공택지 조성원가 및 공급 가격체계 개선방안 연구」(2006),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06), 「토지 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200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2005),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2004), 「부동산 관련세제의 정비 · 개선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이형찬 책임연구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건설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건설정책 및 제도를 주요 연구분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 가능성분석」(2004), 「공공공사 발주행정의 분권화 방안 연구」(2004), 「건설교통부문 성과관리지침 개발 연구」(2004), 「공공공사의 클레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2003), 「대형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연구」(2003), 「제2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수립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김민철 책임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강대학교

건설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건설경기 및 제도를 주요 연구분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경기변동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2011), 「비수도권 인구정체형 도시의 주거문제와 정책방안」(2010), 「건설경기 진단 및 전망체계 구축방안」(2010), 「고유가에 대한 건설산업 대응 전략」(2008),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Ⅲ)」(2008),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2007), 「건설수요구조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6),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 간 배분과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2006),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5) 등이 있다.

김승중 책임연구원

법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법제와 토지정책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발사업의 생활보상제도 정비 방안 연구」(2011), 「농어촌지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어촌 뉴타운사업 발전방안」(2010),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토지시장 관리방안 연구」(2009),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연구」(2008),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2007),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개선 연구」(2006),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2005),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2004) 등이 있다.

변세일 책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경북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KTX를 활용한 국토재창조 방안」(2011), 「대규모 개발사업 · 계획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2011), 「국토대예측 연구(Ⅲ)」(2011), 「KTX 역세권 중심 지역특성화 발전 전략 연구」(2010), 「국토 대예측 연구(Ⅱ)」(2010),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2010), 「지역발전영향평가 시행방안 연구」(2009), 「지역경제 살리기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2009), 「국토 대예측 연구(Ⅰ)」(2009), 「대규모과학기술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2008),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분석 연구」(2008),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200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클러스터 촉진방안」(2007), 「2007년도 균형발전영향평가 연구용역」(2007), 「2006년도 균형발전영향평가 연구용역」(2006),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수립연구」(2005), 「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의 집합적 파급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200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2004), 「ICT 산업의 지역 간 기능분담에 관한 연구」(2004),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2003), 「지역별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2003), 「지역 간 산업연관표 작성연구(Ⅲ)」(2003) 등이 있다.

손학기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서울대학교

주요 관심분야는 산지관리,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GIS, 공간통계 등이다. 주요 연구·프로젝트로는 「자연친화적 산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방안」(2011), 「산줄기·물줄기를 고려한 산지구분 및 합리적 관리방향 연구」(2010), 「도시용지 공급 확대에 따른 토지시장 관리방안 연구」(2010), 「자연친화적 산지이용기준 정립 연구」(2009), 「합리적 산지관리제도 개선방향 연구」(2008)가 있다.

송하승 책임연구원

현재 Newcastle University upon Tyne, School of Architecture, Planning and landscape, Ph.D 과정 중.

박천규 책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과 부동산시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서민주거안정 방안 연구」(2011),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I)」(2011),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2011)」, 「상업용 부동산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10)」, 「부동산시장 진단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2009), 「수요 지향적 주택공급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2009),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I, II, III)」(2008~2010), 「부동산시장 BSI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연구」(2007),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인구나 가계자산변동을 중심으로」(2007), 「주거양극화의 현황 및 과제」(2006),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2005),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주택자금 대출시장의 개선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전성제 책임연구원

지리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과 부동산시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I)」(2011),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I, II)」(2009, 2010),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 분석 연구」(2008),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주택보급률 110% 초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응」(2007), 「주택보양가제도 개선방안 연구」(2007), 「주택종합계획(2003~2012) 수정보완을 위한 연구」(2007),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2006) 등이 있다.

박미선 책임연구원

도시계획학 박사, Cleveland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 주거복지, 주택바우처 제도, 공간분석이며, 주요 연구실적은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2011), 「Social Mix Policy」(2010),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Patterns and Factors of Spatial Concentration in Cleveland」(2010)이며,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2012),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연구」(2012) 등에 참여하고 있다.

박준 책임연구원

도시계획학 박사, University College London

주요 연구로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 도입방안」(2012)과 「OECD의 압축도시 정책효과 분석모형 개발 연구」(2012) 등이 있다.

배유진 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정책과 건설제도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I)」(2010),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 방안 연구」(2011), 「자연친화적 산지 이용관리 방안 연구」(2011), 「보

금자리지구 원형지 선수공급방식 및 공공·민간 공동사업방식에 관한 연구」(2011), 「한국의 건설산업 관계법제 연구」(2011) 등이 있다.

Chapter VI

07

국토인프라연구본부

Infrastructure Research Division

연구본부 소개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교통인프라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전국도로망·철도망 계획, 광역종합교통정책, 국가물류정책 및 계획,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녹색교통정책 개발 등 국가 및 권역, 도시차원에서의 주요 교통정책 및 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중점 연구분야로 국가 및 권역 발전 지원을 위한 주요 교통정책 개발, 연계교통 기반 중장기 교통투자계획 수립, 공간구조와 연계한 교통축 개발계획 수립, 도로·철도 간선교통망계획 수립, 한반도 및 동북아 발전과 관련한 국제물류교통 계획 및 녹색물류정책,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표준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본부원 소개

조남건 선임연구위원

교통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교통기술사

현재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SOC 투자평가 및 사후평가, 고속철도 영향분석 등이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는 「KTX를 활용한 국토재창조 방안」(2011), 「고속대중교통체계 중심의 도시권 공간구조 형성방안」(2010), 「지방대도시권 간선도로망 체계 연구」(2010), 「한국경제60년사: 국토환경 편」(2010), 「울릉도 일주도로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9), 「신안산선 지역갈등 해소」(2009) 등 다수가 있다.

김호정 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 홍익대학교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과 도로계획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도로부문) 개선방안 연구」(2011), 「국토교통인프라의 최저서비스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2011), 「스마트인프라 투자 평가 방법론」(2010), 「도로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제3차 5개년계획, 2차분)」(2010), 「도로정비기본계

획(2011~2020) 수립을 위한 연구」(2009), 「도로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제3차 5개년계획, 1차분)」(2009) 등 다수가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사무위원회, 항만정책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류재영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교통계획학 박사, 한양대학교

1978년부터 KIST지역개발연구소(1978~1981, 국토연구원과 통합)를 거쳐 국토연구원에서 중부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개발, 경부·호남고속철도개발, 수도권 등 대도시권광역종합교통계획 등 지역교통계획과 정책, 물류단지개발계획, ITS기획 분야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2009), 국가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연계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201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교통/물류부문(2011),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2011),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자전거길 조성종합방안 연구(2012), 전환기의 SOC정책방향 연구(2012)에 참여하였다. 건

설교통부 장관자문관(2001~2005),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장(2006~2008),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장(2009~2011)을 지냈고 국토해양부 국가교통조정실수위원과 재정사업자체평가 공동위원장, (재)한국자전거정책연합 회장, 세계도로협회(PIARC)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춘용 선임연구위원

도시공학 박사, 한양대학교, 교통기술사

주요 연구분야는 도로계획 및 정책, 교통계획, 지역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2009~2010), 「지속가능한 교통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도입방안 연구 -지발적인 승용차 이용 저감방안을 중심으로-」(2009), 「도로 공간의 복합적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교통부문」(2005~2006),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2004) 등 다수가 있다.

김흥석 연구위원

산업공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SOC 종합계획 및 운영·관리, 교통계획수립 및 교통정책방향, 공공사업 및 수요분석 관련 연구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수도권 광역인프라 실태분석 및 확충전략 연구」(2011), 「경부고속도로(오산-양재) 대중교통활성화 방안」(2010), 「지방대도시권 간선도로망 체계 연구」(2010), 「신안산선 지역갈등 해소」(2009),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교통부문)」(2009), 「남북교류협력과 철원 발전방향 연구(교통부문)」(2009), 「광역대도시권 SOC 정책의 새로운 방향」(2004) 등 다수가 있다.

정진규 연구위원

도시학 박사, Portland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 및 토지이용, 도시·광역교통계획, 정보화와 교통, 계획이론, 국제협력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대중교통회랑 구축방안」(2011), 「고속대중교통체계 중심의 도시권 공간구조 형성방안」

(2010),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2009) 등 다수가 있다.

오성호 연구위원

교통공학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현재 첨단교통(ITS) 표준연구단장을 맡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정보(ITS), 교통계획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신교통수단 차량시스템 선정 가이드라인 연구」(2011), 「스마트 인프라 투자평가방법론」(2010), 「새만금지역 광역연계 교통체계 계획수립 연구」(2010), 「ITS 통합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한 표준플랫폼 구축 연구」(2010),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통정책 수립」(2010),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2009) 등 다수가 있다.

임영태 연구위원

도시공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경제와 물류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한·중 간 전략적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및 협력방안 연구」(2011), 「국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교통수단 연계 운송체계 구축방안 연구」(2010), 「글로벌 통합물류체계 연결을 위한 Port Biz Valley 구축방안 연구」(2009), 「물류산업발전지표개발 및 국내물류산업 발전방안 연구」(2009) 등 다수가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백진 연구위원

교통공학 박사, Hiroshima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및 ITS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인프라 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방안」(2010),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대중교통회랑 구축방안」(2011),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2010), 「지속가능한 교통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도입방안 연구」(2009),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연구」(2009) 등 다수가 있다.

고용석 책임연구원

교통공학 박사과정 수료,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도로 및 교통계획, ITS, SOC 투자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토교통인프라의 최저서비스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2011), 「한국의 도시화과정과 정부정책에 관한 연구」(2010), 「저탄소 녹색성장 요금체계 개편방안 연구」(2010), 「도로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연구, 제3차 5개년(2011~2015) 계획」(2010),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2009),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수립을 위한 연구」(2009) 등 다수가 있다.

김종학 책임연구원

교통공학 박사,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체계분석이며, 주요 연구실적은 「제3차 도로부문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2010), 「녹색교통활성화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효과 분석」(2009), 「승용차 이용자 가치를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방안 연구」(2008),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2007),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 연구」(2005), 「BRT와 혼잡통행료의 통합시행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2004) 등 다수가 있다.

김준기 책임연구원

교통시스템공학 박사,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주요 연구분야는 형태분석 및 교통안전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통정책 수립: 고령층의 이동공간 특성분석을 중심으로」(2011),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2011),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도로부문) 개선방안 연구용역」(2011), 「스마트 인프라 투자평가 방법론」(2010), 「지방대도시권 간선도로망 체계 연구」(2010),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 연구(교통부문)」(2009), 「지속가능한 교통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도입방안 연구: 자발적인 승용차 이용 저감 방안을 중심으로」(2009) 등이 있다.

김혜란 책임연구원

교통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교통기술사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의 사회적 파급효과, 활동기반 통행형태 분석, 인프라 투자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인프라 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방안: 교통정책의 형평성을 중심으로」(2011),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도로부문) 개선방안 연구」(2011), 「도로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2011), 「한-태 인프라개발에 관한 비교평가분석사업」(2011),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2010) 등이 있다.

윤서연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교통시뮬레이션 및 수요모델 전공),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주요 연구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 구체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전략 연구」(2012), 「OECD의 압축도시 정책 효과 분석모형 개발 연구」(2012) 등이 있다.

서민호 연구원

도시계획 및 설계학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이용-교통 통합개발 및 교통, 인프라 개발정책이다. 토지이용-교통 통합개발 및 도시교통 관련 주요 연구로는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대중교통회랑 구축방안 연구」(2011),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2010),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개발 연구」(2007~2011) 등이 있다. 인프라 개발정책 관련 주요 연구로는 「인프라 건설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비용분담 검토」(2010),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2009) 등이 있다.

박종일 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홍익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및 교통정보(IT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0) 변경 및 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수립 연구」(2011), 「신교통수

단 적정 차량시스템 선정 가이드라인 연구」(201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통정책 수립」(2011), 「지방관리 도로에 대한 정책제안 연구」(2011), 「새만금지역 광역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2010),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 개발(2차연도)」(2009), 「수도권 지능형교통체계(ITS) 정보연계 및 활용방안」(2009) 등이 있다.

Chapter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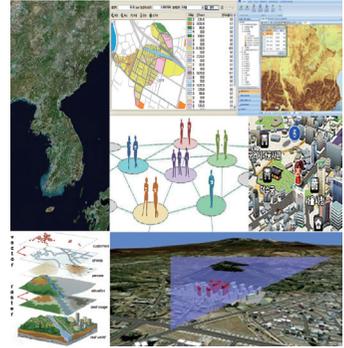
08

국토정보연구본부

Geospatial Information Research
Division

연구본부 소개

국토정보연구본부는 국토정보의 효율적인 생산, 활용, 분석 등을 위한 정책, 계획, 기술,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정보연구본부는 선진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반이 되는 국토정보 기술 및 지식의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정보연구본부는 국토정보 기술 및 지식 생태계의 허브가 되고자 한다. 중점 연구분야는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정책 및 계획, 공간정보시장 분석,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U-City, 공간정보기술의 글로벌화 전략 등이며, 이 외에도 관련 국제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본부원 소개

최병남 선임연구위원

경영정보공학 박사, KAIST

연구분야는 GIS 및 MIS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스마트 사회의 공간정보정책 정립방안 연구」(2011),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기술과 파급효과 분석 연구」(2010), 「한국형 국가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및 글로벌화 전략 연구」(2009),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반 연구」(2008), 「국토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2007),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 구축 연구(I)」(2006, 2007), 「시공간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I)」(2005), 「시공간 통합 국토시물레이션모형 개발 연구(I), (II)」(2005, 2006),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2004),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관리 연구」(1998~2004), 제2차 및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0, 2005) 등 다수가 있다. 현재 국토정보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다.

안흥기 연구위원

도시경제학 박사, 서강대학교

현재 국토정책시물레이션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건설경제분야 전문가다. 주요 연구분야는 SOC, 건설경제, 지역경제 등이며, 요 연구실적으로는 「국토정책시물레이션모형의 구축 연구」(2010),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방안(II)」(2008), 「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2007), 「교통기반시설 투자의 지역 간 배분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2006),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2005),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2004), 「공공투자지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01), 「MRIO모형 구축과 SOC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2000) 등 다수가 있다.

정문섭 연구위원

지리정보공학 박사과정 수료, 인하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정보화 및 GIS정책이다. 국가GIS추진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I, II, III)」(2009, 2010, 2011), 「국토정보화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I)」(2007),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2006), 「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2005), 「국가 GIS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2003),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연구」(2003), 「국가GIS 평가방안 및 시행계획 수립방안 연구」(2002), 「GI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 연구」(2000) 등 다수가 있다.

박종택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중앙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정보 및 국가GIS정책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한국형 국가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및 글로벌화 전략 연구」(2009),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분석 및 역량 제고방안」(2008),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 전략 연구」(2007),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I)」(2005), 「국가GIS중장기 정책방향 연구」(2004), 「2004년 국토조사사업 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2003), 「지리정보기반의 지역 간 격차분석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한선희 연구위원

전자계산학 학사, 동국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통계 및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글로벌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전략」(2010), 「재정투자 파급효과 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 연구(I, II)」(2007, 2008),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2006),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I)」(2005),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연구」(2005), 「접근불능지역의 지리정보 구축 방법」(2004), 「지리정보의 정확도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김미정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건국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 토지정보화 및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사회적 약자 맞춤형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 연구」(2009),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09),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기반 연구」(2008), 「GIS기반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2008), 「2007 국가GIS 자원연구-표준」(2007),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연구」(2005),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5),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운영관리」(2000~2005) 등 다수가 있다.

임은선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건국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분석 및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공공시설 입지갈등 예방을 위한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방법론 연구」(2011),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2011),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2011), 「국토정책시물레이션모형의 구축 연구」(2010~2011),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 연구」(2006~2011),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공간활용도 제고방안」(2010),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저소득층 정착방안 연구」(2009),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전략」(2008~2009), 「국토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반 연구」(2007),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공간구조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2006),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물레이션모형 개발 연구」(2005~2006),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5) 등 다수가 있다.

김대중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주요 연구분야는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 및 공간통계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도시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예측 연구」(2011),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 연구」(2008~2010), 「2010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운영관리」(2010), 「국토정책 시물레이션모형 구축

연구」(2010), 「신성장산업의 입지패턴 실증분석을 통한 산업 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2009), 「인간과 지리물리적 모델에서 생태경계 설정에 관한 연구」(2008), 「미국의 시설물 입지 평가 및 에이전트기반모델에 대한 사례연구」(2007), 「토지투기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론 및 모델 개발」(2006),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1998~2003), 「환경적합성 사전분석시스템 구축 연구」(2001),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GIS 활용 방안 연구」(1998), 「제주도 중산간 보전 및 이용계획수립 종합조사」(1995~1997) 등 다수가 있다.

김 걸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Florida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재생과 U-City 및 계량분석 등이다. 연구실적으로 「U-City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2012),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U-City Competitiveness Index」(2012), 「국내외 U-City 논문의 연구동향」(2011),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분석 및 격차 완화 방안」(2010), 「제3차 국가GIS사업 백서」(2010),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도시 구축방안 연구(Ⅱ)」(2010),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2010),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저소득층의 이주패턴 및 정착방안 연구」(2009), 「국가GIS 지원연구」(2008) 등이 있다.

조춘만 책임연구원

도시 및 지역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최근 연구분야는 국토·도시계획 및 유비쿼터스도시, 공간분석, 공간정보정책 등 국토·도시계획을 위한 GIS/IT의 응용이다. 한국공간정보학회 이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실무위원, 국토해양부 U-City표준화포럼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2010), 「U-City 국제협약체 추진전략 수립 연구」(2009),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I, II, III)」(2009, 2010, 2011),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 연구」(2008),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연구」(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2006), 「광역대중교

통체계 기반의 포천신도시 개발전략 연구」(2004~2006), 「파주시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연구」(2004) 등이 있다.

김동한 책임연구원

계획학 박사, University College London

공간정보분석 전문가이며, 주요 연구로는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2006) 등이 있다.

이영주 책임연구원

Media and Governance 박사, KEIO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GIS를 활용한 지역마케팅 분석, 공간정보분석, 공간정보 가치사슬 분석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2011),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2009~2011),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슬과 파급효과 분석 연구」(2010), 「2011~2015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10), 「한국형 공간정보 인프라 모델정립 및 글로벌화 전략 연구」(2009),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전략 연구」(2007), 「Study on Locational Strategy of Bank Channels Using GIS: Case Study of the 3 Mega Banks in Tokyo 23 Wards」(2006),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연구」(2005), 「GIS를 이용한 시장세분화 분석: 동경 23구를 중심으로」(2004) 등이 있다.

강해경 책임연구원

지형공학 박사, 부산대학교

주요 관심분야는 공간정보정책, 공간정보표준이다. ISO/TC211 WG10에서 ISO19151 프로젝트 책임으로 활동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정책 정립방안 연구」(2011), 「스마트사회를 주도하는 공간정보기술 경쟁력 확보방안-지수정립을 중심으로」(2011),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슬 및 파급효과 분석」(2010), 「2009년도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연구: 공간정보표준 적합성 평가체계 마련, 공간정보표준특허조사」(2010), 「2008년도 국가GIS지원 연구: 국가GIS표준체계 확립 및 표준관리」(2008), 「지자체 공간정보

화 수준분석 및 역량 제고방안」(2008), 「Dynamic Position Identification Scheme for Ubiquitous Space(u-Position)」(2008), 「A Framework for Dynamic Updates of Map Data in Mobile Devices」(2007), 「다중축척 공간 데이터의 축소연산자를 위한 위상관계 일관성 평가」(2005) 등이 있다.

서기환 책임연구원

현재 Arizona State University, Ph.D 과정 중.

이재용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The Ohio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및 정책, 시공간분석 등이며, 주요 연구로는 「U-City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2011), 「U-City 동향분석 및 미래공간기술 발전전략 연구」(2011), 「Visualisation of Socio-Spatial Isolation based on Human Activity Patterns and Social Networks in Space-Time」(2011), 「KTX 역세권 중심 지역 특성화 발전전략 연구」(2009), 「U-Eco City 테스트베드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시설계획 수립방안」(2009), 「지능형도시 지하시설물 관리기술 개발 연구」(2008~2009) 등이 있다.

성혜정 연구원

환경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요 관심분야는 환경계획관련 공간분석, 공간정보의사결정 체계, 스마트 정보화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U-City 동향분석 및 미래공간기술 발전전략 연구」(2011) 등이 있다.

Chapter VI

09

글로벌개발협력센터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개

세계경제의 동반발전과 개도국 등 저소득 국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12월 설립되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국토연구원이 지난 33년간 축적한 국토 개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컨설팅, 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교육은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발컨설팅은 개발도상국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도시개발, 주택건설, 인프라개발 등 국토개발관련 정책과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민간기업과 정부 간의 가교역할을 위해 해외개발·협력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개발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관련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원 소개

사공호상 선임연구위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도시계획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이며,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위원, 한국지리정보학회 부회장, 안양대학교 도시정보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KSP 발전경험 모듈화사업: 한국의 서민주택 건설 및 공급 정책」(2011), 「KSP 발전경험 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2011),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2010),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및 글로벌화 전략연구」(2009),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 GIS 전략 연구」(2007),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2006), 「제3차 국가 GIS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방안 연구」(2003), 「원격탐사 와 GIS의 연계활용방안 연구」(2002), 「GIS 온라인교육 도입방안 연구」(2002), 「인공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국토자원분석 연구」(2000) 등 다수가 있다.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교통공학 박사, Virginia Tech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부소장이며 연구 및 컨설팅 담당으로 주요 연구는 ITS 표준화, ITS 기본계획, SOC 투자평가 등이며, 현재 ISO/TC204 국제표준기구의 u-ITS 분과 위원장과 ITS 표준총회 기술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IDB-KSP 공동 과제 지속가능한 신항도시 플랫폼 설계 및 시행 사업」(2011), 「U-국토 환경에 대비한 교통수요 예측기법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2011), 「GIS 기반 국가 기간교통망 통합계획기법 적용 연구」(2010),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연구-교통부문」(2009), 「유비쿼터스교통시스템 아키텍처 개발 연구」(2006~2010), 「디지털국토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교통정보 인프라 구축방안」(2007),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2006), 「국가 ITS 기술표준화 1~6단계 연구」(1998~2005) 등 다수가 있다.

조진철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Portland State University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부소장이며 국제협력팀장(2009.1~
 2010. 2)을 역임하였으며 개발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
 구로는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국토건설 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연구」(2011), 「국토해양분야 발전경험 모듈
 화」(2011),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
 (2011), 「국토해양분야 발전경험 모듈화사업」(2011), 「G20
 시대의 국토인프라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과 시장진출전략」
 (2011), 「한국 주택금융제도의 역사적 개관」(2011), 「민관협
 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II): ODA 활용
 극대화를 통한 시장확대전략을 중심으로」(2010), 「민관협력
 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2009), 「자원개
 발 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지원 방안 연구(I): 자원개
 발 연계시장 잠재력 분석 및 진출모형 구축방향」(2009), 「해
 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2008) 등이 있다.

Chapter VI

10

기획경영본부

Planning & Management Division

기획경영본부 소개

기획경영본부는 연구원 전체의 연구기획 및 직원의 역량 개발과 지속적인 혁신의 식 고취, 연구본부에 대한 융복합 정책 연구 및 고객지향의 창조적 연구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연구지원센터는 연구원의 예산편성, 국제협력 및 대외 기관과의 학술교류 업무, 보다 나은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관리센터는 직원의 복리후생 및 노사관계 업무와 운용자금 관리, 청사시설 관리, 출판물 기획·편집 및 홍보, 문헌관리 및 연구 관련 사무와 행사지원을 포함한 연구원 행정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본부원 소개

정일호 선임연구위원(기획경영본부장)

교통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Leeds

주요 연구분야는 SOC 투자정책, 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체계분석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2010), 「한·중 공동발전을 위한 국토전략 연구」(2009), 「국토 대예측」(2009),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09), 「간선도로 기능제고방안 마련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2008), 「전국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Ⅱ)」(2008),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전면개정 연구」(2007),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수정계획 연구」(2007), 「수도권 고속도로망 실행계획 연구」(2007), 「효율적인 교통혼잡 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구」(2006),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2005), 「SOC 공금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2004) 등 다수가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 예산자문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명수 연구위원(연구기획조정팀장)

조경학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생태계획 및 경관계획 전문가로서 경관생태학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수림대 조성 기본계획」(2011), 「20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도심활성화 방안 연구」(2010), 「저탄소 녹색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2010),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Ⅰ, Ⅱ)」(2008, 2009), 「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분야 정책과제」(2009), 「건강·문화·생태회랑 구축전략 연구」(2008),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2007),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물 평가지표 작성 및 DB구축 연구」(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2006), 「도시경관 관리제도 정비방안 연구」(200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경관 기본계획 수립」(2005), 「포항제철소 그린마스터 플랜」(2005),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기본계획수립 연구」(2004),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성 확보방안 연구」(2004), 「서울의 주요 하천변 경관개선 방안 연구」(2002) 등을 수행하였다.

강민규 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2010),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I)」(2010), 「주요국의 국토해양 정책동향 분석 연구」(2009), 「주택의 자산효과에 의한 가계소비 변화」(2009) 등이 있다.

연차보고서 발간 전담반

반장	이판식	출판문헌팀장
반원	한선희	연구위원
	박천규	책임연구원
	장은교	책임연구원
	박순엽	책임전문원
	구민상	연구원
	구형수	연구원
	김규원	연구원
	박근현	연구원
	박소연	연구원
	박정호	연구원
	박종일	연구원
	윤영모	연구원
	정소양	연구원
	김선화	사무원
	신선미	사무원
	이화윤	사무원
간사	한여정	전문원

(직급별 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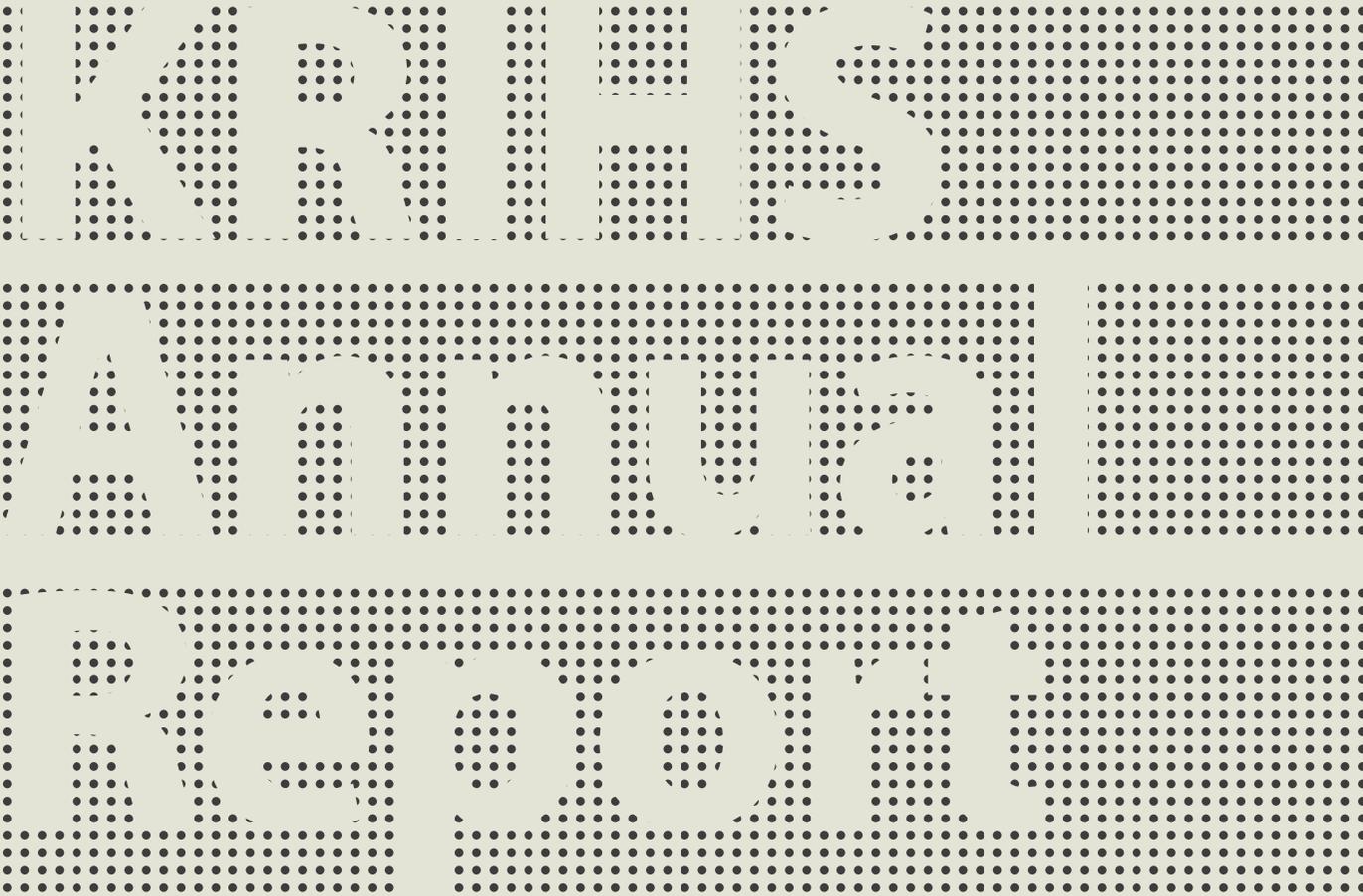
2011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발행인	박양호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22호
인쇄일	2012. 12. 3
발행일	2012. 12. 6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431-712)
전 화	031-380-0114(대표)
팩 스	031-380-0470
ISBN	978-89-8182-925-4

www.krihs.re.kr

©2012, 국토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련 없습니다.



본 인쇄물에 사용된 제지는 국제 NGO단체인 FSC가 승인하는 국제환경마크를 취득하였으며 무염소 표백 펄프를 사용했습니다.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우 431-712)
전화 031-380-0114(대표) 팩스 031-380-0470
www.krihs.re.kr

